

경주의 청동기시대

사람과 문화, 삶과 죽음

Symposium on
The Bronze Age of Gyeongju
People and Culture
Life and Death

학술대회 발표·토론 및 세부일정

개회식 및 인사말

사회자
이채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0:00 ~ 10:30

참가자 등록

10:30 ~ 10:50

개회사 이종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환영사 김권구
(한국청동기학회장)

축사 김두철
(영남고고학회장)
지병목
(국립문화재연구소장)

10:50 ~ 11:00

장내정리/휴식시간

제1부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와 주거

사회자
이채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1:00 ~ 11:30
기조강연

주제
경주의 청동기시대
문화와 사회

발표자
안재호
(동국대학교)

11:30 ~ 12:00
주제발표1

주제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변화에 대한 이해

발표자
배군열
(성림문화재연구원)

12:00 ~ 13:30

점심식사

제2부 청동기 시대의 경주, 사람-도구-묘제

사회자
박영구
(강릉원주대학교)

13:30 ~ 14:00
주제발표2

주제
경주지역 출토 청동기시대
토기와 석기양상

발표자
유병록
(세종문화재연구원)

14:00 ~ 14:30
주제발표3

주제
김단리문화권 내 묘역지석묘의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

발표자
윤형규
(삼한문화재연구원)

14:30 ~ 14:40

휴식시간

14:40 ~ 15:10
주제발표4

주제
경주지역 지석묘사회의 종말

발표자
이수홍
(울산문화재연구원)

15:10 ~ 15:20

휴식시간

종합토론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문화 규명을 위한 제언

15:20 ~ 18:00

좌장
박양진
(충남대학교)

발표자 전원
강봉원
(경주대학교)
정인성
(영남대학교)

박영구
(강릉원주대학교)
윤호필
(상주박물관)

자료집 목차

기조강연

경주의 청동기시대 문화와 사회 안재호	08
-------------------------	----

주제1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변화에 대한 이해 배균열	36
----------------------------------	----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변화에 대한 이해'에 대한 토론문 강봉원	56
--	----

주제2

경주지역 출토 청동기시대 토기와 석기양상 유병록	60
-------------------------------	----

'경주지역 출토 청동기시대 토기와 석기양상'에 대한 토론문 정인성	82
---	----

주제3

검단리문화권 내 묘역지석묘의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 윤형규	84
------------------------------------	----

'검단리문화권 내 묘역지석묘의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에 대한 토론문 박영구	112
--	-----

주제4

경주지역 지석묘사회의 종말 이수홍	114
-----------------------	-----

'경주지역 지석묘사회의 종말'에 대한 토론문 윤호필	130
---------------------------------	-----

• 기초강연

안재호
동국대학교

경주의 청동기시대 문화와 사회

1. 경주의 청동기시대 취락

한반도 남한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초기-전기-중기-후기-만기로 설정(안재호 2016)할 수 있다. 각 시기의 표지적인 자료로서, 초기는 돌대문토기와 미사리식주거지, 전기는 이중구연토기와 둔산식주거지, 중기는 한반도화한 3대 토기유형, 후기는 단순문양 또는 무문양의 토기이며 송국리문화기, 만기는 선점토대토기문화기(안재호 2019)라고 규정하고 싶다.

초기문화는 중국의 요동산지역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압록강 하·중류역을 거쳐 남하하는데, 중기까지 계승과 발전을 거쳐 변천한다. 후기가 되면 중국의 산둥반도를 경유하여 호서지역에 도착한 수전농경문화가 중남부지역에 확산하는 시기이고, 검단리문화와 천천리문화가 병행한다. 만기는 후기의 문화와 요동지역의 정가와자문화의 접변으로 형성된 문화로서 세형동검이나 철기가 제작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이외에도 두만강유역으로는 수렵채집문화로서 연해주의 시니가이 문화가 유입하기도 하고, 중기에는 다시 요동산지역과 요동지역의 문화도 유입하는 등 다양한 문화가 시시각각 전파되었다고 생각한다(강인욱 2016).

1) 전기취락의 3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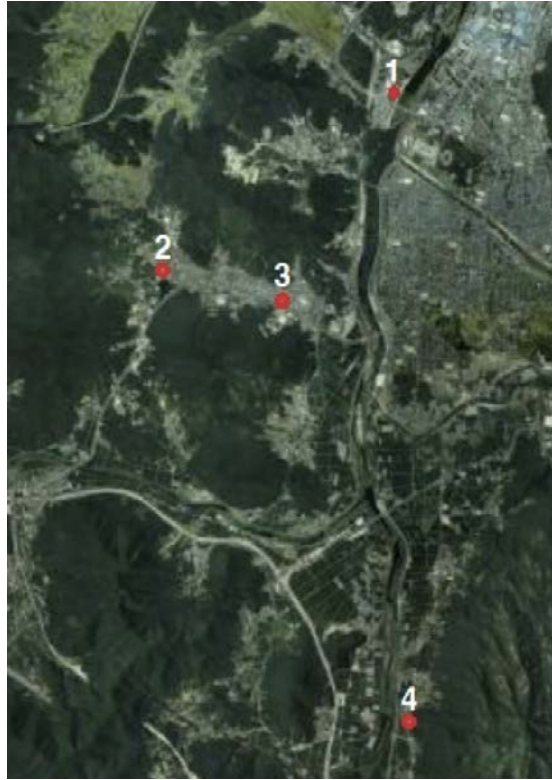
지금까지 발굴된 경주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 또는 유적 중에서 초기에 해당하는 것은 없지만 초기의 문화를 계승한 전기의 유적으로서 는 충효동유적군(김은주·김현진 외 2009, 김현진·정윤희 외 2010)과 금장리유적(박광렬·김대덕 외 2006) 그리고 신석기시대 만기의

사격자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공반된 내남면 용장리유적(최규종·송영지 2010)이 있다. 앞서 두 개의 유적은 돌대문토기를 계승하고, 후자는 이중구연토기를 계승하고 있다. 아마도 최초의 전기유적일 것이다.

충효동유적군과 금장리유적은 각목돌대문토기 이외에도 유상돌대문

〈그림 1〉

경주의 전기유적
1: 금장리유적,
2·3: 충효동유적군,
4: 용장리유적



토기나 구순외연 구순각목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도 출토되고 있어서 그 공반상은 금산 수당리 6호주거지(박순발·성정용 외 2002)의 예를 보면 동일한 양상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유적의 입지에서는 금장리유적은 형산강변의 충적지에 입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돌대문토기취락의 입지와 상통하지만, 충효동유적군은 형산강변에서 산지 쪽으로 이동한 소하천변

이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이중구연토기가 우세한 용장리유적은 형산강에 인접하였으나 산사면에 입지하는 유적으로서 뚜렷한 생계방식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용장리유적¹의 유물은 신석기시대의 율리식토기의 구연부와는 제작방식이 다른 것으로써 오히려 입지상으로도 동일한 울산 구영리Ⅴ-1지구 28호주거지(김호진·유난희 외 2004)와 관련이 깊을 것이다.

따라서 출토된 주요 토기와 취락입지와 상관에서 관찰하면, 제1유형 하천충적지=돌대문토기(금장리유적), 제2유형 소하천변=돌대문토기+이중구연토기(충효동유적군), 제3유형 산사면=이중구연토기(용장리유적)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기의 평지(충적지)성취락에서 전기의 산지(구릉)성취락으로의 변천을 반영한 것으로서, 경주지역의 전기에는 취락의 입지에서 이미 다양한 분화가 일어났고 생계 형태의 다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1 용장리유적을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로 판단하였으나, 재검토한 결과는 탄소14연대치나 토기의 성형기법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전기의 유물이 분명하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호서지역의 예처럼 경주지역에도 구릉성취락의 유형은 존재할 것이다.

2) 중기의 대규모취락

조기와 전기의 취락은 수 기의 가옥으로 구성된 소형규모이므로 그 인적구성은 대체로 친족일 것이다. 그리고 조기의 문화가 전기에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보면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집단의 고유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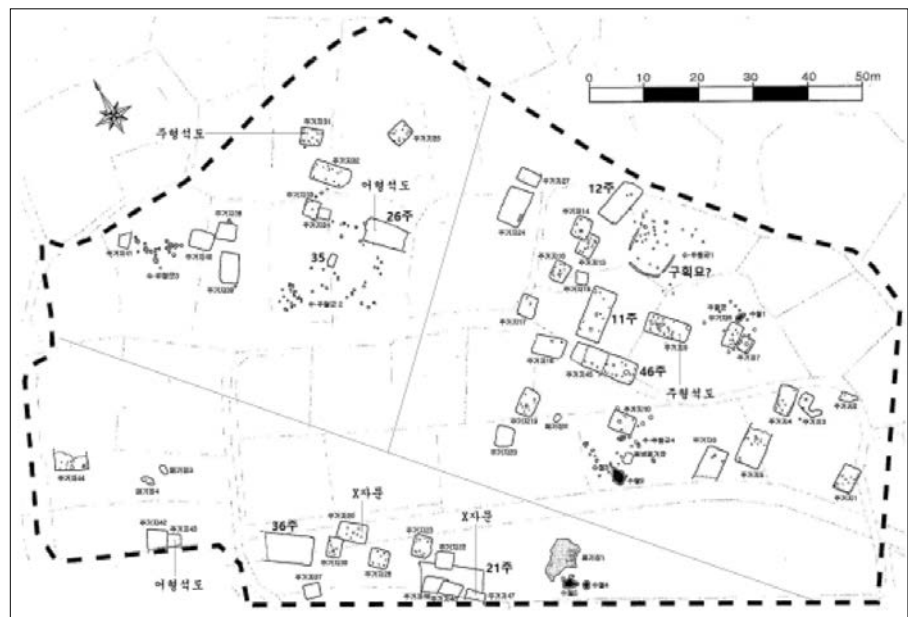
대규모취락의 동력은 개인과 집단의 갈등이었을 것이다. 이 갈등을 통하여 사회문화는 정체하지 않고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었고, 경쟁과 위계가 형성되고 다양한 상징과 생산체계를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경주에서 중기의 대규모 취락으로는 산지형인 어일리유적과 평지형인 용강동유적·덕천리유적 등이 있다. 중기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취락으로 추정되는 갑산리유적(김은주·이은정 외 2006)은 구릉형 취락이므로 입지 조건상 대규모취락에 이르지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림 2〉

용강동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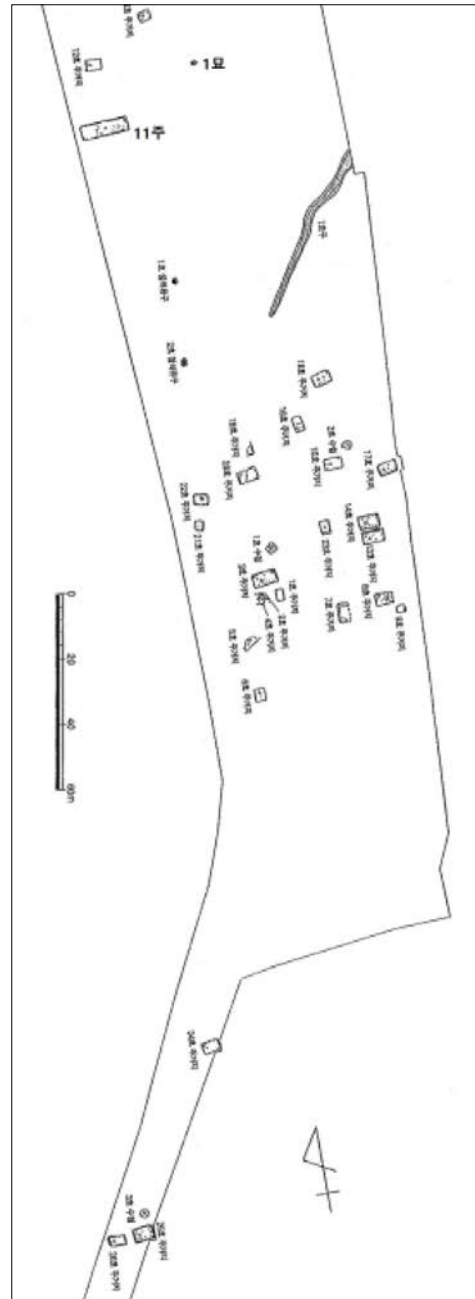
(큰 숫자 주거지는 대형주거지임)



용강동유적(김희철·강진구 2009)은 선상지에 입지하는데, 주거지가 밀집하며 또 중첩된 예가 많고 개활지이기 때문에 대규모취락으로 추정된다. 후기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중기에 편년되는 유적이다. 취락 내 주거지의 분포를 보면 3개 구역으로 분할되는데, 각 구역은 부족 또는 친족의 정치체로서 분절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 추정되며 수장에 의해 통합된 사회는 아닌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38㎡ 이상인 대형가옥은 동구역에서는 11·12·46호 3동, 서구역에서는 21·36호 2동, 북구역에서는 26호 1동이 존재한다. 각 구역에서 문화적인 차이 즉 출자의 차이를 보일 것인지는

〈그림 3〉
덕천리취락



명확하진 않으나, 집단의 상징이라 추정되는 토기의 문양이나 석도의 형태에서 관찰하면 동구역에서는 단주형석도, 서구역에서는 어형석도와 X자문양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동구역에는 방형상의 주구가 검출되었는데, 이것은 주구식구획묘일 가능성이 높고, 북구역의 35호주거지를 둘러싸고 동글게 소수혈이 분포하는데, 3개 구역의 중간광장과 같은 장소에 입지하는 의례공간인지도 모르겠다. 검단리문화분포권에서 주구식구획묘는 1개 취락(집단) 내에서 1기만 검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안재호 2013). 아마도 집단의 始祖墓 또는 最古의 長老墓일 가능성이 높다.

층적지에 입지하는 덕천리유적(한도식·이석범 2008)의

경우도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형가옥은 북구역의 11호 주거지뿐이고, 그 인접한 동쪽에 화장석관묘 1기가 검출되어서 수장이 등장한 후기취락에 가까운 형태이다. 그러나 본 유적은 제한된 범위만 발굴되었기 때문에 40m²이상의 대형주거지가 1기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취락구조는 용강동유적과 동일하리라 추정된다. 남구역에서 사격자문양이 유일하게 검출되었으나, 3개 구역의 문화상(적석주거지, 석도, 토기문양 등)은 거의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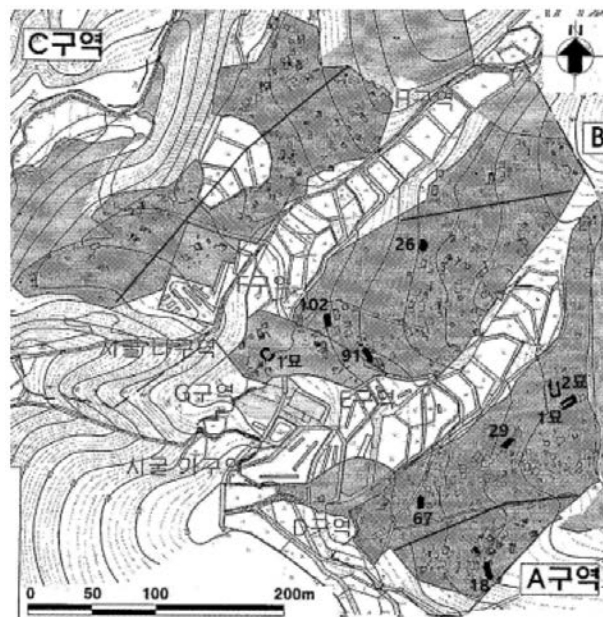
어일리유적(김권일·박병협 외 2013, 권승록·김명섭 외 2013, 이동욱·최유라 외 2013)은 산지형취락으로서 분지한 3개의 구릉으로 취락이 분할되었다. 그런데 각 구릉에는 얇은 계곡부에 의해서 다시 주거지는 두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자연지형으로 인하여 가옥이 구릉의 능선부를 따라 길게 나열한 열상취락의 형태를 띤다. 본 유적은

중기에서 후기까지 존속하는데, 40m² 이상의 대형주거지는 중기에는 A·B구역에서 각 3기가 분산하여 분포하지만, C구역에는 30m³ 이상인 중형주거지 4동이 존재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중기의 어일리취락은 각 구릉마다 소수 또는 1동의 대형·중형가옥이 건립되고, 그 가옥의 구성원이 각 구릉취락의 중심인물이 되었으며, 취락 전체를 대표하는 수장은 등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앞서 2개의 중기유적에서나 동일한 양상이다.

그러나 어일리취락에서 후기가 되면 B지구 26호 주거지만이 대형에 해당하고 취락 전체를 대표하는 가옥으로서 등장하게 되고, 반면에 A·C지구에서는 중형가옥 1동만이 구릉취락을 대표하여 존재하고 있어서, B-26호 가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상의 계층적인 신분구조를 띠는 것이다.

어일리취락에는 3기의 주구식구획묘가 확인되는데, A취락의 가장 높은 고소에는 세장방형의 주구로 둘러진 구획묘가 2기 분포하고, B취락의 구릉 최저지 E구역에서는 방형의 구획묘 1호가 분포한다. 주구식구획묘의 평면형태는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답습한 것이므로 전자 2기는 중기에, 후자 1기는 후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무덤의 복·단수는 대형가옥의 수와도 상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후기의 조상묘가 입지하는 장소의 사회성은 취락공동체가 산(수렵채집)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강(어로채집)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림 4〉
어일리취락
(검은 칠 주거지는 대형주거지임)



어일리취락은 대중천을 바라다보고는 있지만 거의 산중취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농경에 적합한 취락입지는 아니다. 주거지마다 대형의 어망추가 발견되고 또 북방식석도의 존재로 미루어 보면 후기의 검단리 문화권의 취락과 동

일하게 농경과 수렵채집경제가 혼합된 사회였을 것이다. 앞서 용강동 취락과 덕천리취락은 농경을 기반으로 한 생산경제가 우세하였다고

〈표 1〉
어일리취락의
중·대형주거지

구역	주거지	면적	규격	유물	층서	주거지 구조	시기	무덤
A	I - 8호	33㎡	중	돌류사격자문 심발		노지 1기	중기	1·2호 장방형 주구식 구획묘
	I -18호	44㎡	대		중층	노지 1기? 증축?	?	
	I -37호	32㎡	중	돌류문, 평근역자식석축		노지 2기	중기	
	II -20호	31㎡	중			노지 1기	?	
	II -27호	37㎡	중	구순각목돌류문 심발	하층		중기	
	II -29호	45㎡	대	유구식석검	하층	노지 1기, 증축(31호)	중기	
	II -61호	35㎡	중		상층	노지 2기	중기	
	II -63호	31㎡	중	공렬문 심발·호	상층	노지 1기	후기	
	II -67호	44㎡	대		하층		중기	
B	26호	43㎡	대		상층	노지 1기	후기	
	91호	54㎡	대	무경식석축, 단주형석도		노지 2기	중기	
	102호	44㎡	대	돌류단사선문 심발		노지 2기	중기	
C	2호	32㎡	중			노지 2기	중기	
	59호	31㎡	중	장어형석도		노지 1기	중기	
	79호	36㎡	중	(미완성)단주형석도		노지 1기	후기	
	96호	30㎡	중	장어형석도			?	
E	18호	38㎡	중	돌류단사선문 심발	중층	노지 1~2기?	중기	1호 방형 주구식 구획묘

한다면, 어일리는 수렵채집경제가 우세하였을 것이다.

이상으로 중기의 취락은 대규모취락이라고 해도 아직 대규모취락의 대표자로서 수장은 등장하지 않았으며, 부족 또는 친족단위의 구성원들이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살았던 연합체적 성격의 사회였다고 판단된다.

3) 후기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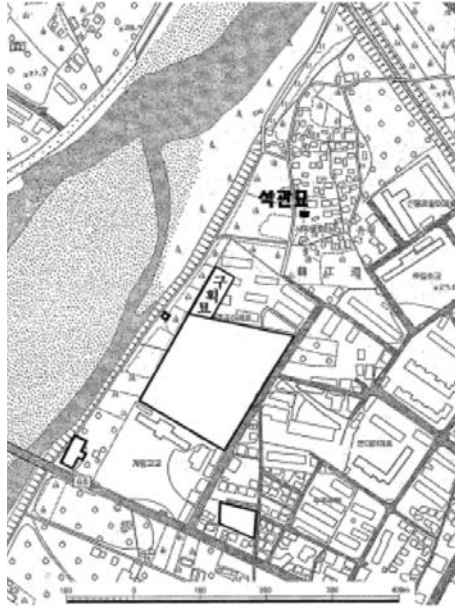
대규모취락은 주로 장기존속취락에 속하면서, 주변사회에서 중핵적 위치를 점하게 되면서 거점취락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주변의 소규모 취락과의 사회연계망을 통하여 취락간의 계층화가 진전되며, 지역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황성동유적군·석장동유적군 등이다. 이 유적은

충적지 혹은 구릉지·선상지에 입지하며 지석묘·구획묘·석관묘 등의 묘지를 가지고 있다. 취락은 전모가 밝혀지지 않아서 장기존속형의 거점취락이라고 단정은 곤란하겠지만, 농경활동이 용이한 입지와 넓은 범위에서 검출되는 주거지의 분포 그리고 묘역의 형성 등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박영구 2017).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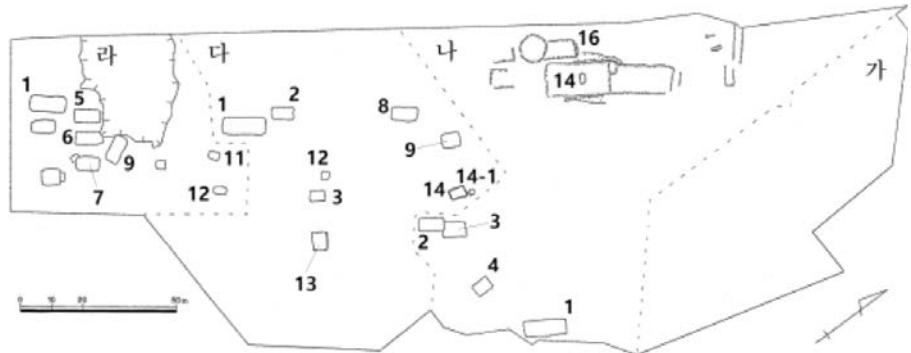
황성동유적군
(태선은 청동기시대
유구 분포 지점)



황성동유적군(김종철·김세기 외 2000, 하진호·박경외 200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조운주·이한주 외 2005)은 형산강의 자연제방에서 취락의 일부가 발견되었지만, 확인된 범위(그림 5)는 북단의 1호 석관묘에서 남단의 주거지까지 약 540m 거리이고, 주거지가 밀집하거나 중첩된 예도 있으므로 거점취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농경은 하천변이나 배후습지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구획묘는 취락의 북단부에 위치하며, 총 6기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발굴당시에는 묘로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고되지 못하였다(그림6).

〈그림 6〉

황성동유적(2000) 청
동기시대 유구분포
(주거지 줄친 번호: 후기,
무번호: 시기미상,
그 외: 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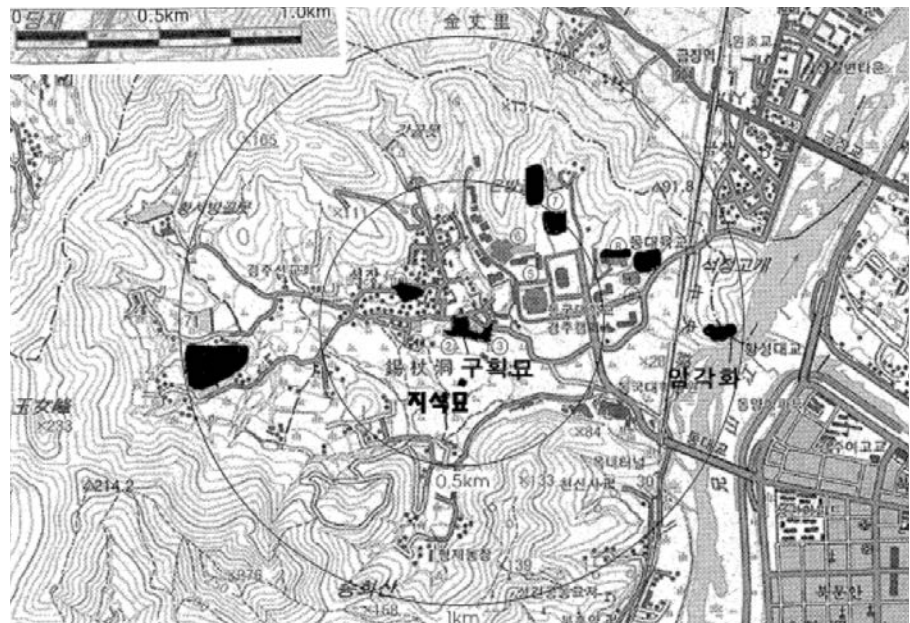
주거지는 중기가 후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3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중기의 다른 취락과도 동일한 현상이다. 그런데 각 군집은 주거지의 밀집도에서는 북단으로 갈수록 느슨해지는 경향이 보이며, 남단에 취락의 중심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기의 주거지는 주로 양이부심발이나 직립장경식의 적색마연호, 구연부에 시문된 날알문토기, 첨근일단경식석축 등이 지표가 되는데, 4기에 불과하지만 후기후반대가 중심일 것이다. 이 4기의 주거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각각 독립적으로 위치한다. 구획묘에서는 특징적인 유물의 보고가 없다. 다만 일반적인 매장주체부와 묘역의 장축방향이 동일한데

반하여, 나-14호로 명명된 석관묘는 서로 직교하게 조영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구획묘에서는 매장주체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은 구획묘의 전형적인 구조와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고, 구획묘의 요소 하나하나가 전형에서 벗어나거나 생략되거나 구조를 달리하는 경향에 있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획묘도 후기의 주거지와 관련된 묘역일 것이다. 아마도 후기의 황성동취락은 형산강과 인접한 곳에 군집하는 중기와는 달리 오히려 취락의 중심은 강으로부터 더 안쪽으로 들어간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상묘역은 거주지역과는 분명하게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소수의 주거지만 발견될 뿐일 것이다. 이런 취락의 구조와 상징은 상당히 농경사회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황성동 후기취락은 석장동 후기취락과 유사성이 높다고 하겠으며, 다분히 대구권으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중기의 취락은 문화나 생계 형태나 취락구조에서 모두 동일하다.

석장동유적군은 낮은 구릉지와 곡간 선상지에 입지하며, 다수의 유적이 동서 1.9km내에 분포하는데 가시권으로 보면 2개로 분리될 수도 있겠으나, 인접하고 있으며 지형상으로는 하나의 곡간지에 속하므로 한 개의 취락공동체로 인식된다. 취락은 소규모 부분 발굴되었으므로

〈그림 7〉

석장동유적군
(검은 칠이 청동기시대의
발굴된 유적)



취락의 구조와 가옥의 구성 등은 알 수 없고 노출되어 있는 지석묘군과 2기의 구획묘가 공동체의 중심부 선상지에 확인되었다.

무덤은 선상지 중간을 가르는 소하천을 경계로 북편에는 소형상석의 지석묘와 구획묘 각 2기가 군집하고, 남편에는 대형상석의 지석묘 1기가 분포한다. 발굴은 북편의 지석묘 1기와 2기의 구획묘가 발굴되었다. 지석묘(김호상 2017)는 매장주체부가 없고 상석하에는

듬성듬성히 놓여진 지석 5개가 확인될 뿐이다. 구획묘(박영호·이동현 외 2012)는 하층에 말각방형의 주구식과 상층에는 초대형의 세장방형 석축식으로서 내부에는 화장묘와 석관묘가 각 1기씩 조영되었고, 이 석축식구획묘 주변에서 소형석관묘 2기가 발견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북편의 묘지에는 수기의 무덤이 군집하면서, 최초에는 주구식구획묘가 조영되었으나 그 후에 초대형의 구획묘가 기존의 구획묘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이 초대형의 무덤에는 3인의 화장묘와 일단병식석검이 부장된 석관 1기가 안장되었는데, 공동체의 시조와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매장한 것이겠다. 그러므로 이 묘역에서는 누대에 걸쳐 구획묘 또는 석관묘와 지석묘의 형태로써 매장이 진행되었으므로, 취락이 장기존속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묘역은 공동체의 결속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례공간으로서 기능하였으므로 주거지의 전모는 모르지만 거점취락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겠다. 거점취락의 하위에 주변취락이 산포하였을지는 알 수 없으나, 지리적으로는 고립된 장소이고 형산강 서안의 충효동과 금장리 등지의 소규모취락이 그 주변취락으로 연계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묘역이 선상지의 중심부에 입지하고 그 북편에 주거지가 주로 분포하는 양상을 청동기시대의 취락생태계의 측면에서 보면 묘역의 남측에는 경작지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형산강변의 구릉 절벽에 암각화의 의례공간은 수렵과 어로의 풍요를 기원하는 장소였을 것이다. 석장리취락은 수장사회였으며, 형산강 대안의 황성동취락과 경쟁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앞서 어일리취락이 후기가 되면 B구역의 26호 대형가옥을 정점으로 하는 수장사회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일리취락은 수렵채집사회의 성향이 석장동취락보다는 컸을 것이다. 황성동유적은 밭경작이 보다 유리하였을 것이고, 석장동유적은 논경작이 우세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 수렵채집생산은 다과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2. 경주의 청동기시대 무덤

1) 무덤의 계통과 생업경제

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묘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석묘(기반식·개석식), 석관묘, 구획묘(주구식·부석식·석축식·묘광식·열석식), 가옥묘, 옹관묘 등이다.

중국 동북지방 청동기시대의 묘제는 적석총, 석봉묘, 대석개묘로 나누어지며, 매장주체부는 석관묘이며 판석이나 할석을 사용하여 묘벽을 만들고, 대석개묘에서는 화장인골이 발견되기도 한다(華玉冰 2010). 이런 양상은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묘제-구획묘·지석묘-와도 계보상으로 연결된다. 구획묘는 적석총·대석개묘와 지석묘는 석봉묘·대석개묘와 관련될 것이다.

중국 동북지방은 쌀이 검출된 쌍타자3기에도 혼합경제로서 농경 못지않게 수렵채집경제에도 의존도가 높았다(대련시문물고고연구소 2000). 한반도에서도 수전이 도입되기 전 중기까지는 중국 동북지방과 생계경제는 유사하였을 것이다. 송국리문화가 형성되는 후기에는 한반도의 남부지역은 동서로 농경우세지역과 수렵채집우세지역으로 나누어진다.

필자는 농경활동과 무덤만들기가 상호 배반적 관계로 설정한 바(안재호 2012) 있었다. 특히 수전작은 강우와 고온에 의지해야 하므로 온대지역인 한반도의 환경에서는 노동집약적 농경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지석묘의 축조는 경제적 농경 활동에서는 큰 장애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전작을 영위한 송국리문화권에서는 가구단위의 노동력으로도 조영할 수 있는 간단한 묘제 즉 토광묘나 석관묘·옹관묘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거대한 상석을 사용하는 지석묘는 적어도 취락단위 혹은 지역공동체단위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일시에 농경활동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야 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석묘 축조집단은 수렵채집경제에 의존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다분히 비경제적이고 공동체적 거대의례로서 종교적인 지석묘 축조는 후기가 되면서 점차 그 수효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농경이 중시된 후기에 등장하는 구획묘의 경우도 기존의 지석묘보다는 노동력과 축조시간을 단축하고자 북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용된 묘제로 판단된다. 돌을 사용하는 石造 구획묘도 거대한 상석보다는 소규모 노동력으로써도 축조 가능한 소형의 상석과 작은 할석을 이용하게 되고, 거대상석에 대응하는 넓은 면적의 묘역을 만들어 사회적

위상의 지표로써 삼게 된 것이다 생각한다. 구획묘에는 지석묘의 요소와 절충한 것도 나타난다.

주구식구획묘는 구획시설에 돌을 사용하지 않는 특이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비송국리문화권에서 주로 분포하고 있는 정황에서는 채집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묘제로 판단한다(안재호·김현경 2015). 이런 묘제는 중국 동북지방에서도 발견된 바는 없지만, 적석총에서 한반도화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대에 채문토기의 채문기법과 비파형동검 그리고 적석총(구획묘) 등의 장례문화가 중국 요동산지역에서 한반도로 전파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동산지역은 낮은 산지가 광활하게 펼쳐진 곳으로서 적은 강우량과 낮은 기온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좁은 산지이지만 온대성기후로서 따뜻하고 강우량이 풍부하여, 사계절이 뚜렷히 구분되어 식생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동일한 채집경제라고 하더라도 요동산지역은 산림의 보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으나 한반도의 경우는 산림이 매우 중요한 생계자원으로서 보존 관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산을 파괴하여 채석하는 행위를 지금의 산신제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금기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돌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주구식구획묘가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정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따라 주구를 만드는 것도 최소한의 자연파괴를 막고자 인정되었을 것이다.

농경우위의 문화권 즉 송국리문화권에서는 농경이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잉여생산까지도 도모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산지보다는 평지가 요긴한 농경지로 평가되고 채석목적의 산지 파괴는 어느 정도는 묵인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특정계층의 무덤으로서 또한 기념물로서의 소수의 지석묘나 구획묘를 조영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허용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채집경제 기반인 자연친화적인 주구식구획묘와 농경을 기반으로 하면서 개발과 과시의 상징으로서 石造 구획묘를 인식하고자 한다. 전자는 수평사회의 성격임에 반해 후자는 수직사회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기에는 취락단위당 무덤의 수가 소수 혹은 1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 후기가 되면 무덤의 수는 증가한다. 다수의 무덤이 군집하는 취락일수록 거점취락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은 어떠한 경제사회이든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무덤의 군집은 사회신분의 계층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2) 구획묘

매장주체부를 둘러싼 공간을 외부와 구분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청동기시대의 무덤을 구획묘(이상길 1996)라고 부를 수 있다.

(1) 갑산리유적

갑산리유적에는 1기의 무덤(그림8-2)이 주거지에 인접하여 발견되었다. 갑산리취락은 중기의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데, 무덤의 부장품이 없어서 시기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무덤의 형태는 보성 동촌리유적·김해 율하리·봉산리유적 등지에서 확인된 것으로서 넓은 방형의 묘광에 돌을 채워 넣고 퇴화된 판상의 상석을 놓은 묘광식구획묘이다. 대체로 후기로 편년할 수 있는 것인데, 발굴되지 못하였지만 갑산리유적에서도 저지대에는 후기취락이 형성되고 그들의 시조묘로서 높은 구릉 능선부에 1호묘가 조영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갑산리취락의 중기는 난알문이 시문된 토기나 동북식석도 등으로 보면 다분히 검단리문화의 맹아적인 성격을 가진 문화였다. 그러다가 1호묘의 시기 즉 후기가 되면서는 묘광식구획묘가 출현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대구권으로부터 새로운 농경문화인이 이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호묘가 단독묘로서 주변지형에서 가장 높은 입지에 조영된 상징성은 그 피장자가 갑산리 후기취락의 시조였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2) 석장동유적

석장동876-5번지유적(박영호·이동현 외 2012)의 구획묘는 선축한 묘가 주구식구획묘이고, 후축된 것은 석축식구획묘이다. 구상유구라고 보고된 주구식구획묘는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못하였으나, 말각방형의 주구 속에서 직립장경식의 적색마연호의 파편이 출토되었으므로 이 적색마연토기가 검단리문화의 적색마연호 특징이므로 후기에 편년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상층의 석축식구획묘는 확인된 잔존 길이만 34m로서 초대형에 해당하는데, 내부에서 3인의 인골이 확인된 화장묘와 소형석관 각각 1기씩 배치되었다. 석관에서는 일단병식 석검의 칼코가 길게 돌출한 형태로서 비교적 후기의 늦은 시점(이동곤 2018, 정다운 2020)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화장묘는 천군동유적의 가옥묘 이외에도 덕천리유적과 같이 소형석관묘에서나 혹은 도제리유적·전촌리유적에서도 화장인골이 종종 확인된다.

석장동 구획묘에서 하층의 주구식구획묘를 파괴하고 그 위에 석축식구획묘를 조영한 것은 석장동취락에서 그 주인공이 전통적인 선주민이었던 검단리문화인에서 대구권으로부터 이주한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청동기시대의 무덤은 특별한 인물의 묘로서 사회적 기념물에 해당하는데 그 흔적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상의 무덤 위에 토착 무덤이 아닌 새로운 묘제로써 묘역을 조성하였다면 이것은 기존의 집단이 아니라 새로운 부족의 집단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것이다. 만약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후기의 주거양식은 검단리문화권에는 방형주거지이고, 대구권의 경우는 송국리식 원형주거지이므로 이 두 형식의 주거지가 교체된 흔적이 석장동유적군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기의 대구권에 유행한 토기문양은 구순각목문이고, 검단리문화권에서는 구순각목문은 중기이전까지만 유행하고 후기에는 소위 날알문과 공렬문이 시문되므로 이 토기문양의 교체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 속에서는 원형주거지나 구순각목문이 출토된 적은 없다². 그렇다면 석장동의 석축식구획묘를 축조한 집단은 문화적으로는 검단리문화권에 속하지만 계파가 달랐던 이주 집단이었을까? 혹시나 후술할 도계리집단과 같이 대구권의 묘제 즉 석조 구획묘를 받아들이면서 토착전통의 화장장법을 혼용한 절충적인 집단이었을까?

(3) 도계리유적

도계리유적은 청동기시대 후기유적으로서, 부석식구획묘에 기반식지석묘가 합쳐진 형식으로서 방형 또는 원형의 대형묘에 연접하여 군집하는 형태가 특징이며, 매장주체부는 대체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몇몇은 부석 하층이나 구획의 내부에서 화장묘가 확인되었다.(윤형규 2016, 삼한문화재연구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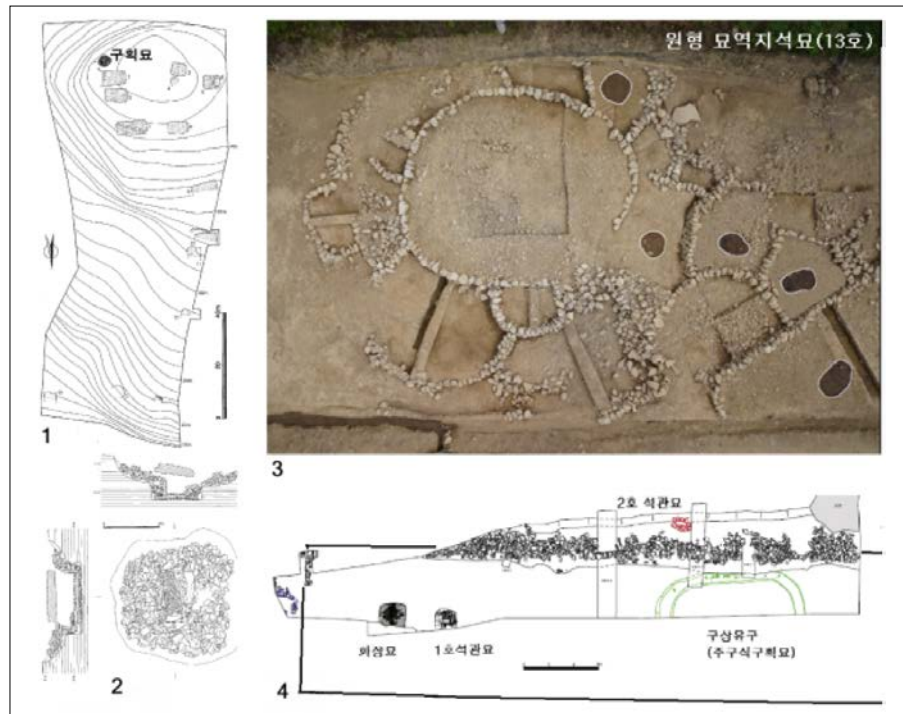
현재로서 도계리나 석장동의 석조 구획묘와 같은 장제가 검단리문화권 속에서는 경주 이외 지역에서는 발견된 바가 없다. 즉 무덤의 외형은 석축식 혹은 부석식 구획묘로서 송국리문화가 전파된 영남지역과 동일한 형태이다. 매장주체부에 화장한 인골이 출토된 지역은 춘천과 경주 이외에는 없고, 화장한 가옥묘까지 합친다면 포항이 포함되고, 신석기시대까지도 그 기원(유병록 2010)을 따라갈 수 있다. 화장

² 대구권의 유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꼭지가 달린 적색마연호의 동체부에 한 쌍의 돌기가 부착된 형식의 토기가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된 바는 있다.

인골의 매장은 이미 중국 동북지방의 대석개묘(王嗣洲 1998)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채집경제가 우세한 지역이거나 비송국리문화권에 해당하는 범위가 그 분포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화장풍습은 대구권에서 전파된 것은 아니고, 청동기시대 중기부터 경주에서는 후술할 소형석관묘에서 자주 나타났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무덤의 외형은 대구권의 장제에 따르고 매장주체부는 토착계라는 절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매장주체부가 토착계라는 점은 그 피장자가 토착인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외형적으로

〈그림 8〉

- 1 : 갑산리유적
- 2 : 갑산리유적 1호묘
- 3 : 도계리지석묘군Ⅱ 유적
- 4 : 석장동876-5번지 유적



대구권의 묘제를 채택한 것은 대구권의 집단과 동화하고자 한 것인지, 조상묘 혹은 수장묘를 기념물적인 시각 효과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논리였는지 알수 없다. 도계리유적의 거대한 괴상의 상석을 구획묘에 설치한 것도 기념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따라서 후기의 도계리취락이나 석장동취락은 외형적 즉 사회적으로는 송국리문화 사회를 모방하고 그 정신적 문화적 분질은 검단리문화였다고 할 수 있는 문화접변이 일어난 경우이다.

(4) 황성동유적

황성동유적에서 구획묘를 확인한 것은 박영구(2017)인데, 취락의 북단부 자연제방에 6기 이상의 석축식구획묘로 추측되는 5기의 장방형 구획묘와 1기의 원형 구획묘가 조영되었다. 그 중에는 소규모의 구획묘가 연접하는 것도 있으며, 단독으로 조영된 세장방형상의 석축도 있으나 구획묘일지는 미상이다.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나-14호 장방

형 구획묘는 주변에 주구가 설치되었으며, 유일하게 매장주체부인 석관묘가 발견되었고, 나머지는 유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석관묘는 평면이 장방형이고 평적으로 축조되었으며 바닥에는 판석을 여러 장 깔아서 시상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14호의 경우 매장주체부의 장축이 묘역의 장축과 직교하는 것은 전형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구획묘 상부를 모두 돌을 깔아 덮어 버린다든지, 매장주체부를 생략한다든지 하는 것이 일종의 구획묘의 변형이고 소멸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구획묘의 특이한 기능 예를 들면 제단이라든가 석렬 등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중기취락엔 주거지역과 단 1기의 소형석관묘는 남-북으로 강을 따라 배열된 형태의 취락 모습을 그릴 수 있다. 그런데 후기취락에는 소수의 구획묘가 강을 따라 나열되고 있으므로 이 조상의 무덤을 바라보는 집단의 시각은 강의 반대편에 입지해야한다. 즉 후기취락의 중심지는 강가에서 떨어진 산쪽으로 입지하여 주거역과 묘역은 동-서로 배열되는 형상이 된다. 이것을 야기한 원인은 무엇인가? 생계 방식의 변화 혹은 출자가 다른 취락민의 교체 또는 단순한 문화적 변화 등등과의 관계에서 추적할 수 있겠다. 후기의 구획묘가 대구권의 송국리문화와 연계된 것인지도 등등의 검토가 필요하겠다.

(5) 전촌리유적

전촌리유적의 구획묘는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아서 보고자들은 석열유구 또는 제단유구라는 명칭으로 기술하였다. 다만 단 1곳 2-1호 소구획에서만 화장묘가 발견되었다. 수의 다과는 있으나 도계리유적의 구획묘에서와 동일한 양상이다.

산청 매촌리유적(곽종철·이진주 2011) 구획묘의 경우도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아 제단과 같은 성격으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한 집단 내에서 사망자가 생길 때마다 개별적 제단을 만들어 한 곳에 군집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제단이라는 것은 추모와 제례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그 대상이 조상신이든 자연신이든 영속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문(2011)은 ‘제단이나 묘표석의 기능’을 가진 지석묘를 상징지석묘라고 명명하고, ‘외형상 웅장하고 주위 지석묘와는 뚜렷이 차별화된 상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석실이 발견되지 않는 지석묘’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입지의 특징으로는 ‘배치와 입지상태에 따라 단독입지, 군집

에서 독립 입지, 군집내 중심입지'로 구분하였다. 이영문의 상징지석묘론에 따른다고 해도 단순히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2-1호 제단유구를 상징지석묘로 봐서는 안 되며, 입지상의 독립성이나 주변유구와의 압도적인 규모 차이가 뒤따라야 판단 가능하다. 더구나 상석도 남아있지 않았고 부석시설의 중앙부가 파손되지도 않았으므로 상석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3호 석열유구와 장축이

〈그림 9〉

전촌리유적의

구획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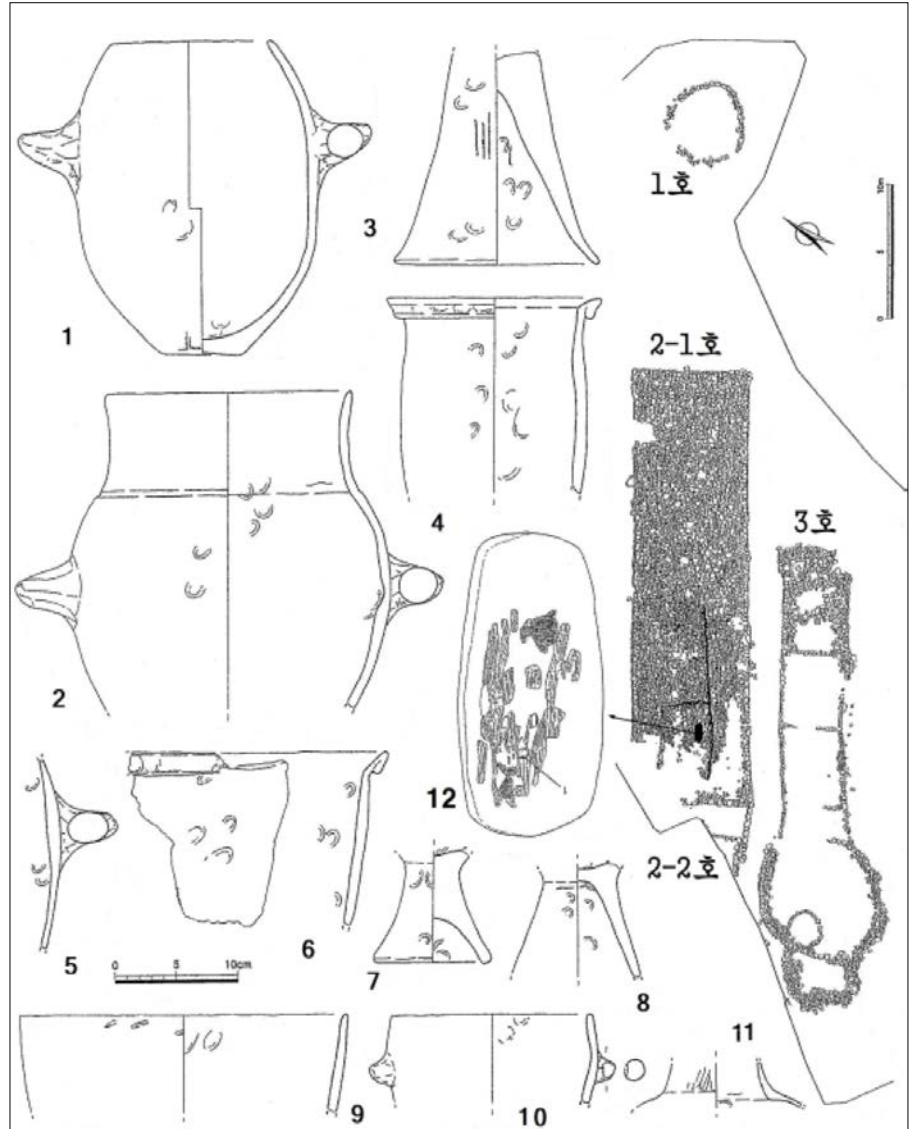
1~4 : 1호묘

5~8, 11 : 2-1호묘

9~10 : 2-2호묘

12 : 2-1호묘 하층 소구

획 화장묘



평행하고 2기의 규모에 비하여 사이 간격이 좁을 뿐만 아니라, 2-2호 석열유구와 연접하고 있으므로, 이 3기의 유구는 독립성보다는 연계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구획묘가 분명하다고 하겠다. 유사한 사례로는 매촌리유적의 구획묘가 있으나 매촌리에는 작으나마 상석이 부석 상면에 놓여있다. 이 매촌리구획묘는 송국리형주거지로 구성된 취락 상부층에 구성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 후기 중에서도 늦은 시기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늦은 시기가 되면서 구획묘는 본래의 매장방법이 변화하였다고 판단된다.

전촌리 1호와 2-2호·3호 묘는 묘역의 외곽을 열석으로 돌린 것인데,

이와 같은 형태 즉 열석식구획묘는 김해 율하리유적·창원 진동리 유적·보령 평라리유적 등지에도 있다. 그리고 2-1호묘는 부석식구획묘이다. 그러나 묘역 내부에는 매장주체부가 검출되지 못하였다. 아마도 매장의 방법이 다른 구획묘일 것이다.

출토유물(그림 9)로써 살핀 구획묘의 시간성은 2-2호묘를 제외하면 모두 삼각형점토대토기 시기에 해당한다. 기존의 검단리문화의 유물로서는 9~11이고, 2-1호 구획묘의 하층 소구획에서 검출된 화장묘도 석장동구획묘에서 그 유례가 있다. 그리고 화장묘의 탄소14연대치도 2500BP 전후에 해당하므로, 소구획의 묘와 2-2호묘가 동시기일 것이다. 파수부토기(10)라든가 구연부에서 약간 외반 느낌이 있는 난알문토기(9) 등은 울산 입석리유적(김경화·최수형 2010)과 비교될 만하다. 그렇다면 시기는 만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 외의 유구에서는 신창리식토기의 조합상이므로, 가장 늦은 시기의 구획묘라고 하겠다.

필자는 청동기시대의 토착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과도기를 선점토대토기문화라고 명명한 바(안재호 2019) 있다. 예를 들면 〈그림9〉의 1 유물은 청동기시대 융형화 된 내만구연심발과 점토대토기의 파수가 결합된 형식이다. 그리고 〈그림10〉의 문산리Ⅲ-2호 옹관묘의 主棺은 삼각형점토대옹이지만 토광의 형태를 보면 초기철기시대의 횡치식옹관묘가 아니라 사치식 혹은 직치식 옹관묘인 점이다. 주관을 옹으로 사용한 것은 초기철기시대의 옹관 주관이 호형토기인 것보다 차이가 있고, 설치 방법도 청동기시대 후기의 장법이므로 이 옹관묘 역시 두 문화의 절충식인 셈이다. 그러므로 검단리문화권 혹은 비송국리문화권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문화가 초기철기시대의 마지막까지도 존속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전촌리유적에서의 구획묘도 이러한 경향 속에서 존속하였던 것이다.

3) 소형석관묘

(1) 정황과 시기

소형석관묘란 판석으로 짜맞춘 상형석관묘가 대부분이겠지만, 성인을 신전장할 수 없는 즉 석관 내부의 길이가 1m 이내의 석관묘를 지칭한다. 이에 반하여 석관묘는 일반적으로 평면 장방형으로서 성인을 신전장할 수 있는 규모이다.

황성동 1호 소형석관묘는 황성동취락 내에서 가장 북단부에서 1기가

검출되었다. 시기는 무경식석축과 일단경평근식석축으로 보아 중기에 해당한다. 덕천리 1호 소형석관묘(한도식·이석범 2008)나 월산리 1호 소형석관묘(민선례·김성태 2006) 역시도 석축의 공반유물상은 황성동과 같다.

〈그림 10〉

경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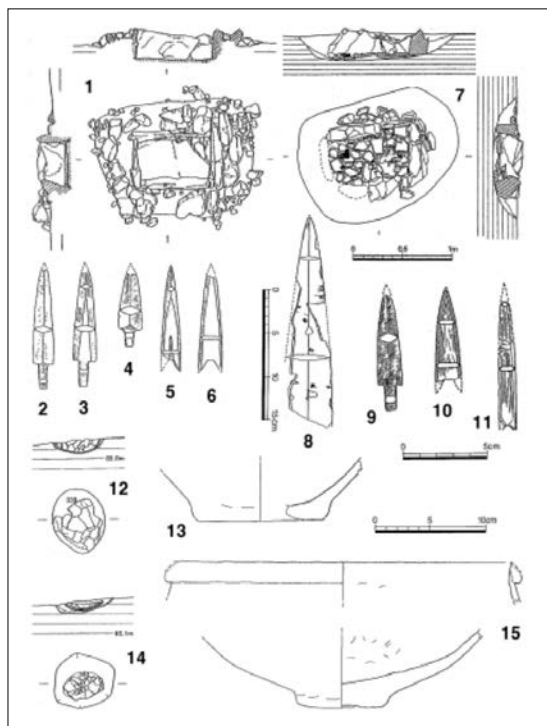
소형석관묘·옹관묘

1~6 : 황성동 1호 석관묘

7~11 : 덕천리 1호 석관묘

12~13 : 문산리 Ⅲ-1호 옹관묘

14~15 : 문산리 Ⅲ-2호 옹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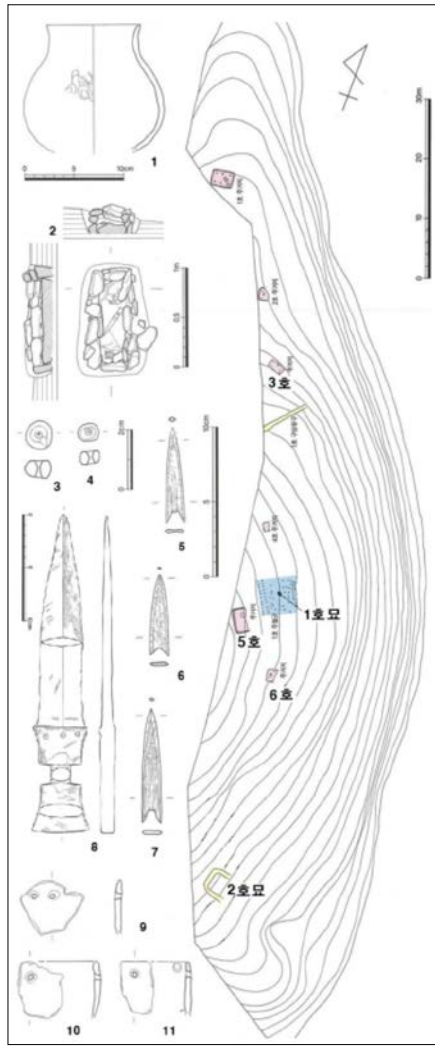
덕천리 1호 석관묘의 보고에 따르면 석관 내부에는 목탄과 탄화된 뼈가 출토되었으며, 석관도 불에 맞은 흔적이 있다. 석관 내부에서 화장한 흔적일 것이다. 소형석관의 인골 안치는 석관에서 직접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화장한 인골을 가져와서 매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 중에서 발굴되고 남아있는 인골은 탄화된 인골만이고 미처 탄화되지 않은 인골은 분해되고 남지 않는다.

화장의 흔적은 광명동 산81-1유적(김광수·고상혁 외 2015)의 30호 소형석관묘에서도 검출되었다.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시기는 파악할 수 없으나, 청동기시대 취락은 후기 후반대로 보고되었고, 초기철기시대에도 취락은 형성되었다. 석관은 평적으로 축조되었으며 시상석이 깔려있다. 석관 내부에는 목개 위에 적석한 듯한 큰 할석이 함몰되어 있다. 이 적석은 후술할 〈그림17〉의 10 점토대토기가 부장된 석관묘에서도 확인되었으므로 광명동 30호 석관묘는 취락의 시기인 청동기시대 후기의 늦은 단계 즉 만기이거나 초기철기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속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소형석관묘는 화장한 예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화장풍습을 거쳐서 이차장으로 인골을 안치한 묘제임을 추측할 수 있다. 석장동유적의 구획묘에 안치된 소형석관묘에는 인골이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화장묘가 같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묘에서 시신을 먼저 화장하여 남은 인골을 소형석관묘에 안치하였을 것이다. 석장동유적의 화장묘의 정황을 살펴보면, 충분히 시신을 화장하여 백골만을 수습하는 그런 상태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탈육하는 정도의 화장으로서도 충분한 화장법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러므로 인골이 완전히 탄

〈그림 11〉

월산리유적
1: 3호 住.
2~8: 1호 묘
9: 5호 住.
10~11: 6호 住



화되는 경우가 드물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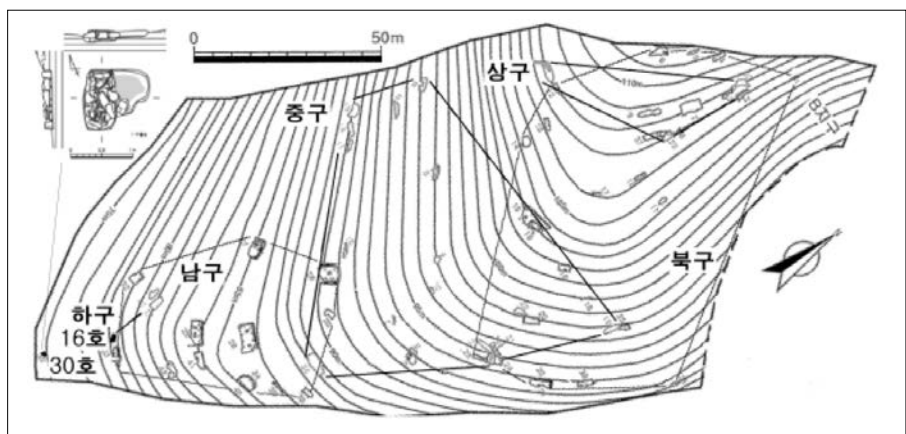
(2) 입지와 상징

평지에 입지하는 덕천리취락에서 1호 소형석관묘는 단독묘로서 대형 주거지 11호에 인접하고 있다. 황성동취락의 소형석관묘 역시 단독묘로 추정되며, 취락의 가장자리에 입지한다. 월산리취락은 구릉지에 입지하면서 소형석관묘는 가장 낮은 곳에 안치되었다(그림11). 이 역시도 가장 규모가 큰 주거지가 인접한다. 구릉지인 광명동취락도 청동기시대 후~만기에 속하는 화장묘 30호 소형석관묘는 주거역의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입지한다. 이 묘는 청동기시대의 남구에 속하며 북구의 최하단부에서도 1기의 소형석관묘가 검출되었다

면, 청동기시대 중기~만기에는 특정한 공간에 소형석관이 단독으로 입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며 피장자는 집단의 시조와 같은 상징적인 인물로서 홀로 묘역에 모시는 풍습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2〉

광명동취락의
공간구획과 무덤
(북·남구: 청동기시대
상·중·하구: 초기철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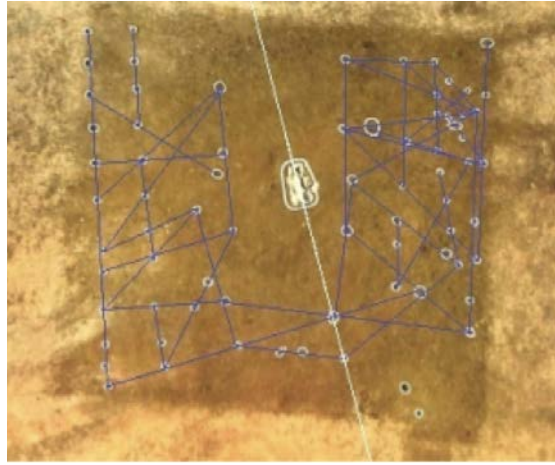


사실 일반적인 관념으로 본다면 묘는 조상의 무덤인데, 어느 씨족이나 친족이든 자신의 조상묘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겠는가 싶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기취락에서는 단독묘가 보편적인 현상처럼 나타나고 있다.

3 3개 이상의 주혈이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능한 좌우대칭적인 모습이 되도록 필자가 도화한 것.

〈그림 13〉

월산리 1호묘의
목주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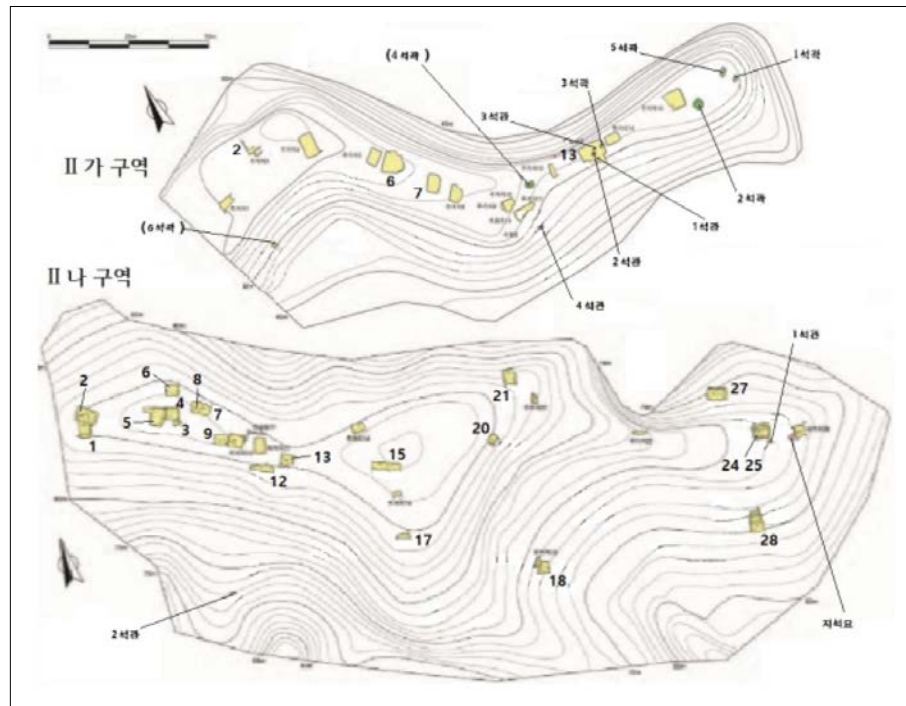


〈그림11〉 월산리유적의 1호 소형석관묘는 단독 묘이면서 발굴된 것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 5호주거지가 인접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의 목주 시설은 특정 형태의 구조물³(그림13)로써 인식되는데, 이 구조물이 항

시였는지 임시였는지는 선택할 수 없으나 증축과 개축을 거듭한 결과였을 것이다. 취락 내의 기념물로서 聖所의 성격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월산리 1호 석관묘의 피장자는 취락에서 특별한 존재 또는 유일한 존재였을 것이며, 최초의 장로로서 시조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농경사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채집경제에 의존하는 사회는 장로가 경험하고 습득한 생계와 관련된 지식 즉, 채집에서 가공·저장에 이르기

〈그림 14〉

문암리유적 Ⅱ가·나
구역의 청동기시대
석관묘 분포
(석관: 소형석관묘,
석곽: 석관묘,
주거지 --번호: 후기,
번호: 중기)



까지의 방대한 지식은 후손의 입장에서는 금과옥조로써 구술 전승되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조묘가 숭상되었고 생계와 관련된 의례의 장소로도 활용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부장품이 없어서 시기를 알 수 없는 소형석관묘는 문산리유적에서 다수가 출토되었다. 문산리Ⅱ지구 가구역에서 13호 주거지 내부에 조성된 3기의 소형석관묘가 있다. 13호 주거지는 증축 또는 개축된 주거지로서 혼암리식토기로 보아 중기에 속한다. 3기의 소형석관묘는 모두 수적으로 네벽을 축조하였고, 3호에만 시상석이 없고 나머지는

잔돌로써 시상석을 만들었다. 그런데 2호의 벽석사이에서 양이부적 색마연호의 파편이 검출되었다. 송영진(2012)에 따르면 금호강유역의 적색마연토기, 환상파수, 적색마연토기 c식과 유사하여 일단은 후기로 볼 수 있겠다. 가구역의 취락은 구릉 능선부에만 가옥이 조성된 열상구조의 취락형태로서, 유물과 탄소14연대로써 판단하면 15기 중에서 4기는 중기 후반대에 편년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기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3기의 소형석관묘는 주거지와 같은 시기로 봐야만 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는 장방형의 석관묘가 5기와 소형석관묘 1기(4호)가 더 있다⁴. 그러므로 주변의 다른 취락에 비한다면 무덤의 수가 매우 많고 주거지의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래서 이 무덤들이 모두 중기의 것은 아니고, 다른 취락과 마찬가지로 1기 정도만 해당할 지도 모르겠다. 이런 관점에서 관찰하면 무덤은 능선부의 평탄한 동반부에 대부분이 분포하지만 4호 소형석관묘는 사면부에 입지하면서 나머지 6기와는 격리되어 있으므로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6기의 경우도 소형석관묘 1~3호와 3호 석관묘의 일군과 1·2·5호 석관묘군으로 나누어지며, 모두 후기에 속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 중에서 2호 석관묘는 묘광식구획묘로서 묘광 규모가 가장 큰 중심 무덤이다. 이 2개의 무덤군은 한 개 취락의 소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2개의 취락이 각각 하나씩 조영한 독립적인 묘역일지도 모르겠다.

Ⅱ 지구 나구역의 취락은 중기부터 후기까지 형성되었다. 전기의 주거지는 전체에 분포하지만, 후기에는 서쪽 능선부에 주로 분포하고 지석묘와 1호 소형석관묘가 위치하는 곳에는 신축-개축의 관계를 보이는 24-25호 주거지뿐이다. 그리고 사면부에 주거지와는 많이 떨어진 곳에 2호 소형석관묘가 분포한다. 2호묘는 일반적인 중기취락에서 보이는 주거지-묘지와 관계로 보이지만, 2기의 묘가 군집하는 능선부의 묘역은 석관묘와 지석묘가 인접한 2동의 가옥이 폐기된 후에 묘역으로 조성되었을까? 그렇다면 구릉 능선부의 서반부에는 주거역으로 동단부에는 묘역으로 기획한 취락구조가 되는데, 이런 형태는 농경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문산리취락군 속에서 송국리문화적인 생계양식이 공존하였을까는 의문이다

문산리Ⅲ지구에도 소형석관이 1기 검출되었으나 부장품은 없다.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 중기~후기와 초기철기시대의 생활유구와 1호 소형석관묘 이외에도 초기철기시대라는 목관묘 5기와 옹관묘 2기가 분포한다.

4 가구역의 고려·조선시대의 무덤이라는 6호석관묘처럼 석곽의 폭이 넓은 4호석곽묘도 동시기에 속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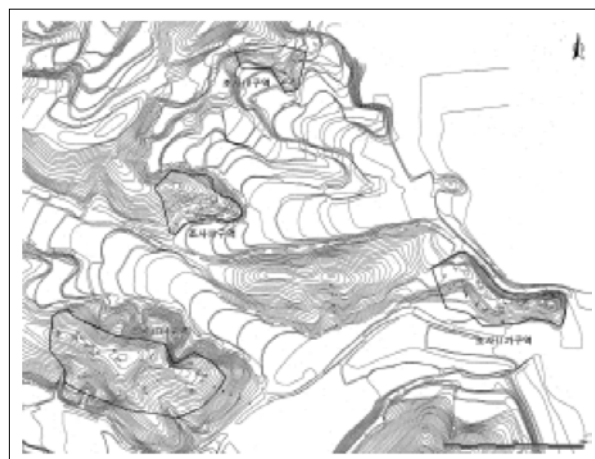
문산리Ⅲ구역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유구 분포도
(상단번호 주거지 : 중기,
하단번호 주거지 : 후기,
초 : 초기철기시대)



1기뿐인 1호 소형석관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중기취락에 속할 가능성이 있겠고, 초기철기시대의 목관묘는 규모와 부장품에서 2개로 나누어진다. 목관의 길이가 2m 전후인 2·4호 목관묘에는 부장품이 없고, 목관 길이가 1.5m 전후인 1·3·5호 목관묘에는 부장품이 나타난다. 그리고 후자의 목관묘에는 옹관이 배장묘처럼 인접한다. 이 목관묘는 분명히 출토유물에서 신창리기의 이른 단계로서 초기철기시대의 늦은 시점이지만,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전자의 목관묘는 부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화된 풍습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석관묘의 습속이 남은 것으로 본다면 청동기시대 만기로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목관묘는 초기철기시대의 수혈유구-주거지- 3기 구성원의 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16〉

문산리유적군의
유적 분포



이상으로 문산리유적군을 살펴보았는데, 언급하지 못한 IV구역은 가장 이른 시기에 취락이 형성되었는데, 대략 중기 전반대라고 판단된다. 앞서 남겨둔 II-가구역의 2개로 군집된 묘

는 〈그림 16〉에서 보면 Ⅲ구역의 지형과 연결된 지형이므로 Ⅲ구역의 후기취락의 묘역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II-나구역의 2기로 구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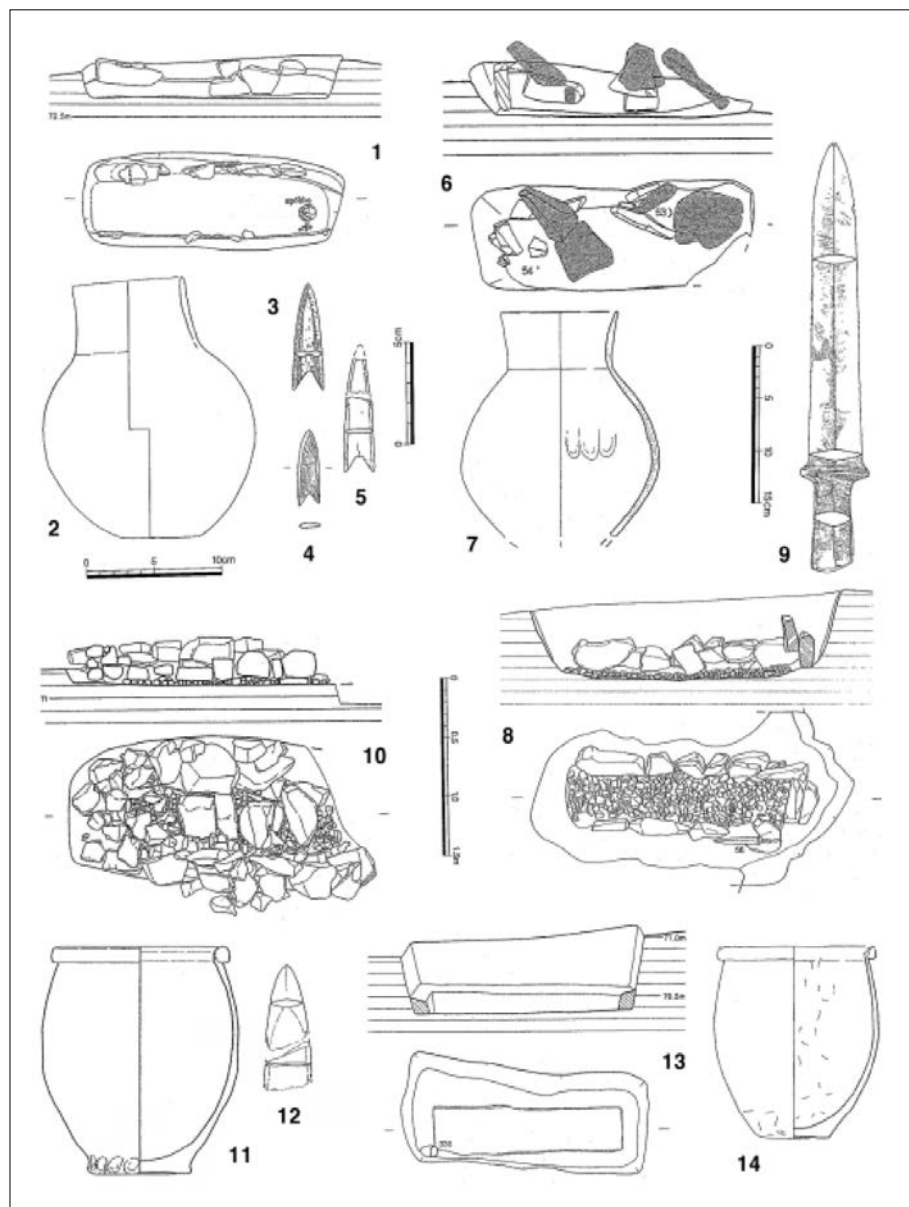
묘역은 Ⅱ-나구역의 후기취락과 관련시킨다면 이 2개의 주거역-묘역의 상관성이 동일한 양상을 살펴진다. 주거역과 묘역이 분명히 격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산리사회는 송국리문화의 사회와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 이 취락의 주변에는 낮은 구릉이 길게 뻗어내린 곳으로 사이의 계곡이 매우 발달하고 있으며 구릉의 전면에는 넓은 충적지와 선상지가 펼쳐진 환경으로 보아 다분히 농경의 비율이 검단리문화 사회 속에서는 높았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묘로서의 소형석관묘보다는 신전장이 가능한 석관묘가 다수 조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묘지의 조성이나 주거지의 밀집도나 수량에 따르면 역시 Ⅲ-Ⅱ가 구역의 집단이 문산리사회 정치체의 중심집단에 해당하고 그런 의미에서 Ⅱ-가구역의 구릉 말단부에 묘광식구획묘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석관묘

〈그림 17〉

경주의
석관묘·목관묘

(1~5 : 문산리 Ⅱ나-2호 석관묘
6~7 : 문산리 D구역 석관묘
8~9 : 문산리 Ⅱ가-3호 석관묘
10~12 : 광명동 B-1호 석관묘
13~14 : 문산리 Ⅲ-1호 목관묘)



문산리 Ⅱ 나-2호 석관묘에서는 무경식석축과 동체부가 큰 대형의 평저적색마연호가 출토되었다(그림17-1~5). 중기로 편년되는데, 문산리 D구역 석관묘(그림17-8~9)에서도 동일 기종의 적색마연호가 출토되었다. 2기 모두 중기에 속할 것이며, 다수의 판석으로써 수적하여 석관을 축조하였다. 울산 수남유적의 석관묘에서도 동형식의 토기가 출토된 바(이동헌 2007)있다. 이 3점의 토기는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의 계열상에 놓여있는 것이 분명한데, 구정부의 외반도와 동최대경의 위치로 본다면 「2호석관묘 ↔ D구역석관묘 ↔ 수남석관묘」의 순서가 되는데, 아마도 2호석관묘에서 출토된 〈그림17〉의 3번 석축의 축신이 오목한 형태이므로 이른 시기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래서 수남석관묘가 중기의 마지막에 해당할 것이다. 이 수남석관묘는 평적과 수적을 혼용하여 판상의 천석으로써 축조한 것이다. 그래서 벽석의 축조는 「판석수적 → 판상평적」의 시간 관계를 가지는지도 모르겠다.

문산리 Ⅱ 가-3호 석관묘(그림17-8·9)에서는 일단병식석검이 부장되었는데, 석검의 칼코가 삼각형을 띠고 병부가 거의 일자형에 가까우므로 이른 형식에 속한다. 즉 후기의 전반대에 속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석관묘도 수적으로 벽을 구축했지만, 바닥에 잔돌이 깔린 것이 중기의 석관묘와는 다른 점이다.

광명동유적의 B-16호 석관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석창이 공반하고 있으므로 청동기시대 만기로 설정할 수 있다. 만기는 지역에 따라서 원형점토대토기가 나타나지 않기도 하지만 울산 입암리취락은 만기에 속하는데, 초기철기시대 석기의 일부 기종이 출토되었고, 또 취락에 인접한 곳에서 완형의 원형점토대토기 2개체분이 시굴조사 시에 확인된 바 있어서 비록 검단리문화인과 점토대토기인이 혼거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간의 교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여튼 만기의 광명동석관묘(그림17-10)는 점토대토기문화 전통의 새로운 석관묘일지는 모르겠으나, 벽석은 평적으로 축조했으며 바닥에는 잔돌을 깔았다. 앞서 후기의 석관묘와는 사상석을 잔돌로 깔 것이 같지만 벽석의 축조기법은 다르다. 그리고 석관의 목개 위에 큰 돌을 적석한다는 점이 차이이다.

문산리유적 Ⅲ-1호 목관묘는 삼각형점토대옹이 출토되는데, 원삼국시대의 목관묘와 동 형식으로서 토기는 충진토 상부에서 출토되고 있다. 간혹 청동기시대 혹은 초기철기시대의 목관묘를 상정하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계통이고 청동기시대와는 완전히 단절된 신묘제의 시작에 해당하겠다.

3.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무덤을 중심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경주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덤은 중기부터 석관묘와 소형석관묘가 나타났다. 출토유물은 없지만 주변의 정황(안재호 2013, 안재호·김현경 2015, 이수홍 2015)을 참조한다면 주구식구획묘 특히 평면이 세장방형인 것은 중기부터 나타난다고 봐야하고 그 예가 어일리 중기 취락의 취락 고소에 조영된 2기의 묘이다. 전기의 세장방형은 가옥의 평면형을 따랐다고 한다면 주구가 방형 또는 장방형인 것은 역시 후기의 구획묘로 볼 수 있다. 어일리취락에서는 낮은 평지로 묘역이 이동하고 있으며, 석장동 구획묘 하층의 주구묘와 월산리취락의 2호묘(그림11) 그리고 용강동취락에도 검출된 바 있다. 평면 방형을 띠는 경우는 취락 내에서 그 수량이 많은 경우가 울산지역에서는 보편적인데, 경주에서는 아직 복수로 나타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후기가 되면 무덤군이 나타나며 단위취락 내에서도 그 수량이 많아진다. 이것은 매장에 대한 관념이 사회적 상징을 띠게 되면서 또는 취락의 복합화나 구성원의 출자에 따라 제각각 무덤을 만들었을 것이다. 중기에는 시조묘만 묘역에 모시는 것에 반하여 후기가 되면서는 시조뿐만이 아니라 유력자의 경우나 또는 그 친족들에게도 무덤축조가 허용되었고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후기가 되면서는 구획묘도 나타나게 되고 무덤에도 그 묘제에 따라 또는 묘의 규모에 따라 계층성도 반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주를 포함한 검단리문화권에서는 고유한 화장법도 구획묘에 융합되어서 독특한 묘제를 성립하였다. 석장동·황성동·도계리·전촌리 유적의 구획묘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주지역의 구획묘는 결국 주변지역으로부터 송국리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경주지역에 그러하고, 울산에서는 여전히 후기에도 주구식구획묘가 중심을 이루는 차이를 살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서 문산리취락사회는 다소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 청동기시대 중기에는 경주지역의 일반적인 경향 속에 들어 있으나, 후기가 되면 석축식·부석식·열석식의 구획묘는 축조하지 않고, 대신에 묘광식구획묘는 나타나지만 대체로 석관묘를 지속하게 된다. 규모가 큰 구획묘보다는 석관묘를 채용한 것은 아무래도 송국리문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산리사회의 초기철기시대의 목관묘가 석관묘와 계승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런 특징은 농경 우세의 생계활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초대형의 구획묘가 축조되었다고 해도 무덤의 외형은 과시적이라고 해도 부장품은 빈약하거나 넣지 않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었다고 보아진다. 이것은 사유재산 혹은 잉여생산 등이 성립하지 못한 경제상에 따른 현상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합화와 계층화는 이루어졌다고 해도 삼한 사회와 같은 군장의 출현은 없었고, 분절사회적 수장사회였다.

참고문헌

- 강인옥, 2016, 『북한과 인접지역』, 『編年』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서경문화사.
- 곽종철 · 이진주 외, 2011, 『산청 매촌리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 권승록 · 김명섭 외, 2013, 『경주 어일리 유적(B구역)』, 한빛문화재연구원.
- 김경화 · 최수형, 2010, 『울산입암리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 김광수 · 고상혁 외, 2015, 『경주광명동산81-1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 김권일 · 박병협 외, 2013, 『경주 어일리 유적(A구역)』, 신라문화유산조사단.
- 김은주 · 김현진 외, 2009, 『경주 충효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적』, 신라문화유산조사단.
- 김은주 · 이은정 외, 2006, 『경주 갑산리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김종철 · 김세기 외, 2000, 『경주 황성동 유적Ⅴ』, 계명대학교박물관.
- 김호상, 2017, 『경주 석장동 872-1번지 유적』, 진흥문화재연구원.
- 김현진 · 정윤희 외, 2010, 『경주 충효동 100-14번지 유적』, 신라문화유산조사단.
- 김호진 · 유난희 외, 2004, 『울산 구영리유적』, 경남대학교 박물관.
- 김희철 · 강진구, 2009, 『경주 용강동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 大連市 文物考古研究所, 2000, 『大嘴子』, 大連出版社.
- 민선례 · 김성태, 2006, 『경주 월산리 산137-1번지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 박광열 · 김대덕 외, 2006, 『경주 금장리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 박광열 · 박경례 외, 2012, 『경주 문산리 청동기시대 유적 -Ⅲ·Ⅳ구역-』, 성림문화재연구원.
- 박광열 · 유외기 외, 2010, 『경주 문산리 청동기시대 유적 -Ⅱ구역-』, 성림문화재연구원.
- 박순발 · 성정용 외, 2002, 『금산 수당리유적』,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박영구, 2017,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변천』, 『대구 · 경북의 지석묘 문화』, 영남문화재연구원.
- 박영호 · 이동현 외, 2012, 『경주 석장동 876-5번지 유적』, 『경주지역 소규모 발굴조사보고서 Ⅱ』, 계림문화재연구원.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8,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 확장공사 내 문화재 시 · 발굴조사 결과서』.
- 송영진, 2012, 『금호강유역 마연토기의 변화상과 특징』, 『경남연구』 제7집,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1, 『경주 문산리 유적Ⅱ』.
- 안재호, 2012, 『墓域式支石墓의 出現과 社會相』, 『湖西考古學』 26, 호서고고학회.
- 安在皓, 2013, 『韓半島 東南海岸圈 青銅器時代의 家屋葬』, 『韓日聚落研究』, 서경문화사.
- 安在皓 · 金賢敬, 2015, 『青銅器時代 狩獵採集文化의 動向』, 『牛行 李相吉教授 追慕論文集』, 진인진.
- 안재호, 2016,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編年』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서경문화사.
- 안재호, 2019, 『青銅器時代 智佐里遺蹟의 樣式編年』, 『韓國青銅器學報』第二十五號, 韓國青銅器學會.
- 王嗣洲, 1998, 『論中國東北地區大石蓋墓』, 『考古』一九九八年 第2期, 科學出版社.
- 유병록 · 2010, 『豎穴建物 廢棄行爲 研究 1-家屋葬-』, 『釜山大學校 考古學科創設20周年紀念論文集』,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 윤형규, 2016, 『경주 도계리 지석묘Ⅱ 유적』, 『2015 연구조사발표회』 자료집, 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 이동곤, 2018, 『진안지역 청동기시대 분묘의 편년과 형성과정』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 이동옥 · 최유라 외, 2013, 『경주 어일리 산35-1번지 유적』, 세종문화재연구원.
- 이동현, 2007, 『울산교동리수남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 이백규 · 김기옥 외, 2000, 『경주 황성동 유적 -2차 나지구 본문 · 도면-』, 『경주 황성동 유적Ⅲ』, 경북대학교박물관.
- 이백규 · 이재환 외, 2000, 『경주 황성동 유적 -1차 나지구 본문 · 도면-』, 『경주 황성동 유적Ⅲ』, 경북대학교박물관.
- 李相吉, 1996, 『青銅器時代 무덤에 대한 일시각』,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 李秀鴻, 2015, 『青銅器時代 檢丹里類型的 研究』, 含春苑.
- 李榮文, 2011, 『호남지역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몇가지 문제』, 『韓國青銅器學報』第八號, 韓國青銅器學會.
- 이영훈 · 손명조 외, 2000, 『경주 황성동 유적Ⅰ』, 국립경주박물관.
- 이장형 · 강동화 외, 2011, 『경주 문산리 유적Ⅱ』, 신라문화유산연구원.
- 이형원, 2019, 『粘土帶土器文化 流入期 移住民과 先住民의 接觸樣相』.

- 『신·한일교섭의 고고학-청동기~원삼국시대-를 논함』 제3회공동연구회.
- 정다운, 2020,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묘와 출토유물의 편년」,
- 『韓國青銅器學報』第二十六號, 韓國青銅器學會.
- 최규종·송영지, 2010, 『경주 용장리 월성박씨 재실 건립부지 내 유적』, 신라문화연구원.
- 하진호·박경례 외, 2000, 「경주 황성동 유적 - 2차 라지구 본문·도면-」, 『경주 황성동 유적Ⅲ』,
- 경북대학교박물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경주시 황성동 537-2 인대아파트 신축부지 발굴조사보고서』.
- 한도식·이석범, 2008, 『경주 덕천리유적 I』, 영남문화재연구원.
- 華玉氷, 2010, 「石棚墓와 蓋石墓의 발전과 변화」, 『青銅器時代の 蔚山太和江文化』, 蔚山文化財研究院.

배군열
성림문화재
연구원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변화에 대한 이해

I. 머리말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연구의 주된 관점은 주거지 자료를 토대한 편년과 계통, 지역성이었으며, 최근 취락고고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 범위가 확장되어 취락분포정형을 토대로 한 취락의 변화양상을 살피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주거와 취락의 주체자인 ‘거주인’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였다. 본고에서는 가내의 인간집단에 대한 관심을 가진 과정주의 고고학자(Clarke 1972; Flannery ed. 1976)에 의해 제창된 ‘가구고고학’의 논점에 주목하여 경주지역 내 주거지 자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住居’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거주하여 일 생활을 하는 장소’로 정의되며, ‘家口’란 이러한 ‘가내의 인간집단’을 의미한다. 즉, 주거는 장소적 의미를, 가구는 주체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가구고고학에서 관심을 둔 연구주제는 ‘가구’를 고고학적으로 정의하는 것, 가구 관련 행위와 활동의 복원, 가구 간의 부와 위치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 가구양상의 변화와 거시적 변화, 가구 내부의 역동성 탐색 등이 있다(金範哲 2013, 14-22).

청동기시대 주거지 형태의 변화에 대한 일반론(安在皓 1996; 2006)을 살펴보면, 전기의 중·대형인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의 주거지를 확대가족의 소산으로, 후기 소형인 방형의 주거지를 핵가족의 소산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전기에서 후기로의 주거형태 변화는 농경의 집약화에 의한 작업단위의 분화로 이해된다. 그리고 후기 취락 내 주거군의 형성은 이러한 전기 확대가족체가 계승된 형태로서 친족집단의 유대 관계를 주거간의 거리로 표출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실제 전기의 자료를 들여다보면, 평면형태가 방형임에도 전기로 편년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후기의 주거지도 평면(세)장방형이며 중·대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평면 형태의 방형화와 면적의 소형화라는 전체적인 변화상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家口’란 ‘가내의 인간집단’을

의미하여, 사회적 변화의 원동력은 최소 단위공동체인 ‘가구’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는 호서지역 전기의 방형계 주거지를 분석하여 가구의 역동성을 재해석한 논의를 참고하여(金範哲 2011, 31-60),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전·후기 주거면적과 가내 유물량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후 가구 구성 및 생산양상의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유적 검토 및 자료 분석

경주는 형산강유역권에 속하며, 청동기시대에는 동남해안지역 문화권의 중심에 자리하였다. 이러한 지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전기 이른 시기부터 중서부지역(가락동·흔암리유형)과 영동지역(역삼동유형)의 문화요소를 받아들였으며, 후기에는 비송국리문화인 검단리유형이 주로 확인된다(裴君翬 2015; 박영구 2015). 이에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전기와 후기의 구분 없이 방형계 일색으로 나타난다.

이번 장에서는 경주지역 주거지 자료를 유적별로 나눈 후, 장단비 분포와 장단비-면적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의 중복양상을 검토하여 평면형태의 선·후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표 1〉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전·후기 구분 기준
(裴君翬 2015)

	문화요소	절대연대
전기	이중구연문, 이중구연복합문계, 구순각문, 구순각목복합문계, 사선문, 사선문복합문계, 이단병식석검, 무정식석촉, 이단경식석촉	BP.2650 이전
후기	횡선문, 횡선문복합문계, 파수문, 파수문복합문계, 일단병식석검, 일단경식석촉	BP.265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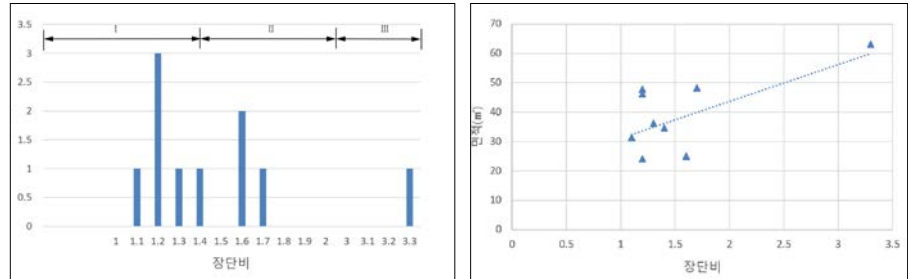
경주 분지 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청동기시대 관련 유적은 110여 개소에 이르며, 유적 내 확인된 주거지의 수는 760동 가량이다(裴君翬 2015, 109-110). 이번 유적 분석 장에서는 이러한 유적들 중 주거지의 수가 20여동 이상인 7개소 유적을 선별하였으며, 다시 그 중에서 주거지의 평면 형태가 온전하여 주거면적을 알 수 있는 주거지 119동을 최종적으로 재선별하였다. 한편, 개별주거의 시간성은 〈표 1〉의 각 시기별 문화요소와 절대연대를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주거의 평면 형태는 온전하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무리한 추정 보다는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동산리유적

동산리유적(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0)은 주거지 40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평면형태가 온전한 주거지는 31기이나 22기만 시기구분이 가능하였다. 자료의 검토 결과, 전기의 주거가 10기, 후기의 주거가 12기였다.

<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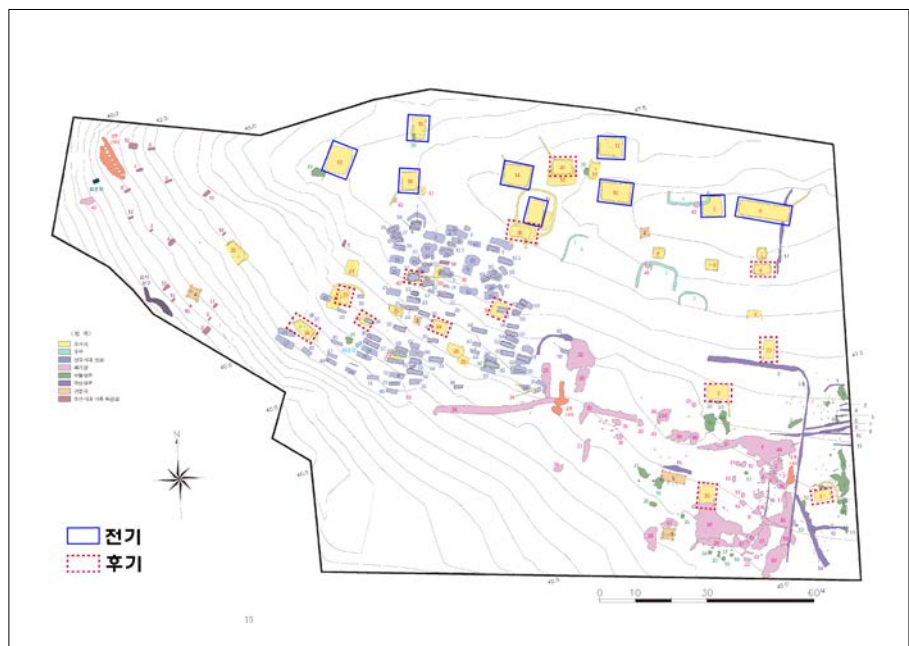
동산리유적 전기 주거의
장단비 분포(좌)와
장단비-면적 관계(우)



전기 주거의 장단비는 I 형(1:1.1~1:1.4), II 형(1:1.4~1:2.5), III 형(1:2.5~1:3.3)으로 I 형은 단위주거로 판단되며, II · III형의 장단비는 단위주거 보다는 작은 비율로 증가되는 양상이다. 이는 단위주거가 결합 주거의 형태로 변화되면서 주거 내 공용공간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宮里修 2005, 48-92). 전기 주거간의 중복관계는 15호와 37호에서 확인되나 두 주거지 모두 장단비 II 형으로 동일하다. 주거 간 중복양상은 후기 주거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전기의 37호 주거지에 후기의 36호 주거지가 중복되었으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동일하다. 동시기 간의 중복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전기와 후기 두 시기 동안 장기간 점유된 취락으로 판단된다.

<도 2>

동산리유적 주거지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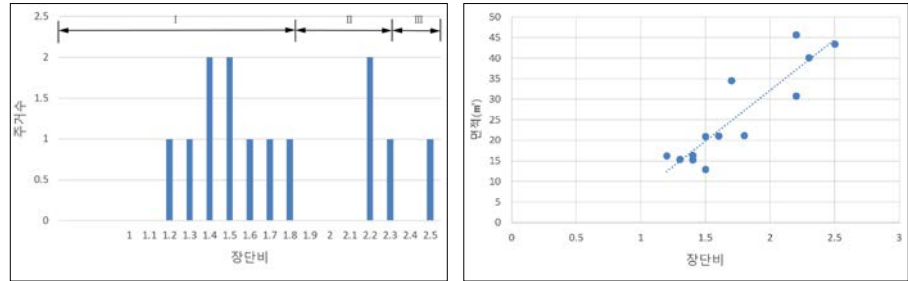


2. 용강동유적

용강동유적(聖林文化財研究院 2009)은 주거지 49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평면형태가 온전한 주거지는 33기이나 20기만 시기구분이 가능하다. 자료 검토 결과, 전기의 주거가 13기, 후기의 주거가 7기였다.

<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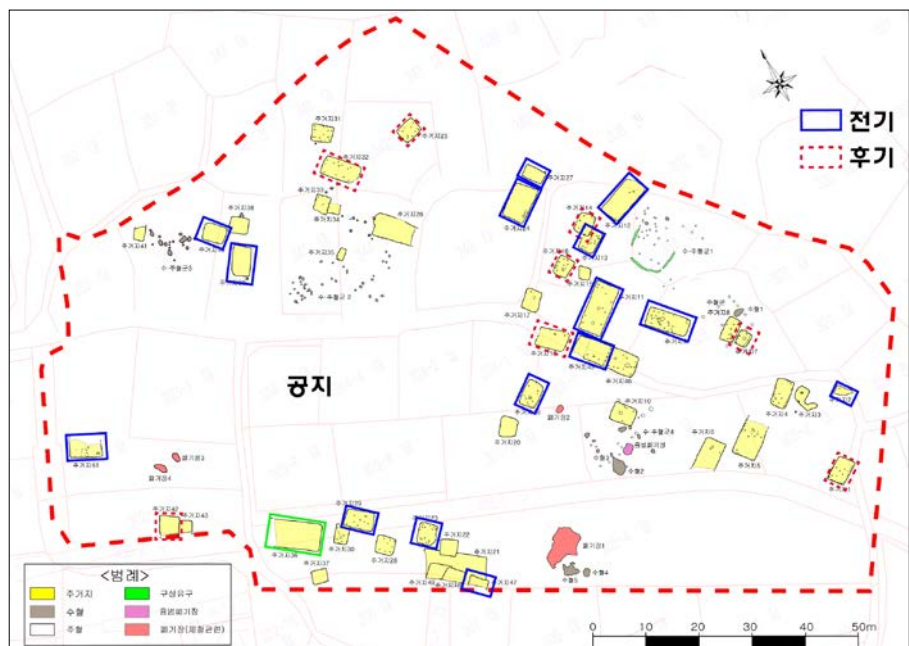
용강동유적 전기 주거의
장단비 분포(좌)와
장단비-면적 관계(우)



전기 주거의 장단비는 I 형(1:1.2~1:1.8), II 형(1:1.8~1:2.3), III 형(1:2.3~1:2.5)이며, I 형이 단위주거로 판단된다. 특징적으로 다른 유적에 비해 단위주거의 장단비가 크다. II 형의 장단비는 단위주거의 비율 보다 작게 확대된 양상으로 12호 주거지에서 2개의 노지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2채의 단위주거가 결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 주거간의 중복관계는 선축된 21호 주거지에 47호 주거지가 후축되었으나 두 주거지 모두 평면 형태를 알 수 없어 중복양상에 따른 평면형태의 선·후 구분은 모호하다.

<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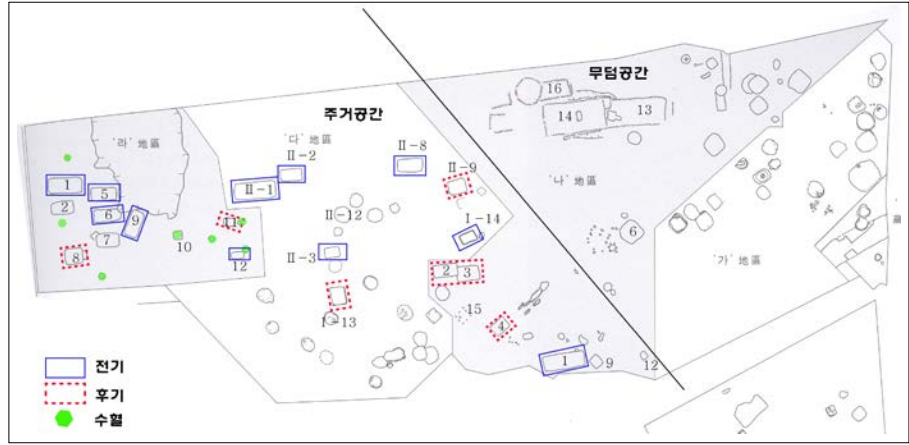
용강동유적 주거지 배치



3. 황성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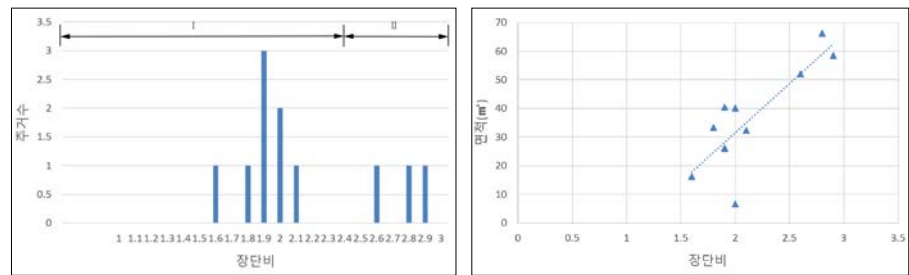
황성동유적(慶北大學校博物館 2000, 啓明大學校博物館 2000)은 주거지 23기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평면 형태는 온전하다. 그 중 11기가 전기로, 3기가 후기로 편년된다.

〈도 5〉
황성동유적 주거지 배치



전기 주거의 장단비는 I 형(1:1.6~1:2.4), II 형(1:2.4~1:2.9)로 I 형은 2채의 단위주거가 결합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황성동 II 라-5호와 II 라-9호 주거지에서 2기의 노지가 확인되는 점에서 유추 가능하다. II 형은 3채의 단위주거가 결합한 형태로 I 나-1호 주거지에서도 2기의 노지가 확인된다. 전기 주거지 간의 중복양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단위주거 보다는 결합주거의 비율이 높은 점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서 점유되었거나 계속적으로 재점유된 취락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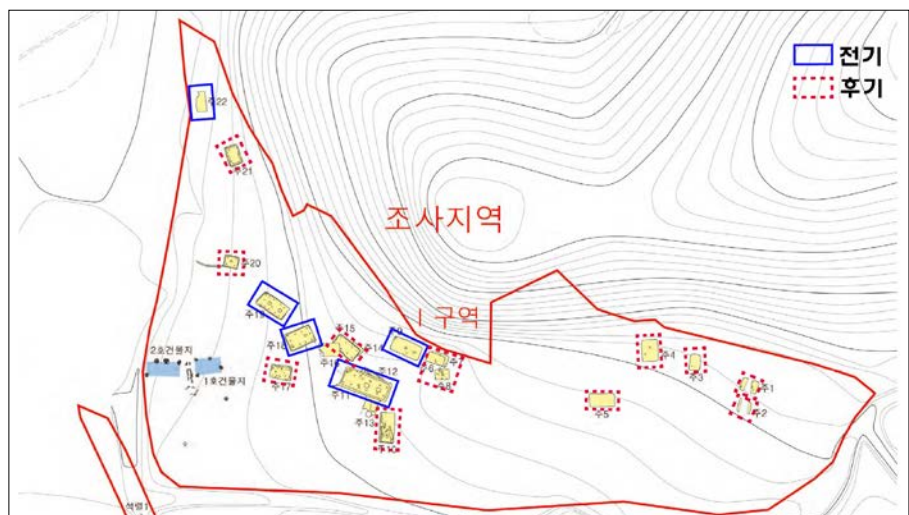
〈도 6〉
황성동유적 전기 주거의
장단비 분포(좌)와
장단비-면적 관계(우)



4. 천군동유적

천군동유적(聖林文化財研究院 2010)은 주거지 27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평면 형태가 온전한 주거지는 21기이다. 시기를 반영하는 요소를 검토한 결과, 5기는 전기로, 14기는 후기로 편년되었다.

〈도 7〉
천군동유적
주거지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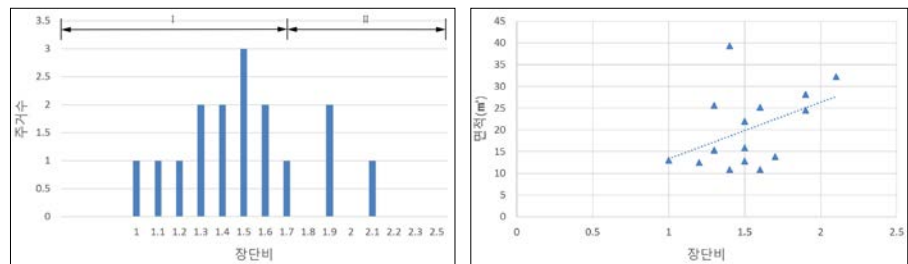


전기에 속하는 9·11·19호·21호 주거지는 대체로 장단비가 1:1.9 이상이며, 11호 주거지의 경우 면적이 71m²로 대형에 속한다. 아마 이러한 주거 양상은 황성동유적의 전기 주거양상과 동일하게 2채의 단위주거가 결합된 형태로 판단된다. 전기 주거 간의 중복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후기 주거의 장단비는 I 형(1:1~1:1.7), II 형(1:1.7~2.1)으로 I 형은 단위주거로 판단된다. II 형은 I 형과의 장단비 차이가 크지 않는 점으로 보아, 후기 주거 내 거주인의 공간 활용도 차이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후기 주거지 간의 중복양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장기간 점유된 취락일 가능성이 크다.

〈도 8〉

천군동유적 후기 주거의 장단비 분포(좌)와 장단비-면적 관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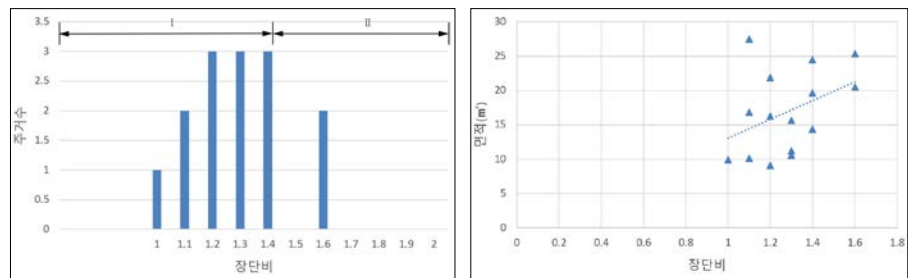


5. 충효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적

충효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적(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9)은 주거지 38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평면형태가 온전한 주거지는 34기이나 21기만 시기구분이 가능하다. 자료의 검토 결과, 전기의 주거는 4기, 후기의 주거는 15기였다.

〈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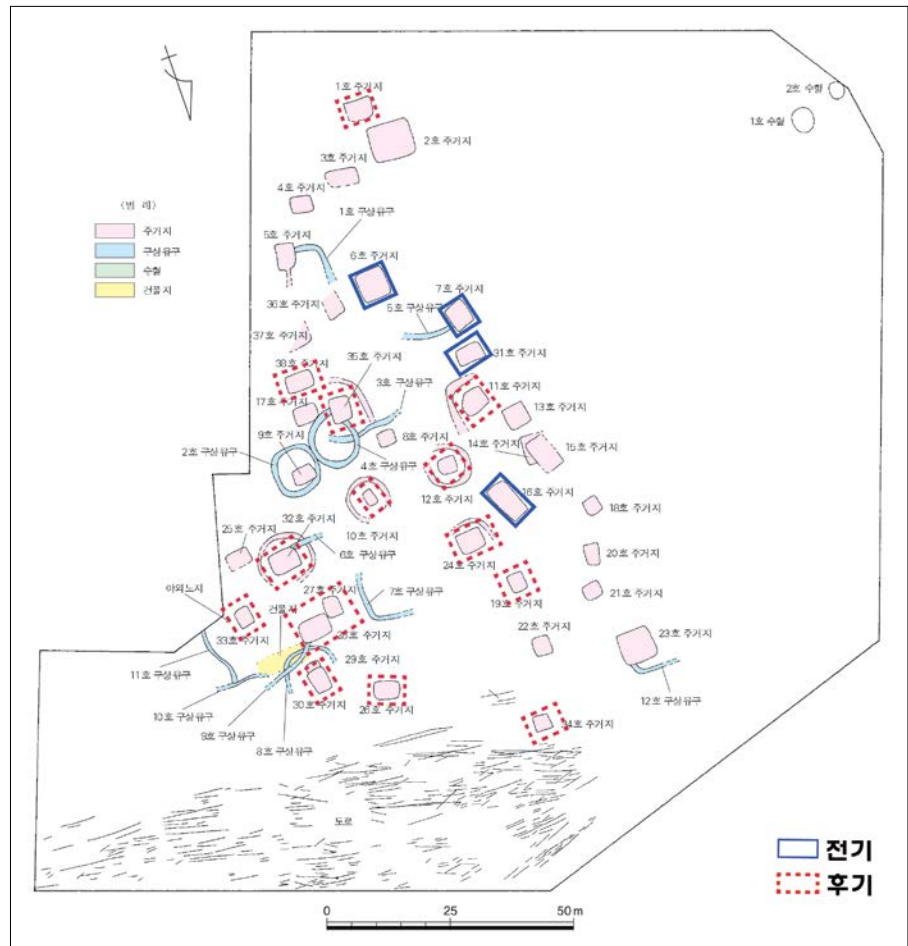
충효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적 후기 주거의 장단비 분포(좌)와 장단비-면적 관계(우)



후기 주거의 장단비는 I 형(1:1~1:1.4), II 형(1:1.4~1:2.0)로 I 형은 단위주거로 판단되며, II 형의 주거는 단위주거 중 공간 활용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후기 주거 간의 중복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도 10〉

충효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적 주거지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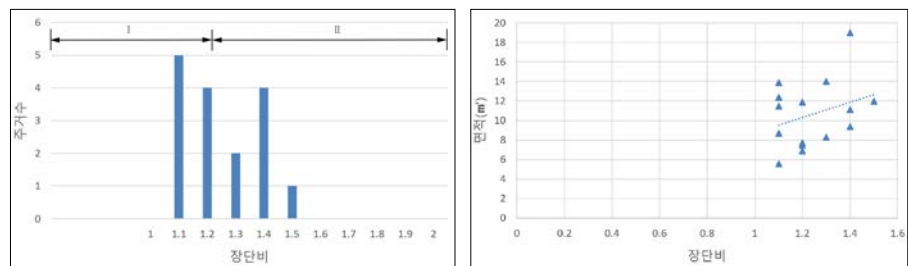
6. 충효동 100-14번지 유적

충효동 100-14번지 유적(新羅文化遺産研究院 2010, 慶州大學校博物館 2010)은 주거지 39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평면형태가 온전한 주거지는 22기이고 21기가 시기구분이 가능하였다. 자료의 검토 결과, 전기의 주거는 5기, 후기의 주거는 16기였다.

전기 주거는 대체로 장단비가 1:1.5 이상이나 B-6호 주거의 장단비는 1:1.3이며, 면적도 12.8㎡로 작다. 반면 B-8호 주거지는 2기의 노지를 가지며 장단비도 1:1.9로 긴 편으로 동일 시기라도 주거 면적 간 편차가 큰 편이다.

〈도 11〉

충효동 100-14번지유적
후기 주거의 장단비
분포(좌)와
장단비-면적 관계(우)



후기 주거의 장단비는 I 형(1:1~1:1.2), II 형(1:1.2~1:1.5)로 I 형은 단위주거로 판단되며, II 형은 단위주거 중 공간활용에 따른 장단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면적을 참고하면 장단비만 차이를 나타낼 뿐 면적은 거의 동일하다. 후기 주거간의 중복이 빈번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수차례에 걸쳐 반복 점유된 취락으로 판단된다.

〈도 12〉

충효동 100-14번지유적
주거지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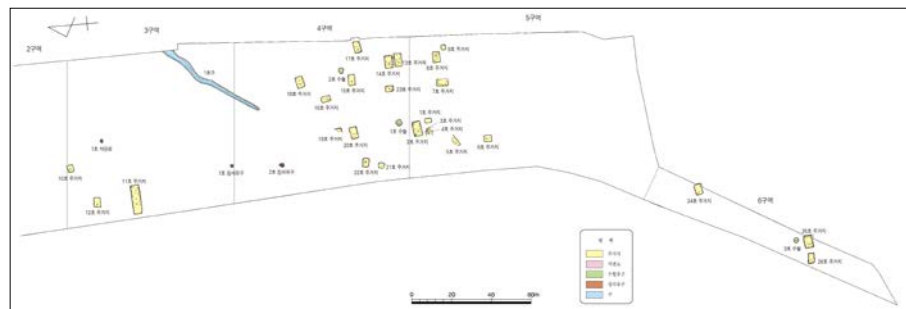


7. 덕천리유적

덕천리유적(嶺南文化財研究院 2008)은 주거지 26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평면형태가 온전한 주거지는 22기이고 18기가 시기구분이 가능하였다. 자료의 검토 결과, 시기가 확인된 주거지 18기는 모두 전기였다.

〈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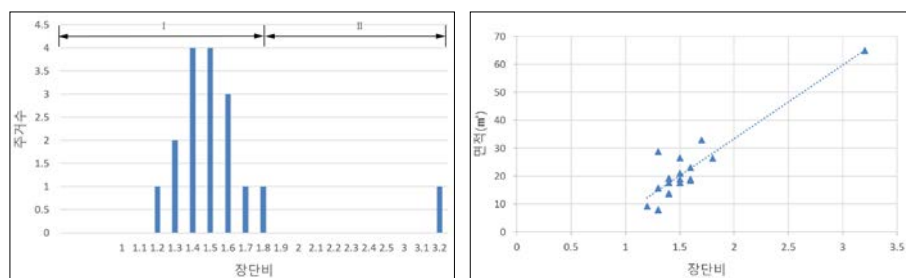
덕천리유적 주거지 배치



전기 주거의 장단비는 I 형(1:1.2~1:1.8), II 형(1:1.8~1:3.2)로 I 형은 단위주거로 판단되며, II 형은 2~3채의 단위주거가 결합된 형태로 11호 주거지 한 기만 확인되었다. 전기 주거지 간 중복양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단위주거인 것으로 보아 취락이 형성되고 얼마 존속되지 못한 채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 14〉

덕천리유적 전기 주거의
장단비 분포(좌)와
장단비-면적 관계(우)



Ⅲ. 청동기시대 주거양상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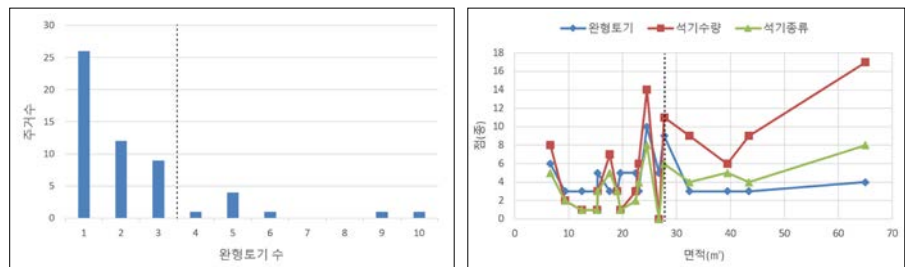
1. 주거면적과 가구규모의 상관관계

주거지 자료로부터 가내 집단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는 주거지 면적이다. 하지만 가구규모와 주거면적, 그것도 바닥의 면적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적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김종일 2004). 이러한 위험성은 비계획적으로 폐기되어 주거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남겨진 주거지의 출토유물을 분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앞장에서 검토한 주거지 내 출토 완형토기의 수량을 분포도로 작성하였다. 그 결과, 3점을 기준하여 빈도봉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¹. 앞 장에서 살펴본 분석대상 유적 중 시기가 분명하면서 완형토기가 3점 이상 출토된 주거지를 선별하여 면적별 완형토기·석기수량과 종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도 15〉

분석대상 주거지 내 완형토기 수량 분포(좌)와 주거 면적별 잔존유물 수량 분포(우)



그 결과 완형토기와 석기종류의 수량은 주거면적에 따라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석기수량은 면적 28m² 이하의 주거지에서는 완형토기 및 석기 종류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나 그 이상의 주거지에서는 완형토기와 석기 수량간의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하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주거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내 생활용기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면적과 가구규모의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취사와 식사의 방식이 오늘날과 같이 개별적인 양상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주거 면적에 관계없이 석기 종류가 동일하다는 것은 주거 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패턴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대변한다. 즉, 주거 내·외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인간 활동은 전기 이른 시기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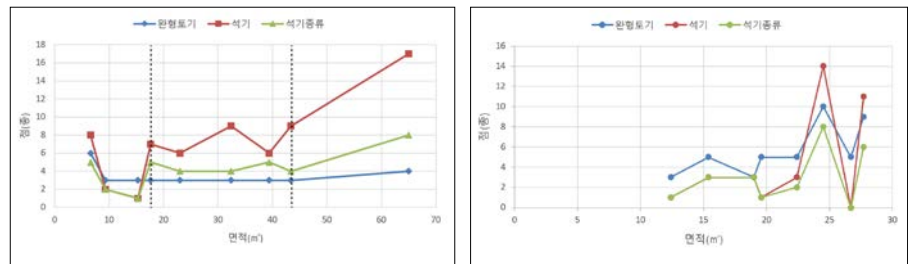
1 중서부지역 전기 주거 내 완형토기 분포에서도 3점 이상을 기준으로 빈도봉이 나뉘어 비교자료(허의행 2009, 27)로 참고 가능하다.

전승되어 관습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주거 내 확인되는 석기의 종류를 상호비교하게 된다면 전기와 후기 간의 생업에 따른 차이가 드러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셋째, 주거 면적에 따른 석기의 수량이 면적 약 28㎡를 기준하여 그 이하의 범위에서 완형토기 및 석기 종류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나, 그 이상의 범위에서 완형토기 및 석기종류의 분포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주거 내 거주인원의 증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주거 내 거주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활동들이 수반되며, 이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바로 주거 내 석기수량의 증대이다.

〈도 16〉

전기 주거지 내
잔존유물 분포(좌)와
후기 주거지 내
잔존유물 분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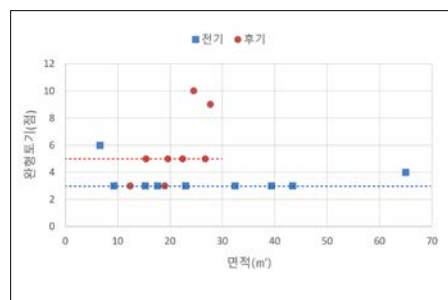


전·후기 주거지 내 잔존유물의 분포를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한 가설적 설명모형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전기에는 완형토기와 석기 수량 및 종류가 주거면적 18㎡까지는 거의 동일한 선상으로 이어지나 그 이상부터는 분포곡선의 간극이 벌어지며, 43㎡를 기준하여 2배가량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후기에는 완형토기와 석기 수량 및 종류의 간극이 거의 없으며 동일한 선상을 지나가게 된다. 전기에는 주거 면적의 증대에 따라 완형토기의 수량과 석기 종류는 균일하나 석기의 수량이 증가하였기에 구성원의 확대에 의한 가내 활동량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후기에는 예외적인 두 사례를 제외하면 면적에 따른 완형토기와 석기 수량 및 종류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으로 보아 면적에 따른 구성원의 증대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몇 가지 추론을 정리하면, 주거면적과 가구규모는 비례적인 관계로 상정 가능하며, 전기와 후기의 면적에 따른 완형토기 및 석기 수량과 종류를 검토하여 이러한 비례관계가 청동기시대 모든 시기에 도 성립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도 17〉

주거 면적별 완형토기
수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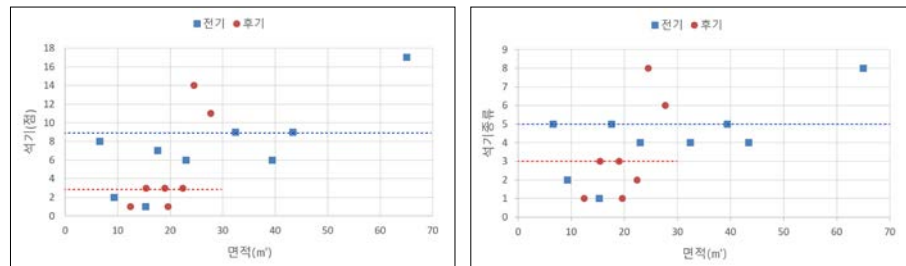
면적에 따른 완형토기의 수량을 시기별로 비교하면, 전기에는 평균적으로 3점이 확인되며 많은 경우 4점에서 6점까지 확인된다. 하지만 후기에는 완형토기가 3점인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5

점이 많으며, 천군동 I-5호나 황성동 I 다-13호 주거지의 예와 같이 불의의 화재로 인해 폐기된 경우에는 완형토기가 10여점이나 출토된다. 이 두 주거지에서는 석기의 수량과 종류도 타 유구에 비해 평균값 이상으로 많은 점수를 차지한다. 한편, 두 시기 모두 면적에 따른 완형토기의 수량 변화 폭은 적은 편으로 앞에서 살펴본 양상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면적에 따른 석기의 수량과 종류도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후기가 전기에 비해 면적별 석기의 수량 및 종류가 적으며, 천군동·황성동의 두 유적 데이터를 제외하면 변화의 폭이 거의 없다. 하지만 전기는 면적 43m² 미만의 범위에서는 석기의 수량 및 종류가 거의 비슷하나 그 이상인 65m²(덕천리-11호)에서는 두 배 가량 증가된다.

〈도 18〉

주거 면적별
석기 수량(좌) 및
종류(우) 분포



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기별 면적에 따른 가구규모의 변화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시기 면적별 완형토기의 수량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완형토기의 평균 개체수는 후기에 들어 전기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다. 이는 앞에서 검토한 결과와 일치하며, 면적이 증대되었음에도 가내 사용된 완형토기의 개체수가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은 면적과 가구규모 간의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거나 취사와 식사의 방식 차이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후기에는 주거 내 완형토기의 개체수가 2배 가량 증가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기에는 주거 면적의 소형화를 들어 핵가족화 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기에 대비하여 후기에는 주거 내 거주인원이 동일하거나 축소되었을 것이며, 가내 생활용기가 늘었다는 것은 취사와 식사 형태가 전기의 공동적 형태에서 후기에 들어 개별적 형태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주거의 면적에 따른 석기 수량 및 종류의 변화는 전기에는 43m² 이상에서 2배수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가내 구성원의 증원에 따른 활동의 증가를 나타낸다. 후기에는 천군동·황성동 두 유적의 예를 제외하면 면적별 석기 수량 및 종류는 큰 편차 없이 1~3점

(중)으로 동일하여 핵가족화에 따른 가내 구성인의 평준화를 나타낸다. 후기 주거 내 잔존유물의 수량 변화에서 예외적인 천군동 I-5호 주거지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청동기시대 전·후기 가구양상의 변화

1) 가구구성의 변화와 가족제도

Ⅱ 장의 유적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산리·용강동·황성동·덕천리유적의 전기 주거지는 방형·장방형·세장방형으로 평면형태가 구분된다. 그 중 전기의 세장방형 주거지는 방형의 주거지가 병렬적으로 연결된 확대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하나의 단위는 핵가족의 거주 공간이라고 추정되고 있다(安在皓 1996, 이형원 2009). 이러한 가구의 구성을 친족관계에 기반한 가족체로 연결하는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김종일 2004, 김범철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성의 변화를 미시적이고 역동적으로 설명해내기에는 가구를 가족으로 이해하는 편이 합리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표 2〉
전기 주거의 현황

유적	발굴 주거지	분석대상 주거지	단위 주거수	단위주거 면적(㎡)
동산리	40	10	15	23.8
용강동	49	13	20	16.7
황성동	23	11	25	15.9
덕천리	27	18	20	19.7
총계 및 평균	139	52	80	18.5

이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 인류학에서 나타났다. 장기간에 걸친 가구규모의 변화를 반복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이를 ‘가구의 발달주기’로 상정하였으며, 가족구성변화와 관련된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金範哲 2011, 54) 즉, 가구는 가족의 성장과 발전, 쇠퇴에 따라 규모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경주지역 전기의 방형·장방형·세장방형 주거지를 관념적으로 이해하는데 해안을 제공한다. 앞 장에서 분석한 전기 주거 중 방형이나 장방형인 I 형은 하나의 단위주거로 판단되며, II·III 형은 가구 구성원의 증대에 따른 단위주거의 병렬적 결합으로 추정된다. 경주지역에서는 호서지역과 같이 장단비가 1:5이상 되는 세장한 주거지 형태는 잘 확인되지 않으며, 최대가 3채의 결합주거 형태이다. 결합주거는 대체로 장단비 1:1.6~3.2의 범위에 속하며, 면적은 40㎡

이상인 사례가 제법 확인된다. 호서지역의 자료²와는 대조적으로 단위주거의 비율이 60.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결합주거의 비율은 2채가 28.3%, 3채가 11.3%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가족이 확대가족체로 발전하기 전에 취락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표 3〉

전기 주거의 단위주거
결합양상

유적	분석대상	단위주거	결합주거		단위 주거수
			2채	3채	
동산리	10	6(60.0%)	3(30.0%)	1(10.0%)	15
용강동	13	9(64.3%)	4(28.6%)	1(7.1%)	20
황성동	11	0(0.0%)	8(72.7%)	3(27.3%)	25
덕천리	18	17(94.4%)	0(0.0%)	1(5.6%)	20
합계	52	32(60.4%)	15(28.3%)	6(11.3%)	80

이상 〈표 3〉과 같이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양상을 살펴본 결과, 부모세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단위주거의 형태가 절반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성혼한 자녀세대가 부모와 동거하는 확대가족의 형태는 40% 가량이었다. 경주지역 전기 주거의 양상은 호서지역의 주거양상과 차이를 보이며, 차이의 원인은 자연경관이나 지리적 환경, 또는 생업 전략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후기가 되면 주거 면적이 소형화되고, 평면 형태는 울산식주거지인 방형·장방형으로 변화한다.(이수홍 2012, 김현식 2006) 이러한 변화상은 남한 전체 청동기시대 후기의 보편적 현상이다. 전·후기 주거지 비교표 〈표 4〉를 참고하면, 전기에서 후기로의 변화에 따른 주거면적의 소형화는 자명하며, 이러한 변화의 동인으로는 확대가족에서 가족체가 해체되어 핵가족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필자 역시도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 면적의 축소는 동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전·후기 주거 면적의 비교는 단위주거간의 비교가 되어야지만 올바른 분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유적별로 분석한 주거지 면적의 합을 단위주거 수로 나누게 되면 단위주거의 평균 면적이 된다. 이를 유적별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전기 주거의 단위면적은 19~24㎡의 범위에 포함되며, 평균면적은 약 18.5㎡ 가량이다. 이는 후기 주거의 평균면적인 16㎡보다 크다. 하지만 후기의 주거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주거면적을 단위주거로

² 김범철 2018에서 인용, 단위주거 14.7%, 2채 결합주거 40.4%, 3채 결합주거 27.9%, 4채 결합주거 13.2%, 5채 이상 3.7%의 수치를 보인다.

설정함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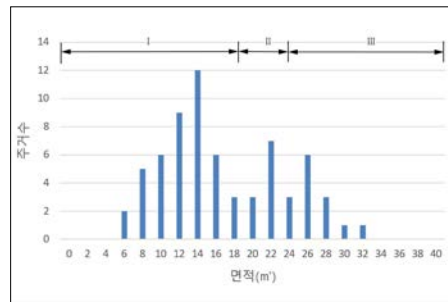
〈표 4〉

전 · 후기 주거지 비교

	전기	후기
주거지수	52	67
총주거면적(㎡)	1325	1070.8
평균주거면적(㎡)	27.6	16
주거면적표준편차(㎡)	14.5	6.7

〈도 19〉

후기 주거의 면적 분포



후기 주거의 면적 분포를 살펴보면, 〈도 19〉와 같이 크게 3부류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제일 첫 번째 위치하는 면적 18㎡이하인 I 형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기에 단위주거로 판단되며, I 형과 전기 단위주거와의 면적 비교가 적합하다. 〈표 5〉에서 I 형의 평균면적은 12㎡로 1인당 주거면적³을 5㎡로 보았을 때 2.4인의 주거면적으로 성혼한 부부와 자녀 1명의 주거로 적합하며, 후기 핵가족화의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기 주거의 단위주거 평균 면적은 18.5㎡로 1인당 주거면적을 5㎡로 보았을 때 3.7인의 주거면적으로 부모세대와 자녀 2명의 주거로 적합하다. 산술적 수치에 대한 해석으로는 전기에서 후기로의 변화에 따른 단위주거의 감원으로 이해된다. 후기에는 전기의 대가족체가 해체되어 핵가족으로 분화되기에 주거형태의 가장 기본 단위는 결혼한 부부 또는 자녀 1~2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개연적 설명이 가능하다.

〈표 5〉

후기 주거 분류

유형	주거지수	면적평균(㎡)	표준편차(㎡)
I	46	12	3.4
II	9	21.5	0.7
III	12	27.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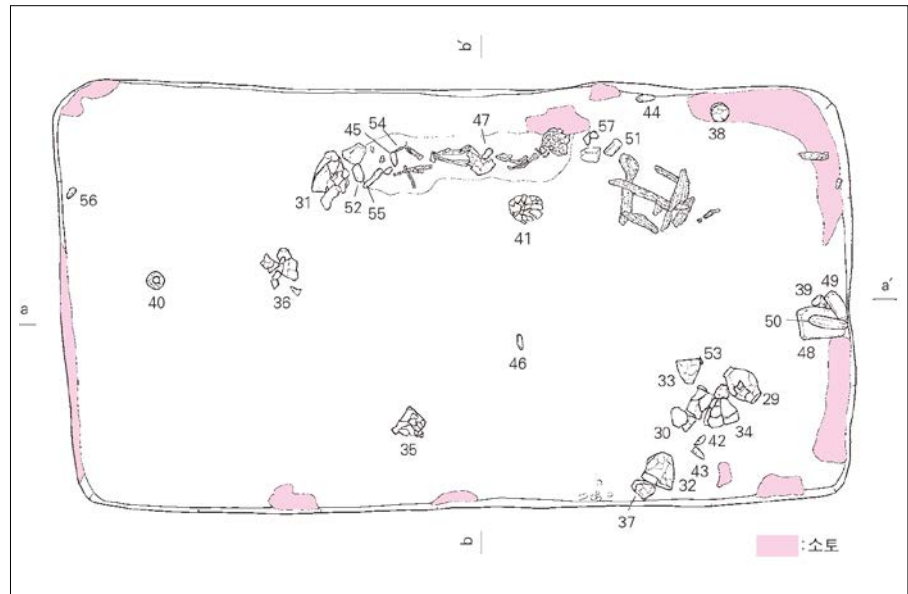
한편, 〈표 5〉에서 후기 주거의 II 형은 평균면적 21.5㎡로 가내 주거 인원은 4.3인으로 추산된다. I 형과 더불어 후기의 핵가족 주거의 형태로 판단되며, 부부세대와 자녀 2인으로 구성된 가구이다. III 형은 평균 면적 27㎡이며, 추정 인원은 5.4인으로 후기의 핵가족체로 보기에

3 1인당 평균 면적 3㎡로 보는 입장(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115), 신석기시대에는 1인당 평균 면적을 4.5㎡로 보고 청동기시대에는 1인당 평균면적을 5㎡로 보는 입장(김정기 1974:80), 청동기시대 1인당 평균면적을 5㎡로 보는 입장(최몽룡 1983:157) 등이 있다.

는 가내 구성원의 수가 많다. Ⅲ형 주거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인골 2구와 완형토기 10여점이 확인된 천군동 I-5호 주거지(聖林文化財研究院 2010)가 참고된다⁴.

<도 20>

천군동유적 I-5호 주거지 평면도



천군동 I-5호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674cm, 너비 364cm, 면적 24.5㎡이고, 기둥은 6주식의 배치로 중앙에 수혈식의 노지를 가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지는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그 이후에 시체 2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주거지 내 매장된 2인은 주거 내 거주했던 동거인일 가능성이 크며, 주거 내 확인된 유물은 死者가 생전에 사용하던 생활용기일 것이다. 가내유물을 살펴보면, 호형토기 1점, 심발형토기 8점, 원저호 1점으로 총 10점의 토기가 출토되었고, 석기는 갈돌 2점, 갈판 1점, 지석 1점, 박편 2점, 미완성석기 1점, 석촉 2점, 반월형석도 2점, 합인석부 2점, 유구석부 1점으로 총 14점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생산도구인 수렵구·경작구·목공구가 각 2점씩만 확인되고 있어, 가내 생산을 담당 한 인원은 2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용기인 토기류를 살펴보면, 음식의 조리과 관련한 심발형토기 5점과 음식의 소비와 관련된 천발형토기 2점·원저호 2점이 세트로 확인되었다. 저장용기인 호형토기는 1점만 확인되어 가내 저장량이 많지 않았고, 석기 및 토기류의 수량으로 볼 때 결혼한 부부세대 2인이 거주한 핵가족체로 판단된다.

2인이 거주하는 단위주거가 4인이 거주하는 주거의 면적을 상회한다면, 1인당 점유면적이 증가하였음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후기의

⁴ 주거 내 주검을 확장한 형태는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되는 가옥장으로 이해되며(유병록 2010), 가옥장은 청동기시대 후기 검단리유형의 수렵채집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본다(안재호 2018).

사회적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추후 별고에서 사례 검토를 통해 논해 보고자 한다.

2) 가내 생산양상의 변화와 생업전략

가내의 다양한 활동(생산·소비·분배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는 생활 당시 사용하였던 다종다양한 석기류이다. 앞에서 분석한 전기와 후기 유구 내에서 확인된 석기류를 기능별로 비교한 결과〈표 6〉·〈표 7〉 전기 단위주거의 보유 석기수량이 후기 단위주거의 보유 석기수량보다 많았다.

〈표 6〉

석기 기능 분류표

분류	석기	분류	석기
무구	환상석부	석공구	대석, 지석, 고석
수렵구	석촉, 석창	식량처리구	요석, 석봉, 연석
수확구	석도, 석검	직조구	방추차
별채구	합인석부	어로구	어망추
목공구	석착, 편평편인석부, 유구석부		

이는 결국 앞 절에서 검토한 단위주거 내 평균 인구수의 문제와 연계된다. 단위가구의 구성원 수는 전기에는 3.7人이었으나 후기에는 2.4人으로 전기에 비해 약 30% 가량 축소되었으며, 가내 보유 석기류 역시도 가내 구성원 수의 변화에 따라 약 60% 가량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계획적으로 폐기된 주거지 내 잔존 석기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 18〉과도 부합한다.

〈도 21〉을 살펴보면, 전·후기 석기 조성비에서도 주목되는 변화

〈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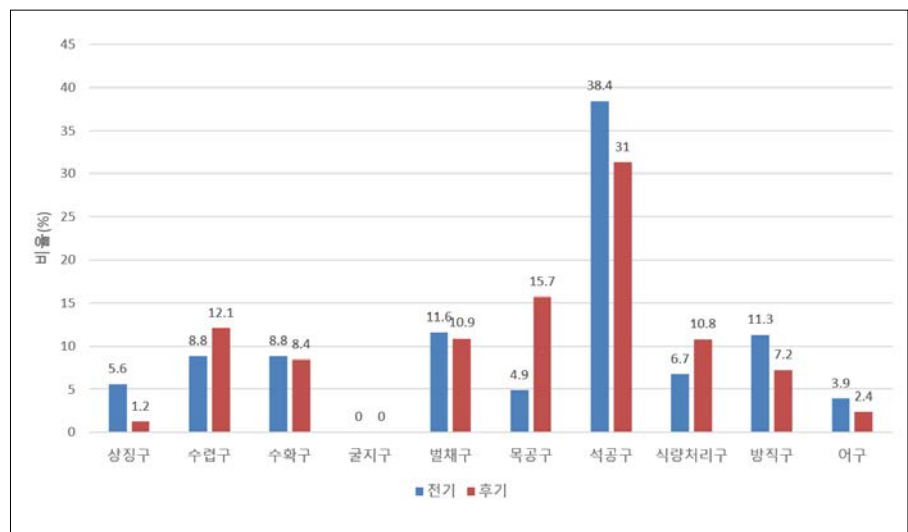
전·후기 주거 내
석기비교표

석기분류	총수		평균		
	전기	후기	전기	단위	후기(67)
			주거(52)	단위주거(80)	
무구	13	1	0.25	0.16	0.01
수렵구	13	8	0.25	0.16	0.01
수확구	15	6	0.28	0.18	0.08
굴지구	0	0	0.00	0.00	0.00
별채구	17	7	0.32	0.21	0.10
가공구	11	9	0.21	0.13	0.13
석기가공구	34	19	0.65	0.42	0.28
식량처리구	15	7	0.28	0.18	0.10
방직구	19	6	0.36	0.23	0.08
어구	4	2	0.07	0.05	0.03
총계(평균)	141	65	2.7	1.7	0.97

가 간취된다. 즉, 후기에 들어 수렵구(3.3%)·목공구(10.8%)·식량처리구(3.1%)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후기 농경집약화로 인한 가구 내 생계전략의 변화를 나타내며, 그 중 수도작의 보급에 따라 목재도구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대다수 인정하는 바이다(손준호 2008). 전기에서 후기로의 석기도구 조합 변화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은 목공구이며, 후기의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농경 집약화라는 보편적인 사회변화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생산활동 중 손실의 우려가 큰 수렵구도 전기에 비해 3.3%나 증가한 점은 생업의 상당 부분을 수렵이 차지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는 검단리 문화의 특질을 수렵채집문화로 상정하고, 가옥묘, 주구구획묘, 소형석관묘 등의 유구와 멧돼지형의기, 동북형석도, 함정 등의 유물을 반증자료로 제시한 논의와 부합된다. 전기의 수렵채집을 주된 생계전략으로 채택한 검단리유형의 취락은 가용자원의 한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작물생산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더라도 선택압으로 인해 수전을 통한 생계의 해결을 도모하였을 것이다. 경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농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유구는 확인된 바 없으나, 금장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에서 관련 층위가 확인되어 경작유구가 유존할 가능성이 크다.

〈도 21〉

전·후기 기능별
석기조성비 분포



IV. 맺음말

본고는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자료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 후, 시기적 변화에 따른 주거 면적과 가내 잔존유물의 변화를 살펴 가구의 발달과 가족제도의 변화, 그리고 생업전략의 변화상을 검토해 보았다. 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전기의 주거는 일반적으로 대형에 평면 세장방형이라고 인지되고 있으나, 실제 주거 자료를 살펴보면 전기 주거의 면적과 형태에 편차가 확인된다. 본고는 이러한 편차의 연유를 가구가 가족이라는 전제 하에 구성원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 인식하였다. 전기 주거의 계량분석 결과 단위주거의 평균면적은 18.5㎡로 부부와 자녀 1~2명으로 구성된 핵가족체로 상정되며, 이러한 단위주거에 가족의 구성원이 증대됨에 따라 장단비와 면적이 증가하여 확대가족체로 변화하게 된다. 전기 주거의 면적별 잔존유물 분석 결과에 의하면 면적 18㎡와 43㎡를 기준으로 석기의 수량이 2배수로 증가하여 가구의 발달에 따른 구성원의 증가를 잘 나타낸다.

후기 주거에 대한 일반론은 면적의 소형화·평면의 방형화로, 경주지역 역시 김단리문화권에 속하여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다. 후기 주거 중 다수를 차지하는 I 형은 평균 면적 12㎡로 부부 또는 자녀 1명이 추가된 핵가족체로 상정되며, II 형 역시 평균 면적 21.5㎡로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핵가족체이다. III 형 주거는 평균면적 27㎡로 천군동 I-5호의 사례로 보아 2인이 거주하였던 형태로 취락 내 계층화나 공간 활용상의 차이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전·후기 주거 내 석기의 기능별 분류를 통해 주거 내 생산양상을 살펴보았다. 후기에는 단위주거 내 구성원의 축소로 전기에 비해 석기의 수량이 감소하였고, 수렵채집경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수도작이 도입되어 목공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생계기반인 수렵채집이 여전히 생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음을 수렵구와 식량처리구의 비중 증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논문

- 김권구,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학연문화사.
- 金正基, 1974, 「주거지와 분묘」, 『한국사』.
- 김종일, 2004, 「한국 중기 무문토기문화의 사회구조와 상징체계」, 『國史館論叢』104권, 국사편찬위원회.
- 金範哲, 2011, 「青銅器時代 前期 住居樣相과 家口發達週期-호서지역 驛三洞 및 欣岩里類型 聚落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第72號.
- _____, 2013, 「'家口'에 대한 考古學的 理解-‘家口考古學’과 한국 선사시대 주거양상 연구-」,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 _____, 2018, 『가옥 가족 가구』, 충북대학교 인문사회 연구총서, 충북대학교 출판부.
- 金賢植, 2006, 『蔚山式 住居地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宮里修, 2005, 「무문토기시대의 취락 구성: 中西部地域의 驛三洞 類型」, 『韓國考古學報』56.
- 박영구, 2015,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 서경문화사.
- 배근연, 2015, 『형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손준호, 2008, 「石器 組成比를 통해 본 青銅器時代 生計와 社會經濟」, 『韓國青銅器學報』3, 한국청동기학회.
- 최몽룡, 1983, 「주거생활」13(한국의 고고학Ⅱ·上), 국사편찬위원회.
- 安在晔,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8, 「울산의 청동기시대 문화와 그 역할」,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2018년 울산대국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학술대회.
- 유명록, 2010, 「豎穴建物 廢棄行爲 研究1-家屋葬-」, 『釜山大學校 考古學科創設20周年紀念論文集』,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울: 서경문화사.
- 李秀鴻, 2012, 『青銅器時代 檢丹里類型의 考古學的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의행, 2009,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의 폐기와 소멸 연구-토층 퇴적양상과 유물 출토량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제65호.

보고서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7, 『慶州 金丈里 遺蹟』.
- 경북대학교박물관, 2000, 『慶州 隍城洞 遺蹟Ⅲ』.
- 경주대학교박물관, 2010, 『慶州 忠孝洞 100-14番地 一圓 遺蹟-B地區-』.
- 계명대학교박물관, 2000, 『慶州 隍城洞 遺蹟Ⅴ』.
-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9, 『慶州 忠孝洞 都市開發事業地區 遺蹟』.
- _____, 2010, 『慶州 忠孝洞 100-14番地 遺蹟-A地區-』.
- _____, 2010, 『慶州 東山里遺蹟Ⅰ』.
- 성림문화재연구원, 2009, 『慶州 龍江洞 青銅器時代 聚落遺蹟』.
- _____, 2010, 『慶州 千軍洞 青銅器時代 聚落遺蹟』.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慶州 德泉里遺蹟Ⅰ』.

• 토론문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변화에 대한 이해’에 대한 토론문

강봉원
경주대학교
명예교수

이 논고는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자료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면적의 변화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의 양상을 검토하여 가구의 발달, 가족제도, 그리고 생업경제의 변화상을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다. 논고의 저자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래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의 초점이 취락분포의 변화 양상에 맞추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편년과 계통, 그리고 지역성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의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취락과 주거의 주체자인 ‘거주인’의 연구와 논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유물과 주거지의 형식 분류가 주가 아닌 청동기시대 ‘인간’/‘사람’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높이 평가된다. 아울러 주거지 자료들을 계량화하여 분석하고 고고학 및 인류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연구는 물론이고 고고학의 수준이 한 차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향후 자료의 분석과 해석이 좀 더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더 좋은 논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고해야 할 사항이 이 논문 곳곳에 산재해 있다. 우선 토론자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반드시 수정·보완되어야 할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토론자의 소임을 하고자 한다.

첫째, 편년의 문제로 경주지역 청동기시대를 BP 2650(700 B. C.)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관련 유물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시기 구분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는 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본고의 8-9쪽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2009)의 『경주 충효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적』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면서 이 유적지에서 노출된 주거지를 “조기-전기-후기”로 시기 구분을 하였다.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은 맞지만 ‘조기’로 편년 되는 2기의 주거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본고의 전기/후기 구분과는 일관성이 없다. 또 몇몇 보고서에는 방사성탄소연대가 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란다.

둘째, 연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의문은 주거지 자료에서 동산리유적(전기 10기, 후기 12기), 용강동유적(전기 13기, 후기 7기), 황성동유적(전기 11기, 후기 3기)은 ‘전기’ 주거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고 반대로 천군동유적(전기 5기, 후기 14기), 충효동 도시유적(조기 2기, 전기 4기, 후기 15기), 충효동 100-14 유적(전기 5기, 후기 16기)은 ‘후기’ 주거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서 장단비 분포와 장단비-면적 관계에 대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이는 각 유적별로 전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자료의 수가 일정하지 않아 개체수가 많은 시기의 것을 선택해서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유적지에 따라 전기 혹은 후기의 자료가 간과되고 한 유적지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주거지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파악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란다.

셋째, 각 유적지에서 노출된 주거지의 장단비를 토대로 I, II, 그리고 III형으로 분류를 하였다. 그런데 각 유적지별로 적용하는 장단비가 모두 다르다. 이를 아래에서 정리해 보았다(표 1).

〈표 1〉

유적지 별 주거지의 형식에 의한 장단비

유적	I 형	II 형	III 형	유물
동산리(전기)	1:1.1~1:1.4	1:1.5~1:2.4	1:2.5~1:3.3	전기: 10기, 후기: 12기. 전기 I형은 단위주거*
용강동(전기)	1:1.2~1:1.8	1:1.9~1:2.3	1:2.4~1:2.5	전기: 13기, 후기: 7기. 전기 I형은 단위주거*
황성동(전기)	1:1.6~1:2.4	1:2.5~1:2.9	없음	전기: 11기, 후기: 3기. 전기 I형은 2채의 단위주거* 결합, II형은 3채의 단위주거*가 결합된 형태
천군동(후기)	1:1~1:1.7	1:1.8~1:2.1	1:2.5~1:3.3	후기 I형은 단위주거*
충효동 도시유적(후기)	1:1~1:1.4	1:1.5	없음	조기: 2기, 전기: 4기, 후기: 15기
충효동 100-14 (후기)	1:1~1:1.2	1:1.3~1:1.5	없음	전기: 5기, 후기: 16기 I형은 단위주거*
덕천리(전기)	1:1.2~1:1.8	1:3.2	없음	전기: 18기. II형은 2-3채의 단위주거*가 결합된 형태

*이 용어의 개념/정의 설정이 필요함.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 대상 주거지를 I, II, 및 III형으로 나눈 장단비의 기준이 같은 것은 동산리(전기)와 충효동 도시유적(I형, 1:1~1:1.4)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다. 또 황성동을 포함한 네 개

유적지의 경우 III형은 아예 없다. 장단비를 토대로 주거지 형식을 이렇게 일관성 없이 분류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될 경우 유적지 간 분석(between site analysis)이 애당초 불가능하다. 또 한 유적지 내(within site)에서 전기에서 후기로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지의 장단비나 면적 혹은 평면형태가 변하게 되는 것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단위주거’ 혹은 ‘결합주거’라는 용어를 배경 설명없이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특히, ‘단위주거’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본고를 해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일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주거지를 I-III형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그 장단비의 값을 보면 동산리의 경우 1:1.1-1:1.4(I형), 1:1.5-1:2.4(II형), 1:2.5-1:3.3(III형)으로 하였다. 그럴 경우 1.41-1.49, 2.41-2.49의 경우는 갈 곳이 없다. 다른 유적도 모두 이런 식으로 장단비 범위를 설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속한 주거지들 자료가 없었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궁금하다.

넷째, III장의 <도 15>에 보여주고 있는 원형 토기 수와 주거지 수, 주거 면적별 잔존유물 수량 분포에서 검토대상이 된 주거지가 전기인가 후기인가 아니면 전체를 망라한 것인가? 분석 대상은 “비계획적으로 폐기되어 주거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남겨진 주거지”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III장에서 분석한 주거지들 중에서 어느 유적의 몇 기가 이 경우에 해당되고 그러한 주거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토기와 석기 유물이 각각 몇 점이 출토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전제 조건에 맞아야 III장에서 수행한 분석과 해석이 설득력이 있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란다.

다섯째, 본문에 표 2, 3, 4, 5, 6, 7을 제시하였다. 표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본문에 표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본문 어느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지 표기도 되지 않아 표 따로 본문 따로 여서 내용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아래는 본고 〈표 7〉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표 2〉

전 · 후기 주거 내 석기비교표

평균		
전기	단위	후기(67)
주거(52)	단위주거(80)	

나누었지만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여기서 구간을 왜 $2m^2$ 로 설정하였는지, 7, 9, 11, 13, 15, $17m^2$ 에 해당되는 주거지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이 없다. 앞에서는 충효동 두 유적지에서 발견된 주거지들에 대해서 III형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일관성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든다. 반면, 전기 주거지 52기의 면적 분포에 대해서는 <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기와 후기 주거지들을 한 그래프 안에 넣어서 비교해 보는 것은 어떤지 궁금하다. 이들 의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

기계적인 측면:

1. 도 1, 3, 14의 우측에 있는 장단비-면적 관례 그래프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2. 표 4와 5에는 합계가 '67'이지만 <도 19> 그래프에는 '66'기만 제시되어 있다.
3. 표 5의 '단위'는 '형'(I, II, III)이 되어야 하지 않나.
4. 후기 주거지 "I형의 평균면적 $12m^2$ 로 1인당 주거면적을 $5m^2$ 로 보았을 때 2.5인의 주거면적"이라 하였으나 ' $12 \div 5 = 2.4$ '가 됨.
5. <도 4> '용강동유적 주거지 배치,' <도 5> '용강동유적 주거지 배치'로 되어 있다.
6. <도 9> '충효동시유적,' <도 10> '충효동 도시유적 주거지 배치'로 되어 있는데 '충효동시유적'도 아니고 '충효동 도시유적'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 '도시유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청동기시대 '도시유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주 충효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적'으로 표기하여 주는 것이 맞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소한 실수에 지나지 않지만 원고 전반에 걸쳐서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논문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발표자가 본고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수많은 표와 그래프를 제시하였지만 양이 많아 혼란스럽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한 논문 안에서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 발표자가 효율적으로 논지를 풀어가지 못한 감이 있다. 기술통계학(記述統計學)을 적용하는 것은 높이 평가되지만 숫자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모든 계산은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과정이 어긋나고 궁극적으로 해석도 틀리게 된다. 통계학 전공자와 상의해서 좀 더 세련되게 분석하고 이를 고고학적으로 해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유병록
세종문화재
연구원

경주지역 출토 청동기시대 토기와 석기양상

I. 머리말

경주지역 청동기시대¹ 출토유물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역설적이게도 시대명에 걸맞는 ‘靑銅器’가 아직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². 유물 대부분은 토기류와 석기류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청동기의 출토빈약은 경주가 속한 영남지역의 일반적인 양상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에서 조사된 무덤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도 지적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무덤이 조사된 대구나 경남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대규모 취락이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영남지역에서 청동기유물이 빈약한 것은 영남지역만의 특성으로 보아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청동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청동기시대 시기별 유물이 대부분 출토된다. 토기의 경우 전기의 각종 문양토기를 비롯하여 후기에도 주변지역과 분포권을 같이하는 유물이 출토된다. 석기의 경우도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경주지역이 영남지역에서 다소 편향된 지리적 위치임에도 청동기시대의 일반적인 문화적 흐름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만, 청동기시대 후기의 경우 같은 영남이지만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송국리문화권임에 비해 경주를 비롯한 주변 포항, 울산 등의 동남해안지역은 송국리문화와는 대비되는 김단리문화권이라는 점에서 지역적인

1 본고에서의 청동기시대 하한은 점토대토기가 출현하기 이전이며 시기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2 최근 발간된 청동자료집성 자료에서도 경주지역 청동기가 출현하는 것은 청동기시대 다음 시기인 초기철기~원삼국시대에 이르러서이다. 傳경주 포함 22개 유적에서 세형동검을 대표로 하는 다수의 청동유물이 출토되었다.

국립청주박물관, 2019, 『한국의 청동기 자료 집성Ⅲ』.

문화적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앞서 경주지역이 청동기시대 일반적인 유물의 출토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유물 중 형태가 독특하여 특정 문화권의 동일영역임을 증명해주는 유물도 일부 존재한다. 이와 반대로 주변에서는 출토되지만 본 경주지역에서는 전혀 그 사례를 볼 수 없는 유물도 있다. 전자의 경우가 일명 ‘동북형석도’나, ‘파수토기’가 될 수 있고, 후자의 사례는 전후기에 걸치는 채문(가지문)토기가 있다.

본고는 이상의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유물상을 바탕으로 경주지역이 당시 어떠한 문화상을 가졌으며, 주변지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자	조기	전기			후기		비고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이수홍 (2005)	-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주거지				장방형, 방형주거지	
		구순각목+공열문	단순문, 무문양		단사선문, 무문양	단사선문 소멸 횡선문, 무문양	
손호성 전상옥 (2009)	평지형	-	관산리유형 (세장방형, 초대형, 정형성 노지와 주혈), 변형관산리유형 (장방형, 수혈식주혈, 노지 선택, 복수노지 등)	중소형 장방형주거, 정형화된 노지와 수 혈식주혈, 벽구설치 검단리유형 변형관리유형 존속	소형의 방형주거 4주식에 노지 검단리유형		
			유사이중구연, 퇴화이 중구연, 이중구연+단 사선/공열문	단독문양 (단사선, 공열문) 중심 파수토기, 적색마연장경호	단독문화 소멸 무문양의 발형토기 중 심		
	구릉형	-	선택된 노지, 주혈 정형, 관산리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	주거공간 분할 (노지, 주혈 정형), 벽구설치 =검단리유형 복수노지 방형주거 =변형관산리유형	후반의 평지형 주거와 유사		
			공열문+구순각목/단 사선문	단독문 (단사선, 날알문)	단독문양 (공열문, 단사선문) 적색마연장경호, 무문양 중심		
박영구 (2013 2015)	· 충적지 입지 · 대형 방형주거 · 석상위석식 노지 · 미사리식주거지	전엽	중엽	후엽	· 중형이하 장방형과 방형의 울산식주거지 대부분 · 무시설노지 단독 · 4, 6주식, 벽구, 외부돌출구	· 방형과 소형의 울산식주거지 · 무시설식 노지 단독 · 6주식, 4주식, 벽구	
		· 충적지 입지 · 장방형에 위석식 노지	· 혼암리형 주거 · 장방형, 세장방형 · 무시설 노지 · 저장공, 벽구, 외부 돌출구	· 8주식 장방형, 방형 · 무시설노 1~2 · 벽구, 외부 돌출구			
	· 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외반구연토기 · 무경식석촉	· 돌대문토기, 유상돌대문, 삼발형토기, 외반구연 토기	· 퇴화 이중구연, 혼암리 식토기 성행, 횡대 구획문 · 유단식검, 삼각만 입촉, 이단경촉	· 이중구연 소멸 · 복합문, 공열문 · 일단검, 일단경촉, 주상 편인석부, 어형· 주형석도	· 공열문 단독 or 공열단사선 (날알문) 복합 · 유경석검, 일단경촉, 단어형과 단주형석도	· 단독문:날알문, 횡선문, 파수부발형, 횡선파수발, 적색마연 양이부호 · 편인석부, 유구석부	

연구자	구분(입지)	전기		후기		비고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이도현 (2014)	· 석상위석식노지+ 방형주거지	· 조기의 미사리유형 지속	· 수혈식노지+ 방형계주거	· 수혈식노지 +방형계주거	· 형산강유역 문화 의 전환이 이루어 지는 시기	
		· 석상위석식노지, 규모축소	· 장방형, 세장방형주거지	· 주거 규모 다양	· ‘검단리식주거지’ (동천·태화강 유역):소형화, 노지위치정형	
		· 유적수 빈한 (이후 시기와의 문화적 단절양상)	· 중형, 대형 대다수		· 부정형의 주혈배치	
	· 돌대각목문, 절상각목돌대문	· 돌대문토기+ 이중구연, 구순각목, 적색마연토기, 사이부호 공반	· 이중구연계 복합문, 구순각목 공열문이 중심	· 이중구연이 소멸 하는 시기, 단사 선문 속성만 잔존	· 혼암리식 토기 소멸	
	· 적색마연토기, 사이부발, 이중구연토기		· 단독문: 이중구연, 단사선, 구순각목문, 공열문계 중심	· 공열문 비율 낮아 지며 돌류문 중심 으로 변화	· 새로운 문양:횡선 문, 파수발 (동남해안 양상)	
	· 삼각만입촉, 석검		· 대부소호, 적색마연토기 공반	· 복합문: 구순각목문+ · 단독문:단사선문, 구순각목문, 공열문	· 돌류문 잔존 · 외측반투공 공열 문 위주	
배균열 (2015)	· 평면 방형과 장방형, 방형 주류	· 평면 세장방, 장방, 방형	· 평면 세장방, 장방, 방형	· 평면 방형	· 평면 방형과 장방형	
	· 석상위석식(단수) 노지	· 장방형이 대세	· 장방형과 세장방형 위주	· 무시설식노지	· 방형 위주	
	· 단독주거/ 대형+중소형 복수주거군	· 무시설식노지 일색	· 무시설식노지	· 노지수는 1기	· 무시설식노지	
		· 노지는 단수와 복수 혼재, 무노지도 존재	· 노지는 단수와 복수 혼재		· 노지수는 단수 중심	
		· 벽주혈 설치 (입지 구릉이동)			· 주거지의 개체수 최대, 밀집도 높음	
	· 돌대문 (미사리식)	· 이중구연+사선문 (가락동식)	· 가락동식,역삼동 식,혼암리식 혼재	· 역삼동식만 확인	· 역삼동식 소멸	
		· 구순각목+공열문 (역삼동식)	· 가락동식과 역삼 동식 단독사례도 일부	· 횡선문 출현 (검단리식)	· 검단식토기 위주	
		· 두 양식 혼재되는 혼암리식	· 석기: 이단경촉, 이단/일단석검, 석촉, 장방형/어형/ 선형석도, 부리형석기	· 석기: 평편인석부만 출토	· 파수 출현, 검단리식과 결합	
		· 석기: 무경식, 이단경식촉, 이단병검, 장방형/어형/ 선형석도			· 석기: 유구석부, 어형/선형석도, 부리형석기	

〈표 1〉 청동기시대 경주지역 연구자별 시기별 유구와 유물 정리내용

II.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유물의 기준 연구결과

앞서 경주지역 유물출토의 특징으로 언급한 바 있듯이 출토된 청동기가 전무하기 때문에 유물에 대한 검토는 모두 토기와 석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기존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정리한 <표 1>을 토대로 <표 2>와 같이 유물출토상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

경주지역 시기별
주거지와 유물출토상

구분		전기	후기
주거지	평면형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방형, 장방형
	내부시설	위석식·수혈식·평지식노지, 벽구, 내부수혈	수혈식·평지식노지, 벽구, 내부수혈
유물	토기류	돌대각목문, 이중구연계 복합문, 구순각목문·공열문계 복합문 대부소호, 적색마연토기, 횡대구획문, 유공양이호	단독문 일부 잔존, 횡선문(남알문), 파수발
	석기류	무경식·유경식석촉, 일단·이단병식석검, 장방형·어형·선형석도, 함인·편평편인석부, 석착, 유경식석도(동북형석도)	유경식석촉, 일단병식석검, 어형·선형석도, 주상편인·편평편인석부, 유구석부, 석착, 부리형석기

기존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경주지역을 아우르는 형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그 시기를 구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 시기를 조기·전기·후기(중기) 혹은 전·후기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 구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주로 주거형태와 유물이다. 주거형태는 평면형과 내부시설, 유물은 토기의 문양여부와 문양의 종류, 석기는 석검이나 석촉, 석도 등이 주된 편년자료로 이용된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경주지역의 경우 早期는 유적이 소수이고 전기와의 경계성이 명확하지 않아 전기의 범주에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경주지역이 포함된 검단리문화권에 대비되는 송국리문화권의 경우 송국리형주거지로 대표되는 송국리유형이 전기와 명확히 구분되는 후기의 문화로 인정된다. 이에 반해 검단리문화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울산식주거지³, 혹은 검단리식주거지⁴의 등장시기를 후기(중기)로 위치지우지만 세부적으로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 후반의 주거형과의 차이점도 명확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⁵. 그러한 연유로 형산강유역 및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은 대체로 유물 중 토기에 의존한 편년체계가 세워졌다.

<표 1>과 <도 1>을 통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토기편년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대체로 두 가지 이상의 문양이 시문된 복합문은 전기, 단독문은 전기에서 후기 전반, 횡선문(날알문)이나 파수토기는 후기에 편년된다. 복합문이나 단독문을 구성하는 각목돌대문,

<도 1>

형산강유역 무문토기
문양 편년의 일례
(裴君烈 2015,
I ~ VI기는 전기,
VII ~ VIII기는 후기)

분기	단계	문양	분기	단계	문양
I	1	문대(1) 이 I (2)		1	이 IV(3)
II	1	이 II 구공1(18) 구공2(38)		2	이 IV 이사3구(26)
III	1	이 II 구(15)	VI	3	사구공3(36)
	2	사구공1(35)		4	이 II 이사2(13)
	3	황칠구공3(21)		5	황대거(40) 황대구과(42)
IV	1	이 II 이사3사구(17) 이 III 이사3(19)	VII	1	황대구과공2(43)
	2	사선공2(34)		1	황단공2(45)
	3	이 IV 이사3공2(29)		1	황단구공3(47)
V	1	이 IV 구(24) 이 IV 공1(25)	VIII	1	파수황단(50)
	1	이 IV 이사3공1(28) 이 IV 이사3공3(30)		2	파수(10)
		이 IV 이사3구공1(31)		3	파수사선(48)

3 울산식주거지는 연구자마다 그 개념설정에 다소 차이가 있다. 조현정의 경우 평면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 벽구, 배수구 등이 설치된 주거지를, 김현식은 전기 혼암리유형의 관산리식·미사리식주거지 등의 대형주거지가 주거면적이 소형화되고 노지수 감소, 노지위치의 정형화, 주혈배치의 4각 구도화가 이루어진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趙賢庭, 2001, 『蔚山型住居址의 研究』, 慶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김현식, 2006,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형성과정과 출현배경 -주거지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第54號.

4 李度炫, 2014, 『형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37쪽. 이도현은 형산강유역 주거지의 경우 주혈배치에서 부정형인 것이 다수이고 평지입지 주거지의 경우 벽구나 배수구가 불필요하여 설치되지 않은 것이 있어 검단리식(울산식)주거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5 이도현은 전기의 혼암리식 주거지의 내부구조와 후기의 주거구조에 별 차이가 없이 토기와 같은 물질문화의 교체만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李度炫, 2014, 앞의 논문, 103쪽.

돌류문, 이중구연, 구순각목문 등의 문양들은 한반도내 특정지역이나 특정문화에 한정되지 않은 반면, 횡선문이나 파수토기는 지역적 한정양상을 보인다. 석기는 토기에 비해 시기성이나 지역성이 뚜렷하지 않은 편인데, 다만 송국리유형의 한 요소로 인정되는 유구석부는 후기에만 확인된다.

한편 유물을 통한 이 지역의 생계방식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그 기본자료는 대부분 석기를 통해서였다. 도영아는 경주지역 취락의 입지를 구릉지와 평지로 구분 후 각 입지별 취락내 대형토기⁶와 석기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⁷. 석기의 경우 작물수확구, 굴지구를 농경의 범주에, 그 외 수렵구와 어로구, 식량가공구는 非농경구로 구분하였다. 유적내 30점 이상의 석기가 출토된 유적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구릉지나 평지입지 유적간 생계활동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하천이나 바다가 근접하면 어로의 비율이, 평지비고차가 41m 이상의 고지형취락은 수렵의 비율이 높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취약점은 두 가지가 지적될 수 있는데, 유적별로 시기적 구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기성이 부족한 점과 일부 석기의 기능을 잘못 분류한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주상편인석부와 부리형석기를 굴지구로 분류하여 농경구로 본 것인데, 주상편인석부는 일반적으로 굴지구보다 목제가공구⁸로 본다. 그리고 부리형석기는 필자가 수확구의 가능성을 제기⁹한 바 있으나, 석기사용흔 분석 등을 통해 실용구라기 보다는 의례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⁰. 이러한 오류는 손호성·전상욱의 연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평지형 취락임에도 석도의 비율이 낮으면 농경의 비율이 낮고 굴지구로 분류한 주상편인석부와 부리형석기가 많으면 농경작으로 자급자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¹¹.

6 토기는 기본적으로 저장용 목적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기고 30cm이상, 구경 20cm이상의 토기를 농경의 결과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

7 都英娥, 2007,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생업에 대한 검토」, 『文化史學』 27號.

8 裴眞晟, 2000, 『韓半島 柱狀片刃石斧의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孫峻鎬, 2006, 『韓半島 青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9 俞炳祿, 2006, 「一名 ‘부리형석기’ 用途에 대한 小考」, 『石軒鄭登元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釜山考古學研究會.

10 손준호, 2014, 「도구의 사용과 생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 道具論 -』, 한국고고환경연구회 학술총서 12.

11 손호성·전상욱, 2009,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 - 경주권역 주거지의 분류와 시기설정」, 『성림고고논총』 창간호, 34쪽.

사실, 청동기시대에 출토된 석기분석을 통한 생계유형 연구는 간간이 이루어졌던 작업이었다¹². 그러나 도영아의 연구결과처럼 입지적 차이나 시기적으로 생계방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결론은 농경과 함께 수렵이나 채집, 어로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할 뿐 각각의 경제활동 비중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는데¹³ 이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는 주거지 출토 유물이 점유 당시의 고고학적 맥락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¹⁴이나 석기의 다기능성에 대한 문제¹⁵, 일부 석기의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있다는 약점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12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輯.

孫峻鎬, 2003, 「磨製石器 分析을 통한 寬倉里遺蹟 B區域의 性格 檢討」, 『韓國考古學報』 第51輯.

孫峻鎬, 2008, 「石器 組成比를 통해 본 靑銅器時代 生計와 社會經濟」, 『韓國靑銅器學報』 3號.

13 같은 검단리문화권이자 핵심지역인 울산의 생계유형을 유물이 아닌 취락의 입지, 농경유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역시 농경을 중심으로 수렵, 어로, 채집의 형태가 이루어졌으며 다만 농경의 비중이 다른 지역(송국리문화권?)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윤호필, 2018,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생계」,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2018년 울산대국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대회, 106쪽.

14 金承玉, 2000, 「호남지역 마한 주거지의 편년」, 『湖南考古學報』 11, 38쪽.

15 이기성, 2008, 「일본 죠훑·야요이 전환기의 석기 변화」, 『韓國上古史學報』 59, 32쪽.

Ⅲ. 시기별 물질문화(유물)의 흐름

1.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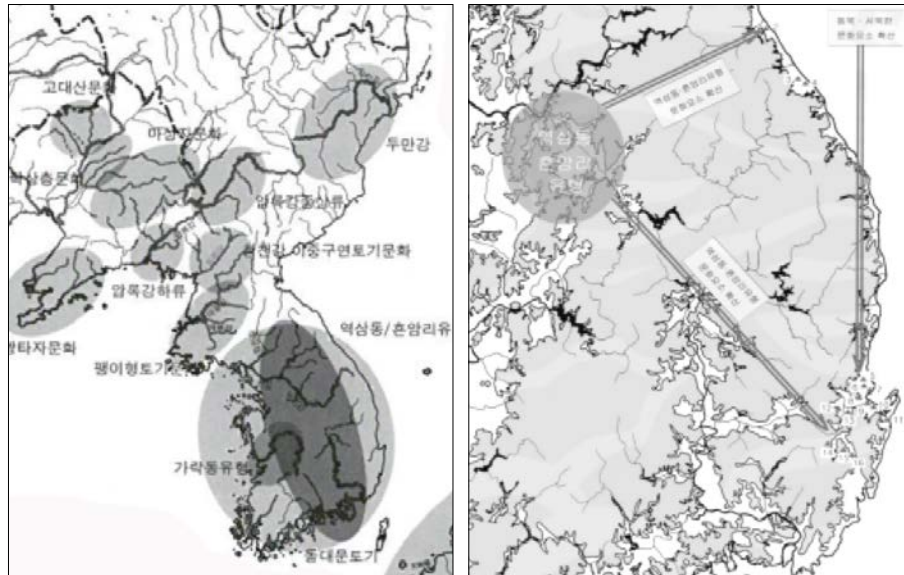
한반도 전기토기는 문양으로 구분된다. 돌대각목문을 비롯하여 이중 구연, 공렬문, 구순각목문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공렬문이나 구순각목문 등은 지역에 따라 후기까지 잔존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기에 집중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양을 가진 토기의 기원지는 대부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 한반도를 벗어난, 혹은 청천강 등 그 주변으로¹⁶ 경주지역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다. 그런 이유로 각종 문양토기들은 南下과정에서 재지 혹은 외래문화와 접변하며 복합화되기도 한다.

<도 2>

좌)동북아시아
청동기시대 토기문화
(천선행 2014, 23쪽)

<도 3>

우)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의 흐름
(박영구 2015, 265쪽)



경주지역이 지리적으로 한반도 남동단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문화의 흐름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타나는 물질문화 즉, 유물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흔히 전기문화유형으로 가락동유형, 혼암리유형, 역삼동유형 등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각 유형의 요소가 경주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문화유형들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한반도, 특히 남부지역에서 드러나는 토기유형의 양상은 <도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대동소이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그 흐름이 일방적 한 방향이냐, 아니면 다양한 경로였냐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경주지역은 지리적 위치나 주변환경을 볼 때, 중부지역에서

16 천선행, 2014, 「토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의 고고학5 - 道具論-』, 서경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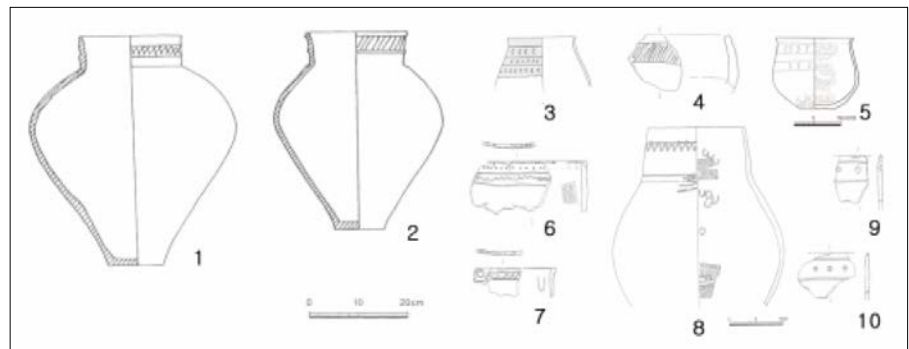
배진성, 2015, 「무문토기문화의 설정과 경계」, 『嶺南考古學』 72號.

호서-낙동강-(대구)¹⁷-영천-경주로 이어지는 경로와 동해안을 따라 포항을 거쳐 형산강으로 이어지는 양 방향을 통해 외부와 이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경로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외부 유입품 중 남한내 분포도가 낮고 외부 지역색이 확연한 외래계로 분류되는 횡대구획문 토기와 유경식석도(동북형석도)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횡대구획문토기는 경주지역 중 형산강 중류역에 해당하는 갑산리유적과 월산리유적 등지에서 확인된다. 횡대구획문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쌍타자 3기의 대표 문양요소이다. 이 문양은 중부지방으로 직접 유입되고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⁸.

<도 4>

- 횡대구획문 각종
1·2:大嘴子
3·4:충주 조동리
5:영주 가흥동
6~8:경주 갑산리
9·10:경주 월산리



한반도내 출토품 중 외반구연에 횡대사선문(도4의 3·5번)은 외래계토기의 전형인 반면 재지계의 심발이나 호형에 사선문(도 4의 4)이나 구순각목문(도 4의 6·7), 공열문(도 4의 9·10)이 새겨진 것은 외래계와 재지계의 결합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주지역의 횡대구획문은 재지계의 요소가 가미된 만큼 전형의 양상을 보이는 중서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본다¹⁹(도 6). 그리고 이렇게 경주지역으로 유입된 토기상은 다시 남쪽지역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17 중부지역(한강유역)에서 경주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낙동강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대구를 경유하지 않고 안동-의성-영천을 경유하는 경로가 더 유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증거로 남한강 상류의 충주 조동리유적의 물질상 일부가 영주 가흥동과 경주 갑산리에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횡대구획문토기나 대부토기, 동북형석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물은 대구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으나 그렇다고 대구지역으로부터의 문화유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이 경로는 후기유적에 해당하는 영천 치산리나 군위 춘산리의 사례로 보아 후기까지도 그대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18 천선행, 2014, 『토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의 고고학5 - 道具論-』, 서경문화사, 32쪽

19 裴眞晟, 2007a,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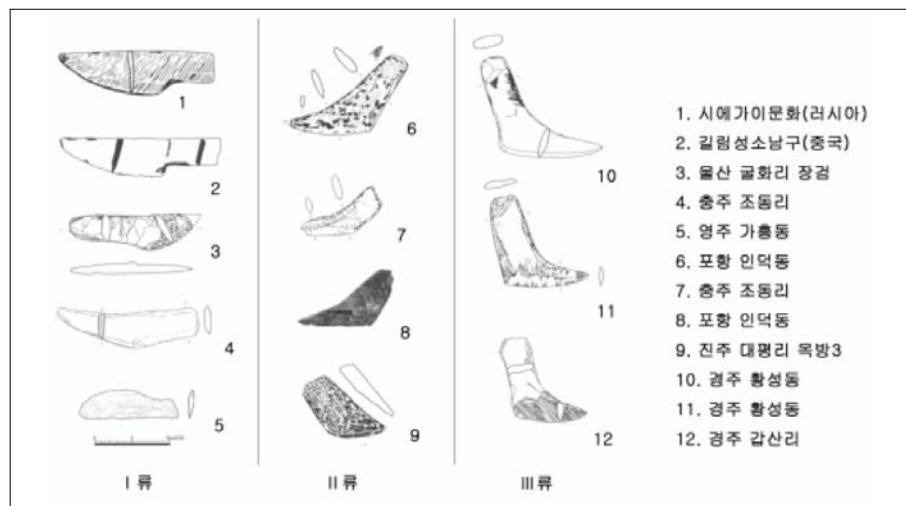
다음으로 외래계 석기 중 ‘동북형석도²⁰’, ‘북방형석도²¹’, ‘이형석도’, ‘ㄱ자형석도’, ‘주걱칼’ 등으로 부르던 유경식석도²²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유물은 그 기원지가 앞서 살펴보았던 횡대구획문토기와 같이 상당한 거리의 외래지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문화적 의미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기원지의 입지나 전달경로, 유물의 의미 등을 통해 유입지 경주의 당시 문화상까지도 유추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유물의 경우 아직 그 정확한 용도를 단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일부 반대쪽의 두께가 얇고 폭이 좁아지는 부분을 자루로 추정한다. 사용흔분석에서도 나무자루의 장착이 감지된 바 있다²³. 일상생활용 나이프²⁴나 동물가죽과 물고기 가공구설²⁵이 제기된 바 있지만 자루가 장착되었을 가능성을 본다면 식량채집구 혹은 수확구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 죠훈시대에도 유사한 형태의 석기를 ‘靑龍刀型石器’라고 부르며 동북지방에만 분포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연어와 송어의 어로관련 도구로 추정한다²⁶.

일단 그 용도가 명확치 않은 만큼 그 형태나 사용흔분석의 결과 나무자루의 연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물의 형태적 속성을 고려한 명칭을 부여하고자 한다.

<도 5>

유경식석도의 분류
(裴眞晟 2007 재편집,
일부 첨가)



20 裴眞晟, 2003,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 32,

21 안재호, 2011, 「墓域式支石墓의 出現과 社會相 -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시대 생업과 묘장의 지역상-」, 『東北亞 靑銅器文化와 支石墓』, 韓國學中央研究院共同研究팀, 70쪽.

22 유명록, 2014, 「석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의 고고학5 - 道具論-』, 서경문화사, 69쪽.

23 高瀬克範, 2011, 「大邱燕岩山・慶州惶城洞遺蹟出土石器の使用痕分析」, 『慶北大學校高古人類學科30周年紀念 考古學論叢』.

24 裴眞晟, 2007b, 「東北型石刀에 대한 小考 - 東海文化圈의 設定을 檢하여-」, 『嶺南考古學』 40,

25 코노넨코, 1978, 「말라야 파우셰치카 유적의 마연석도의 용도에 관해서」, 『고고학유물을 통해서 본 소련 극동의 고대역사』.

26 日本縄文研究會,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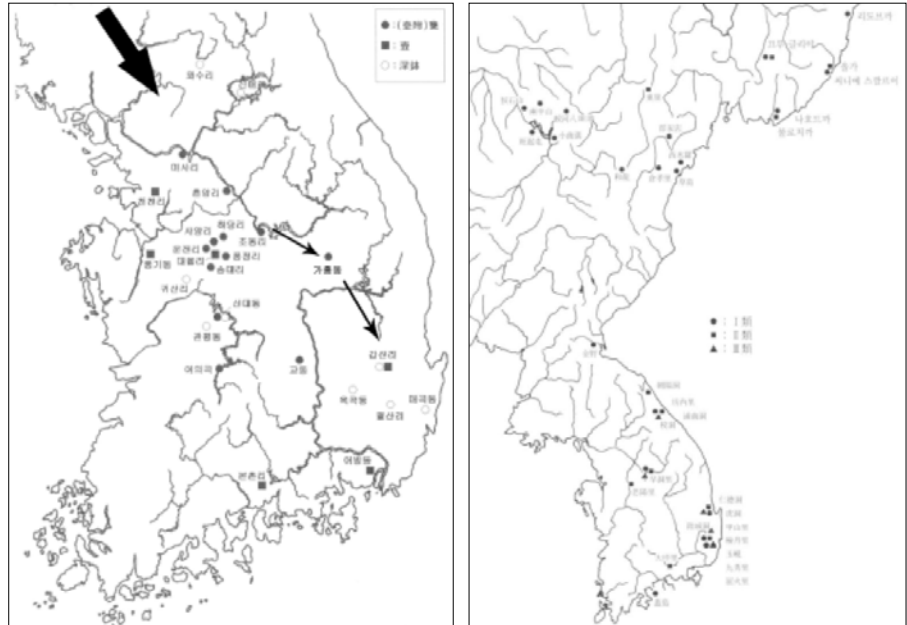
이 유경식석도의 기원지와 지금까지의 분포상(도 7)으로 보면 중국 동북지방의 수계와 연결된 산악지대와 연해주, 그리고 동해안 연안과 태백산맥과 분지한 남해안 연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포상 특징에서 농경보다는 수렵채집적 성격이 강한 유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경주를 포함한 중착지의 분포지역이 수렵채집적 성격이 강한 후기 검단리문화권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²⁷.

<도 6>

좌)황대구획문토기
분포도
(裴眞晟 2007,
60쪽 일부 수정)

<도 7>

우)유경식석도 분포도
(裴眞晟 2007, 8쪽)



한편, 전기의 토기 중 그 기원이 중국 동북지역에 있으면서도 유독 경주를 포함한 태백산맥 동쪽지역에 분포가 되지 않는 일명 ‘가지문토기’라고 하는 채문호가 있다. <도 8>에서와 같이 채문호의 분포지역이 거의 남부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그 기원을 대체로 동북지방 마성자문화에서 구하고 있다²⁸.

그런데, 한반도내 채문토기의 중심지가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지역이지만 전기말부터 점차 그 분포영역이 넓혀져 낙동강 중류역까지 확대되어 경주와 근접하고 있는 대구, 경산, 청도 지역까지 채문호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그럼에도 경주를 포함한 동쪽지역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의 유일한 토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전기의 물질문화 대부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며 경주지역까

27 안재호는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유경식석도를 비롯하여 대형노지, 猪形석기, 중량굽어망추, 함정 등의 조합은 수렵과 어로가 중시된 사회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았다.

안재호, 2011, 앞의 논문, 71쪽.

28 平郡達哉, 2013, 『무덤자료로 본 南韓地域 靑銅器時代 社會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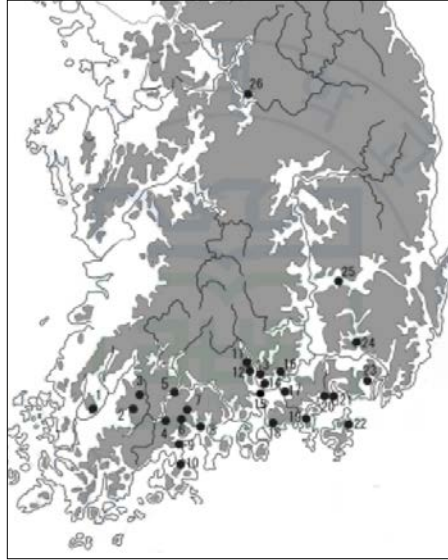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宋永鎮, 2016, 『韓半島 靑銅器時代 磨研土器 研究』,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들은 중국 동북지역과 남부지역과의 중간지대에 관련유적이 거의 전무한 까닭에 해로를 통한 직접적인 연결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도 8>

채문토기 분포도
(平郡達哉 2013, 86쪽)



지 파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채문호의 경우 비록 기원지는 동북지역이지만 한반도내 파급방향은 정반대라는 점이 눈에 띈다. 물론 채문토기의 출토상이 대부분 무덤부장품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전기 무덤이 빈약한 경주 주변지역에 유입될 요소가 많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대구와 청도지역에는 주거지나 수혈에서 출토되는 수량도 적

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시점과 관련된 결과일 수도 있다. 즉 낙동강중류역으로 확산되는 시기가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점은 송국리문화의 확산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송국리문화의 영역에서 제외된 경주 주변은 무덤이 조성됨에도 부장품이나 생활품으로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후기

1) 검단리식토기

앞서도 언급한 바대로 경주지역은 기존 울산을 중심으로 포항까지 아우르는 검단리문화권의 일부인데, 검단리문화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일반적으로 심발기형에 횡선문(날알문)이나 파수가 결합된 토기를 ‘檢丹里式土器’로 명명하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검단리식토기는 <표 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연구자마다 조금씩 그 개념에 차이가 있다.

배진성은 검단리식토기를 검단리유형이라는 큰 범주속에 하나의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그 중 파수가 붙은 심발은 검단리식토기라는 범주내 또 하나의 요소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파수라는 요소를 자체발생이 아닌 두만강유역에서 직접 수용한 결과물로 보았다.

다른 연구자들은 배진성보다 검단리식토기의 범위를 좁혀 문양자체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수토기에 대해서는 천선행도 언급한 바, 4단계(후기 중후반)의 사선문과 파수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던 것이 5단계(후기 후반)에 횡선문과 확실히 결합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울산권역내에도 파수토기 공백지가 있다는 점에서 파수라는 요소보다는

〈표 3〉

검단리식토기에 대한
연구자별 개념정리

연구자	개념	비고
배진성 (2005)	· 검단리식토기 : 울산지역 중기에 단독문인 공열문, 횡선문, 파수부심발형토기 적색마연옹형토기 등 양식화된 토기를 의미 · 석창, 동북형석도, 단면타원형 혹은 방형토제어망추 · 울산형주거지, 방형의 소형석관묘 · 위의 세 부분을 포괄하면 “검단리유형” · ‘파수부심발형토기’: 심발이라는 재지의 기형에 두만강유역으로 직접 ‘파수’라는 요소가 유입(海路)되어 가미	대구는 2차 파급지
이수홍 (2005·2012)	· 중기 후반 이후 난알문의 시문 방향이 사방향→횡방향 · 이 난알문은 복합문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둘러새기는 기법이 새롭게 채택 · 몇 개의 기종이 조합된 토기군은 정체성 모호 · 난알문(단사선문, 횡선문)이 시문된 심발형토기로 한정 · 분포권: 포항-경주-울산-양산-부산	파수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음
김현식 (2006)	· 검단리유형을 가장 잘 나타낼수 있는 요소는 ‘횡선문’ · 검단리식토기 : 혼암리식토기의 단사선문이나 공열문(돌류문) 등의 시문방법이 押捺로 변화하면서 발생한 토기(시문수법의 간략화) · 파수심발, 소형옹, 주형석도, 동북형석도, 타원형 혹은 방형어망추 등은 타 지역에서도 확인(울산 고유의 유물 아닐 가능성) · 횡선문을 가진 검단리식토기와 울산식주거지를 검단리유형의 핵심적 요소로 판단	이수홍의 개념과 유사
천선행 (2006)	· 5단계의 변화과정에서 1·2단계(전기)의 돌류문이 소멸되어 3단계(중기전반)에서는 잔존한 단사선문이 단독문양으로 남아 4단계(중기전후반)에 난알문으로 변화, 그리고 5단계(중기 후반)에 난알문이 최종적으로는 횡방향으로 누워 횡선문으로 변화	5단계에서 횡선문과 파수가 확실히 결합
박영구 (2013)	· 외부유입이 아닌 자체 복합 소멸과정에서 단사선문에 둘러새기는 기법이 새롭게 채택	
배균열 (2018)	· ‘횡선문’과 ‘파수문’을 검단리식토기의 표지적 유물로 파악 · 횡선문의 시원을 울산이 아닌 형산강 중류역(경주 갑산리)으로 추정 · 파수에 대한 의견은 제시 안 됨	배진성의 개념 따름

사선문과 횡선문이 울산의 지역색을 더 잘 보여준다고 보았다²⁹.

이처럼 검단리식토기 정의는 대체로 ‘횡선문(난알문)’과 ‘파수’라는 요소로 집약된다. 전자는 모든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요소인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그런데 이 두 요소의 구체적 발생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된 적이 없었는데 최근 경주와 포항을 아우르는

29 千羨幸, 2006, 『영남지방 무문토기시대 중기로의 문양구성 변화』, 『石軒 鄭登元教授 停年退任 記念論叢』, 釜山考古學研究會.

30 배균열, 2018,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 검토』,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2018년 울산대곡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대회, 76~77쪽.

형산강유역 연구자인 배군열만이 횡선문의 기원지를 경주지역인 형산강 중류역으로 보았다³⁰. 사실 횡선문의 경우 울산과 경주권이 중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구지역과 경산, 청도, 밀양 등 주변지역까지도 파수토기가 적지 않게 확인되며 횡선문 역시도 대구, 경산지역에서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파수토기의 기원을 배진성만이 구체적으로 ‘파수’라는 요소가 외부 지역인 두만강유역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았는데, 김현식은 다른 지역에도 보이는 만큼 울산 고유의 발생품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사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두만강유역과 경주지역 사이 파수요소를 가진 토기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후자에 있어서는 대구를 포함한 송국리문화권에도 파수토기가 상당수 보인다는 점에서 대구와 울산을 연결하는 지역벨트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파수토기와 달리 횡선문의 경우는 전기토기의 단사선문에서 점차 변화된 지역발생 양식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발원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그 분포권이 검단리문화권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울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주목하였지만 최근 대구나 경산지역에도 횡선문이 확인되고 있어 배군열이 경주지역에서의 발생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도 9>에서 보듯이 대구 괴전동 125번지유적 24호 주거지 사례에서 보듯 전기요소가 있는 구순각목토기와 단사선문계의 변화형식이 낯알문에 가까운 문양토기와 공반되고 있다.

구순각목문은 대구지역에서 단독문으로서 이른 시기부터 출토³¹되며, 돌대각목문을 제외³²한 다른 대부분의 문양과 복합문 혹은 단독문

31 평면 방형에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시지동 Ⅱ-1호에서는 구순각목문발이, Ⅱ-2호에서는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를 상촌리식토기를 설정하여 초기로 설정한 배진성의 연구가 있다.

裴眞晟, 2003,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 32.

32 김현식은 구순각목문의 기원에 대해 돌대각목문에서 돌대가 퇴화하여 발생한 문양으로 인식하였고, 안재호는 김현식과 같은 견해선상에서 수당리 6호 출토품과 같은 구순각목 형태를 각목돌대문의 ‘최종 퇴화형’으로 보았다. 사실 구순각목문이 다른 문양 토기들과는 달리 한반도 외부의 특정 토기문화와 연계되는 문화적 계통의 산물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형원이 언급한 바 있다.

김현식, 2008, 『호서지방 전기 무문토기 문양의 변천과정 연구』, 『嶺南考古學』 44.

안재호, 2009,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李亨源, 1998, 『口脣刻目土器의 變遷과 性格에 대하여 - 無文土器를 中心으로 -』, 『百濟研究』 28.

33 류선영, 2013, 『금호강유역 전기 무문토기의 편년』, 『嶺南考古學』 64.

구순각목문은 전체 단독문토기 중 70% 정도를 차지한다.

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토기이자 장기간 존속토기³³이다. 따라서 대구지역의 경우 구순각목문을 후기에까지 존속하는 토기로 본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듯이 대구지역에 확실히 후기로 볼 수 있는 송국리형주거지내 구순각목문토기 출토 사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출토된 유물 중 완형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시기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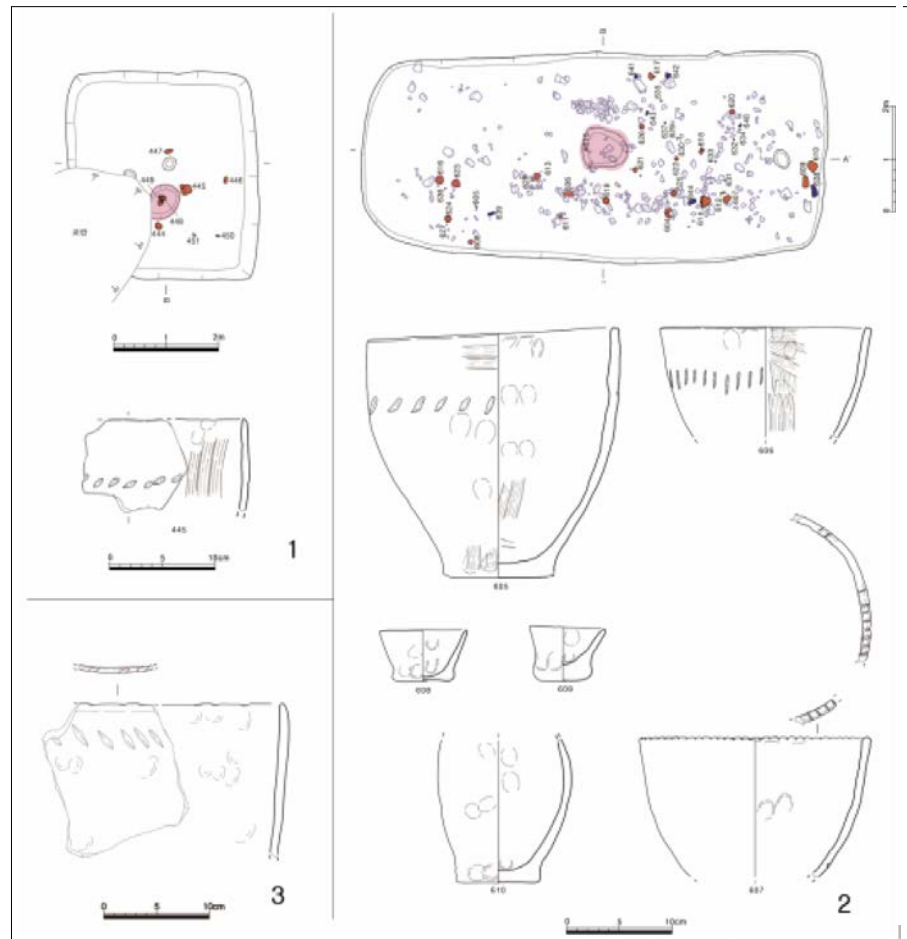
대구지역
송국리형주거지내
구순각목문토기
출토사례
(~2018년 말 발간 보고서)

구분	유적명	유구	기종	공반유물
월배 선상지 유적군	상인동 119-20	5호 주거(원형, 지좌리식)	발형편	
	상인동 128-8	16호 주거(원형, 송국리식?)	발형편(내부토)	
	월성동 1275	9호 주거(원형, 중앙수혈1)	구순각목파수발편	
	월성동 585	6호 주거(원형, 오곡리식)	발형편	
	월성동 591	3호 주거(원형, 오곡리식)	구순각목돌류 단사선문발형편	
	유천동 103	F3호 주거(원형, 오곡리식)	발형편	
신천	상동 89-2	18호 주거(방형, 서변동식?)	발, 호	
금호강 이북	동천동유적	57호 주거(원형, 오곡리식?)	편	석촉
		3호 구	발형편	파수발, 일단경촉, 장방석도편

<도 9>

대구·경산지역의
횡선문 출토 사례
(유구 1/60, 유물 1/6)

1·2:대구 괴전동
125유적 19호·24호
주거지
3:경산 대학리 51-1
유적 구 3호 내부



검단리식토기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에 대한 기원이나 확산에 대한 것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중요한 점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후기 토기의 양상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발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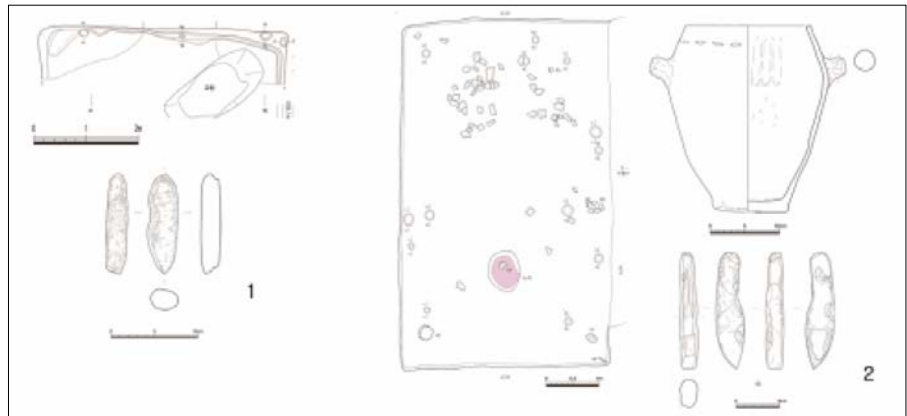
2) 석기유물상

경주지역에서 주목되는 후기의 석기유물로는 유구석부와 부리형석기이다. 유구석부는 알려진 것과 같이 검단리문화권과 대비되는 송국리문화(유형)의 중요요소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경주를 비롯한 울산 지역에 유구석부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출토된다는 사실에서 앞서 검토하였던 검단리식토기의 파수나 횡선문 요소와 같이 문화권을 초월하여 당시 물질문화상으로는 연계가 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징표로 볼 수 있다.

〈도 10〉

경주지역 유구석부
출토사례
(유구 1/100,
석기 1/8, 토기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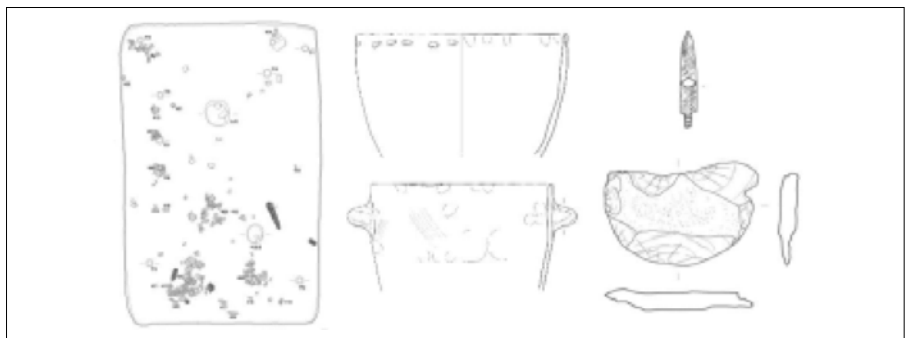
- 1: 문산리 D구역,
2: 광명동 Ⅱ-3호
주거지



그런데, 〈도 10〉에서 보듯이 유구석부의 출토 사례도 매우 빈약하지만 형태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모습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타 지역의 물질문화의 수용에 있어 그 기본적인 형태는 수용하면서 자기 지역 색에 맞는 형식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

〈도 11〉

경주 산대리 6호
주거지 출토유물



34 이와 관련해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전형적인 검단리식토기로 인정되는 파수가 붙은 횡선문 토기와 연관성이 있는 구순각목문파수토기나 공렬문파수토기이다. 검단리식토기의 기원과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면이 필요하여 다음 기회로 넘긴다.

부리형석기는 송국리문화권에서는 전기 후반부터 출현하여 후기까지 계속되는 유물인데, 경주지역에서는 그 사례가 역시 빈약하고 출토된 유적의 연대도 후기로 판단된다(도 11).

이상으로 후기 경주지역 유물의 양상을 살펴보면 토기나 석기 모두 그 인근에서 개시되거나 유입된 것으로 전기와 차이가 확연함을 알 수 있다. 즉 전기 이래 문화적으로 축적된 역량에 의해 자체적으로 발전하면서도 인근 지역의 물질문화는 그 내부의 상황에 맞게 선별적인 선택을 통해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청동기시대 문화의 교차로 경주

경주지역이 한반도내 동쪽에 치우쳐 있고 북쪽으로는 한반도의 척추인 태백산맥에 가로막혀 선사시대에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³⁵도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청동기시대 유적의 수나 문화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지형적으로도 경주 북쪽의 태백산맥이 동서 양쪽의 문화를 가로막고 있지만, 오히려 이 문화들이 다른 지역과 이어주는 표식물이 되어 경주라는 지점으로 도달하게 만들어 준다. 즉, 지형 장애물이 길이 되어주는 형국이다.

앞에서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경주지역의 문화상을 살펴보았는데, 시기별로 각기 그 차이가 분명함을 알 수 있었다. 전기에는 북방에서 내려오는 물질문화가 각기 한반도 내륙과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경주라는 거점을 지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로 경주에는 시기적으로 早期로 명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른 물질문화는 물론 한반도 전역에서 확인되는 전기의 일반적인 문화상 역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었다. 거기에 더해 일부 북동지역에서 발현한 것이 확실한 횡대구획문토기나 유경식석도 같은 환동해안 문화요소까지도 먼 길을 따라 내려왔음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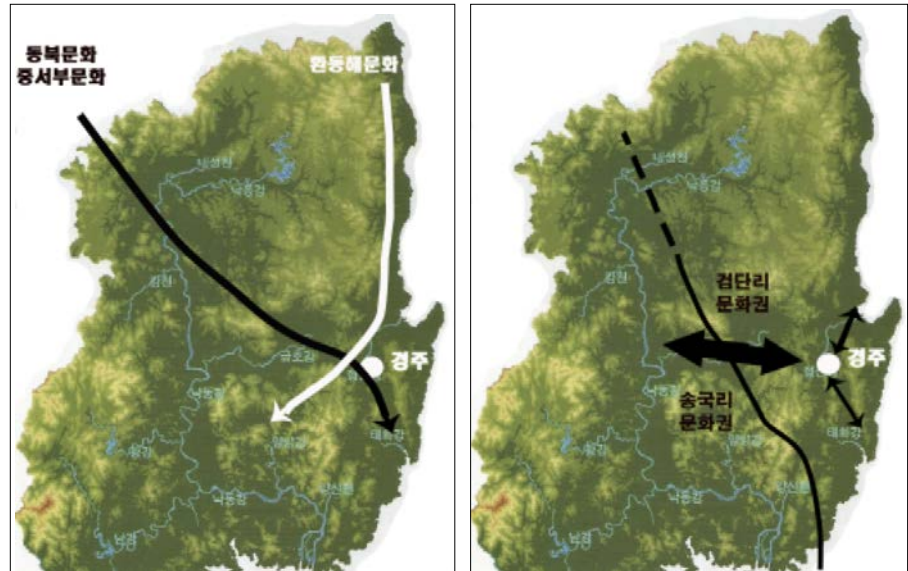
후기에는 전기와 달리 전기의 축적된 문화적 토양 위에 자체적인 문화상을 발현시켜 검단리문화권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거기에 지리적

35 손호성·전상옥, 2009, 앞의 논문, 11쪽.

〈도 12〉

좌) 전기 경주지역과
문화양상

〈도 13〉

우) 후기 경주지역과
문화양상

그런데, 본고의 주제가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라 같은 문화권내에서 기존 검단리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울산 태화강 유역과 비교해 형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경주지역에 이제 울산에 버금갈 규모의 유적과 유물이 확인된 만큼 서로간의 관계정립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유적입지상으로 형산강유역이 태화강유역보다 더 너른 평야지를 형성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생계전략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판단되나 현재까지 형산강유역에서 농경과 관련한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평지의 비율이 낮은 태화강유역에서는 좁은 곡간을 개척한 소규모 농경지가 여럿 확인된 점에서 오히려 형산강유역 생계방식은 향후 추가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유물상으로도 태화강유역과 형산강유역간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후기에 서서히 검단리문화가 정립된 태화강유역에서는 토기의 문양이 단사선에서 횡선문으로의 변화상이 뚜렷한 반면 형산강유역은 혼암리식 토기군에서 복합문요소가 소멸함과 함께 횡선문이 갑자기 등장한다. 이를 검단리문화가 순식간에 형산강유역에 그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로 보기도 하는데, 전기 이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문화

전파의 양상에 비해 후기들어 주변과의 수평적인 문화소통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일반들에게 경주는 지금부터 약 천 오백년 전 신라라는 고대국가의 수도로서만 인지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경주를 있게 한 밑바탕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것은 아마도 신라라는 특정 시대의 문화재조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그 이전 시대의 문화재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도 크다.

이제 왕경지를 벗어난 주변의 대단위 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부터 경주에는 엄청난 수의 취락이 존재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검단리문화권의 중심이라는 인근 울산의 명성에 도전할 정도가 되었다.

다만, 그렇게 많은 청동기시대의 유적에서 아직까지 시대명에 걸맞은 ‘靑銅器’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여전하다. 그럼에도 본 논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먼 지역으로부터의 문화파급을 가능케 한 여러 연결로는 청동기시대 이후 새로운 문화파급과 연결되어 그렇게도 고대하던 청동유물과 다양한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될 수 있었던 지름길이 되었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천년수도 경주가 역사속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남겨질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참고문헌

- 국립청주박물관, 2019, 『한국의 청동기 자료 집성Ⅲ』.
- 金承玉, 2000, 「호남지역 마한 주거지의 편년」, 『湖南考古學報』 11.
- 김현식, 2006,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형성과정과 출현배경 - 주거지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第54號.
- 김현식, 2008, 「호서지방 전기 무문토기 문양의 변천과정 연구」, 『嶺南考古學』 44.
- 都英娥, 2007,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생업에 대한 검토」, 『文化史學』 27號.
- 裴君烈, 2015, 「형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배균열, 2018,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 검토」,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2018년 울산대곡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대회.
- 裴眞晟, 2000, 「韓半島 柱狀片刃石斧의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裴眞晟, 2003,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 32.
- 裴眞晟, 2007a,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裴眞晟, 2007b, 「東北型石刀에 대한 小考 - 東海文化圈의 設定을 檢하여-」, 『嶺南考古學』 40.
- 배진성, 2015, 「무문토기문화의 설정과 경계」, 『嶺南考古學』 72號.
- 류선영, 2013, 「금호강유역 전기 무문토기의 편년」, 『嶺南考古學』 64.
- 孫峻鎬, 2003, 「磨製石器 分析을 통한 寬倉里遺蹟 B區域의 性格 檢討」, 『韓國考古學報』, 第51輯.
- 孫峻鎬, 2006, 「韓半島 青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孫峻鎬, 2008, 「石器 組成比를 통해 본 青銅器時代 生計와 社會經濟」, 『韓國青銅器學報』, 3號.
- 손준호, 2014, 「도구의 사용과 생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 道具論-』,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2.
- 손호성·전상욱, 2009,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 - 경주권역 주거지의 분류와 시기설정-」, 『성립고고논총』 창간호, 34쪽.
- 宋永鎮, 2016, 「韓半島 青銅器時代 磨研土器 研究」,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輯.
- 안재호, 2009,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안재호, 2011, 「墓域式支石墓의 出現과 社會相 -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시대 생업과 묘장의 지역상-」, 『東北亞 青銅器文化와 支石墓』, 韓國學中央研究院共同研究팀.
- 俞炳球, 2006, 「一名 ‘부리형석기’ 用途에 대한 小考」, 『石軒鄭登元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釜山考古學研究會.
- 유명록, 2014, 「석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의 고고학5 - 道具論-』, 서경문화사.
- 윤호필, 2018,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생계」,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2018년 울산대곡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대회, 106쪽.
- 李度炫, 2014, 「형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이기성, 2008, 「일본 조몽·야요이 전환기의 석기 변화」, 『韓國上古史學報』.
- 李亨源, 1998, 「口唇刻目土器의 變遷과 性格에 대하여 - 無文土器를 中心으로-」, 『百濟研究』 28.
- 趙賢庭, 2001, 「蔚山型住居址의 研究」, 慶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千羨幸, 2006, 「영남지방 무문토기시대 중기로의 문양구성 변화」, 『石軒 鄭登元教授 停年退任 記念論叢』, 釜山考古學研究會.
- 천선행, 2014, 「토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의 고고학5 - 道具論-』, 서경문화사.
- 平郡達哉, 2013, 「무덤資料로 본 南韓地域 青銅器時代 社會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高瀬克範, 2011, 「大邱燕岩山·慶州惶城洞遺蹟出土石器の使用痕分析」, 『慶北大學校高古人類學科30周年紀念 考古學論叢』.
- 코노넨코, 1978, 「말라야 파우쉐치가 유적의 마연석도의 용도에 관해서」, 『고고학유물을 통해서 본 소련 극동의 고대역사』.

‘경주지역 출토 청동기시대 토기와 석기양상’에 대한 토론문

정인성
영남대학교

발표문은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의 토기와 석기의 특징과 그 변천을 분석한 내용이다. 발표자 유병록 선생님은 오랫동안 현장과 연구실에서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를 연구해온 전문가답게 경주지역의 양상을 잘 정리했다. 발표문은 선행연구를 검토한 다음 시기별로 물질문화의 변화와 함의를 추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경주를 다양한 외래문화와 재지문화가 교차하는 열린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먼저 발표자는 경주지역 청동기시대의 특징으로 청동기가 없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는 비단 경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역의 청동기시대 특징이기도 하다. ‘청동기가 없는 청동기시대’라는 역설적인 상황은 ‘청동기 연구가 극히 드문 청동기시대 학회의 연구분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발표자가 말하는 것처럼 경주지역의 경우에도 청동기시대에는 청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후행하는 초기철기시대 이후가 되어서야 청동기가 출토된다. 일제강점기의 금석병용기에서 분화되어 한국고고학의 시대구분명이 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는 많은 양의 청동기가 출토된다. 그러나 ‘초기철기시대’라는 시대명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시기는 초기부터 철기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근년 한국고고학이 쌓아올린 조사 성과를 살피건데 철기가 없는 즉 청동기만 출토되는 단계가 인정되며 원형점토대토기만이 출토되는 시기도 있다.

관련하여 발표자에게 질문드리고자 한다. 철기가 없는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나 세형동검 만이 출토되는 시기는 ‘초기철기시대’인가 ‘청동기시대’인가? 만약 세형동검 문화를 청동기시대로 재설정한다면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이 ‘청동기가 있는 청동기시대’가 된다. 아울러 송국리문화권에 비하여 경주를 포함하는 검단리 문화권에 청동기가 더욱 빈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취락의 입지와 석기조합의 변천을 통한 생계방식의 변화를 살피는 선행연구를 비판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의 종류별 석기자료의 용도에 대한 이해부족을 신랄하게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도 부리형석기의 굴지구설을 비판하고 의례구로 평가하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부리형석기를 실생활 석기가 아니라 의례용으로 판단하는 고고학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추가 설명을 부탁한다. 유경식 석도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다양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있을 뿐 분명하게 용도를 밝히지 않았다. 생계 형태와 관련된 해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일 것인데 이를 나무자루와의 결합일 것으로 단정하였다. 연암산 석기의 분석결과를 참고한 듯한데 이것만으로 유경식석도 전체의 착장가능성으로 일반화 할 수 없다. 보완설명을 부탁드린다.

가지문토기 즉 채문토기가 경주지역에 없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송국리문화 영역에서 제외된 경주라는 점과 연결해서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문화권을 넘어서 유통되는 토기, 석기의 존재도 지적하고 있다. 유구석부는 송국리문화권에서 수용된 문화이나 경주지역에서 변용된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마제석검 류의 광역 유통망을 제기하는 연구를 상기할 때 채문토기는 남해안의 특정 취락에서 대구·경산지역으로 교역된 토기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대구, 경산을 포함하는 개별 취락에서도 자체적으로 생산되었던 토기로 보아야 하는가? 채문토기 지역성연구와 함께 보충설명을 부탁드린다.

청동기시대 후기는 서북과 동북한 지역에서 각기 유입된 문화요소의 토대 위에 자체적으로 문화를 발현시켜 김단리문화권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송국리문화권과 연결되는 교섭창구라는 표현도 하였다. 교섭창구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대부분 지역이 송국리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변모했지만 경주지역은 생계방식을 유지했다고 하였다. 생계방식을 유지한 중요한 이유는 당시 경주지역이 제한된 농경을 바탕으로 한 수렵과 어로가 가장 적합한 생계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환경결정론에 가까운 결론인데 이 발표문의 가장 핵심적인 정리이다.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 시기 곡간과 수변을 이용한 농경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대구나 청도, 울산 등지와 경주의 자연환경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연환경이라는 요소보다는 오히려 형산강과 태화강을 따라서 동해안 지역과 용이하게 연결되는 지리적인 요인, 즉 생활권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는지 않았을까?

윤형규
삼한문화재
연구원

검단리문화권 내 묘역지석묘의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

I. 머리말

무덤은 기본적으로 시신의 처리에 필요한 구조물로서 그 이면에는 축조에 동원되는 기술 및 노동력 등을 통해 물질문화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장송의례에 따른 종교적 관습 및 사후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고고자료로서 당대 경제력의 표출이면서 동시에 피장자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행위인 것이다. 특히 집단의 생계 전략 및 활동과 배치되는 비생산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볼 때 축조에 반영되는 다양한 요소의 차이를 통해 작게는 매장방식을 비롯해 피장자의 신분 및 성격에서부터 나아가 당시 사회·문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활용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에서는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취락의 발달과 함께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면서 크게는 이른바 송국리와 검단리 문화유형으로 양분되기 시작한다. 이 가운데 묘역지석묘는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통해 무덤의 구조를 바탕으로 당시 집단의 매장관습과 함께 경관으로서의 상징적 의미, 축조에 따른 사회경제적 상호작용 등과 같이 당시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매개체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또한 대체로 송국리문화의 영향이 강한 영남내륙 및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주분포권이 형성되면서 검단리문화권 내 무덤과 대비되는 지표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다만 근래에 들어 검단리문화권에 속하는 포항·경주·울산 지역에서도 점차 조사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 타 지역과의 교류 또는 전파에 따른 다양한 사회 관계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일정한

규칙으로 조합되는 특정사회 속으로 타 지역의 요소가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고자 그 대상물로서 묘역지석묘와 검단리 문화권 내 주요 묘제를 비교·검토하였다.

II. 무덤의 분포와 단계설정

1. 분포 및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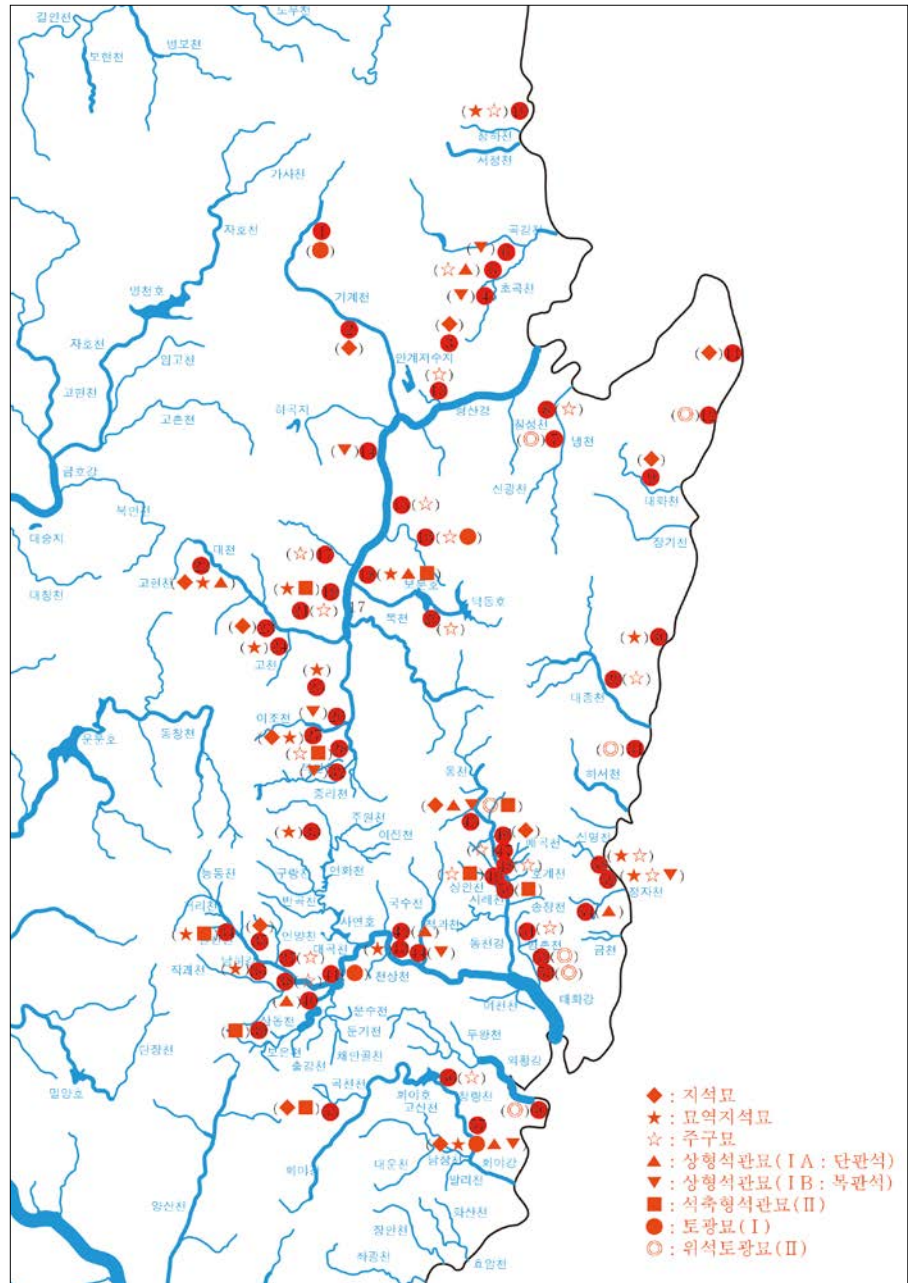
무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먼저 일정한 영역 내 자연환경 및 지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략의 분포 범위와 입지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당시 집단의 생계 방식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백두대간의 태백산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낙동강 하구가 위치한 부산의 다대포 부근까지 연결된 이른바 낙동정맥의 남동부에 자리한다. 세부적으로는 산줄기 가운데 단석산(827m)에서 가지산(1,240m)으로 이어지는 지맥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을 따라 형성된 크고 작은 계곡부에 의해 발원한 형산강과 태화강이 지역 내 주요 수계권을 형성한다. 먼저 형산강은 울주군에서 북쪽의 경주분지를 따라 흐르다 안강읍에서 동류하여 다시 포항의 영일만을 거쳐 동해로 합수한다.(배균열 2017: 24) 그리고 태화강은 울산 서부의 고산지에서 동쪽의 상류에 해당하는 언양분지를 지나면서 주변 소지류천과 합수한 뒤 동쪽으로 흐르다 하구 부근에서 다시 북쪽의 동천과 만나 울산만으로 유입된다.(윤호필 2018: 94) 이 밖에 경주 토함산(745m)을 최고봉으로 하여 남-북으로 형성된 해안산맥의 서쪽 저지대를 따라 발달한 이른바 형산강지구대가 울산만-동천강-경주분지-안강분지-신광분지-청하-영해까지 이어져 있다.(권혁재 1995) 그리고 남쪽에는 이른바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영남 동남부 지역의 주요 분수령 가운데 하나로 경남 양산시에 자리한 천성산(920.1m)에서 발원한 회야강이 울주군의 온산읍과 서생면을 거쳐 동해로 흘러든다.

우선 포항지역에서 조사된 무덤은 타 지역에 비해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체로 저구릉성 산지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직접 흘러드는 청하천, 초곡천, 냉천, 대화천을 비롯해 형산강 하류를 따라 기계천과 일부 동해안가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 중 초곡천변의 구릉

<도 1>

대상지역 수계권 내
무덤의 분포
(번호는 <표 2>와 동일)



일대에 자리한 학천리 유적에서 5기의 무덤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냉천 일대의 호동 유적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자리한 구릉의 사면을 따라 주구묘 6기가 확인되었다. 이 밖에는 대체로 1~2기 가량의 무덤이 하천 주변의 구릉을 따라 입지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최근에 조사가 진행된 조사리 유적에서는 동해안을 비롯해 주변 저지대를 조망할 수 있는 구릉 정부를 중심으로 묘역지석묘와 주구묘 각 1기가 인접하여 확인되었다.

경주지역은 형산강을 비롯해 그 지류에 해당하는 신당천, 소현천, 북천, 대천, 고천, 이조천, 북안천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입지는 대체로 하천 주변의 구릉을 비롯해 형산강과 주변 지류천 일대의 충적지를 중심으로 취락 내 주거군과 인접하여 1~2기 가량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대규모의 묘역지석묘군이 조사된 경주 도계리지

석묘군Ⅱ 유적은 경주의 서쪽 외곽에 자리한 대천 일대의 곡간충적지에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형산강변의 충적대지에 자리한 황성동 유적과 동해안가의 곡간충적지에서 조사된 경주 전촌리 유적에서도 다수의 묘역지석묘가 확인되었다.

울산지역은 크게 남하강 및 주변 지류를 포함하는 태화강 중·상류와 동천 주변 일대를 비롯해 회야강 및 동해안 주변의 소하천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지는 주로 하천변의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1~2기 가량의 무덤이 주거군과 인접하여 배치된 경우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길천리, 연암동, 매곡동, 산하동, 덕신리 유적 등과 같이 5기 이상의 무덤 및 관련시설이 서로 군집을 이루는 유적들은 모두 충적지와 해안단구면 일대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연암동과 매곡동 유적에서는 주구묘가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유적은 모두 묘역지석묘 또는 묘역시설로 판단되는 석렬유구가 확인된 유적이다¹.

이상 살펴 본 무덤의 입지는 전체적으로는 구릉지대를 따라 편중된 현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1~2기 가량의 소규모 무덤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태화강과 같이 하천의 규모와 수량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충적지형 발달이 미약하였거나(李秀鴻 2012) 또는 포항·울산 지역과 같이 내만환경(內灣環境)에 따른 동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가능성(윤호필 2018: 94-95)이 있다. 따라서 무덤을 비롯해 전체적인 취락의 발달 또한 대체로 이러한 지형적 요인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표 1〉

대상지역 무덤의
입지 비교
(: 상위 3개 입지)

대상	입지	구릉 정부	구릉 사면부	구릉 말단부	하천변충 적지	곡간 충적지	해안 단구면	계(%)
지역	포항	3 (21.5)	5 (35.7)	3 (21.5)	2 (14.2)	0 (0)	1 (7.1)	14 (100)
	경주	1 (4.8)	4 (19)	5 (23.9)	4 (19)	7 (33.3)	0 (0)	21 (100)
	울산	8 (24.2)	8 (24.2)	7 (21.2)	6 (18.2)	3 (9.1)	1 (3.1)	33 (100)
묘역지석묘		1 (6.7)	0 (0)	7 (46.6)	4 (26.7)	3 (20)	0 (0)	15 (100)
5기 이상의 무덤군		0	2 (12.5)	4 (25)	5 (31.2)	4 (25)	1 (6.3)	16 (100)

1 울산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가운데 울산 산하동·산하동 화암 고분군, 울주 덕신리 572-6 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석렬유구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파괴가 심하여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으나 유적 내에서 기타 무덤들과 함께 일정한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묘역의 축조방법과 동일한 양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묘역지석묘와 관련된 성격으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다만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묘역지석묘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무덤군의 규모가 큰 유적은 비교적 정착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하천 주변 또는 구릉과 평지의 경계를 따라 펼쳐진 충적지형을 더욱 선호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지에 따라 생계방식의 차이가 반영된다는 것(김도현·이재희 2004)을 일부 인정한다면 적어도 구릉지를 중심으로 한 수렵·채집의 생계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양조건을 갖춘 충적지를 바탕으로 한 농경사회의 발전에 따라 무덤군의 규모 또한 연동하여 확대되었을 가능성 또한 염두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

검단리문화권 내
무덤 현황

지역	연번	유적	유역	입지	무덤		참고
					구조	유적 내 배치	
포항	1	대곡리	기계천	하천변충적지	옹관묘(1)	주거군 내 단독	성림문화재 연구원 2011
	2	성계리	기계천	하천변충적지 및 구릉 정부	지석묘(14)	지석묘(14)	국립박물관 1963
	3	달전리	초곡천	구릉말단부	지석묘(8)	군집-열상	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 1994
	4	학천리	초곡천	구릉사면부	상형석관묘(5)	주거군無 군집- 열상	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2002
	5	초곡리	초곡천	구릉사면부	주구묘(1) 상형석관묘(1)	주거군 외역 단독	영남문화재 연구원 2014
	6	마산리	초곡천	구릉말단부	상형석관묘(1)	주거군無 단독	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2005
	7	원동 2지구	냉천	구릉정부	위석형토광묘(1)	주거군 외역 단독	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2008
	8	호동 I	냉천	구릉사면부	주구묘(1)	주거군 외역 단독	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2005
		호동 II		구릉사면부	주구묘(5)	주거군 내 단독	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2008
	9	신계리	대화천	구릉말단부	지석묘(상석)(1)	주거군無 단독	세종문화재 연구원 2015
	10	조사리	동해안	구릉정부	묘역지석묘(1) 주구묘(1)	주거군無 단독	삼한문화재 연구원 2020
	11	강사리	동해안	해안단구	지석묘(1)	주거군無 단독	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2008
경주	12	삼정 1리	동해안	구릉사면부	위석형토광묘(1)	주거군 내 단독	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2007
	13	유금리	형산강 하류	곡간충적지	주구묘(2)	주거군 내 군집	성림문화재 연구원 2013
	14	갑산리	형산강 하류	구릉정부	상형석관묘(1)	주거군 내 단독	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2006
	15	신당리	형산강 중류	구릉사면부	주구묘(2)	주거군 외역 군집	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2004
	16	동산리	신당천	구릉말단부	주구묘(4) 토광묘(1)	주거군 외역 단독 및 군집	신라문화유산 연구원 2010
	17	금장리	소현천	곡간충적지	주구묘(1)	주거군 외역 단독	성림문화재연구 원 2015
	18	황성동 575	형산강 중류	하천변충적지	석축형석관묘(1)	주거군無 단독	영남문화재연구 원 2010
		황성동 537-2	형산강 중류	하천변충적지	상형석관묘(1)	주거군無 단독	한국문화재보호 재단 2001
		황성동 III	형산강 중류	하천변충적지	묘역지석묘(6)	주거군 외역 군집-열상-연접	경북대학교 박물관 2000
	19	석장동	형산강 중류	곡간충적지	묘역지석묘(1), 석축형석관묘(2)	주거군 외역 군집	계림문화재 연구원 2012
	20	천군동	북천	곡간충적지	주구묘(1)	주거군 내 단독	성림문화재 연구원 2012
	21	도계리	대천	곡간충적지	묘역지석묘(49) 지석묘(6) 상석(5) 상형석관묘(1)	주거군 외역 군 집-열상·환상- 연접	삼한문화재 연구원 2015

지역	연번	유적	유역	입지	무덤		참고
					구조	유적 내 배치	
경주	22	충효동	충효천	곡간충적지	주구묘(6)	주거군 내 군집	신라문화유산 조사단 2009
	23	방내리	대천	구릉말단부	지석묘(5)	주거군無 군집	국립문화재 연구소 1995
	24	화천리	고천	구릉말단부	주구묘(4) 묘역(제단)시설(1)	주거군 내 군집	영남문화재 연구원 2015
	25	화곡리	화곡천	구릉말단부	묘역(제단)시설(1)	주거군無 단독	성림문화재 연구원 2008
	26	덕천리	이조천	범람원	상형석관묘(1)	주거군 내 단독	영남문화재 연구원 2008
	27	상신리	이조천	구릉말단부	묘역지석묘(1) 지석묘(3)	주거군無 군집	국립박물관 1964
	28	월산리 산37-1	형산강 상류	구릉사면부	주구묘(1) 석축형석관묘(1)	주거군 내 단독	영남문화재 연구원 2006
	29	어일리	대종천	구릉사면부	주구묘(4)	주거군 내 군집	신라문화유산 연구원 2013
	30	전촌리	동해안	곡간충적지	묘역(제단) 시설(7)	주거군無 군집-열상·연접	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2015
	31	봉길리	동해안	구릉사면부	위석형토광묘(1)	주거군 내 단독	영남문화재 연구원 2005
	32	활천리 서당	북안천	구릉정부	상형석관묘(1)	주거군 외역 단독	한국고물연구원 2015
울산	33	서하리	마병천	구릉말단부	묘역지석묘(1)	단독	영남문화재 연구원 2001
	34	김천리	남하강	하천변충적지	묘역지석묘(4) 석축형석관묘(1)	주거군 외역 군집-열상-연접	동양고물 연구원 2013
	35	향산리 청룡	태화강 상류	곡간충적지	지석묘 상석(1)	주거군無 단독	울산문화재 연구원 2003
	36	교동리 수남	작괘천	하천변충적지	(묘역?)석축형 석관묘(1)	주거군無 단독	울산문화재 연구원 2005
	37	서부리 남천	태화강 상류	하천변충적지	주구묘(1)	주거군 내 단독	울산발전 연구원 2003
	38	신화리	태화강 중류	하천변충적지	주구묘(1)	주거군 외역 단독	경남문화재 연구원 2007
	39	조일리	보은천	구릉정부	석축형석관묘(1)	주거군無 단독	유병일 2002
	40	구수리 대암	태화강 중류	구릉말단부	상형석관묘(1)	주거군 외역 단독	울산문화재 연구원 2009
	41	굴화리	태화강 중류	구릉사면부	토광형(1)	주거군 외역 단독	중앙문화재 연구원 2006
	42	다운동 새각단	태화강 중류	구릉사면부	상형석관묘(1)	주거군 외역 단독	중앙문화재 연구원 2013
	43	다운동 운곡	태화강 중류	구릉말단부	묘역지석묘(2)	주거군 외역 군집	창원대학교 박물관 1998
	44	다운동 436-5	태화강 중류	구릉말단부	상형석관묘(1)	주거군 내 단독	울산문화재 연구원 2008
	45	문산리	동천	구릉정부 및 사면부	지석묘(1) 상형석관묘(7) 위석형토광묘(1) 석축형석관묘(4)	주거군 내 단독 및 군집	성림문화재 연구원 2011 신라문화유산 연구원 2011

지역	연번	유적	유역	입지	무덤		참고
					구조	유적 내 배치	
울산	46	중산동 715-1	동천	곡간층적지	지석묘(2)	주거군無 군집-열상	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47	중산동 약수 I	동천	구릉정부	주구묘(1)	주거군 외역 단독	울산문화재연구원 2005
	48	매곡동 신기 I	동천	곡간층적지	주구묘(8)	주거군 외역(중앙) 군집 및 일부 중복	울산문화재연구원 2006
	49	천곡동 가재골 I	동천	구릉사면부	주구묘(1)	주거군 내 단독	울산문화재연구원 2007
		천곡동 가재골 III		구릉정부 및 사면부	주구묘(2) 석축형석관묘(1)	주거군 내 단독 및 군집	울산문화재연구원 2009
	50	달천	동천	구릉 정부	석축형석관묘(1)	주거군無 단독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51	연암동	동천	하천변층적지	주구묘(8)	주거군 내 군집	울산대학교 박물관 1999 부경대학교 박물관 1999 울산발전연구원 2003
	52	상연암	동천	구릉사면부	위석형토광묘(1)	주거군 외 단독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53	효문동 산68-1	동천	구릉정부	위석형토광묘(1)	주거군無 단독	대동문화재연구원 2011
	54	신현동 황토전	정자천	구릉정부	상형석관묘(2)	주거군 내 군집	울산문화재연구원 2003
	55	검단리	곡천천	구릉사면부	지석묘(2) 석축형석관묘(1)	주거군 외역 군집	부산대학교 박물관 1990
	56	동천리	회야강	구릉말단부	주구묘(1)	주거군 내 단독	울산문화재연구원 2006
	57	덕신리	회야강	하천변층적지	묘역지석묘(1) 지석묘(상석)(2) 묘역(석열)시설(6) 토광묘(1) 상형석관묘(9) 석축형석관묘(3) 숫대(3)	주거군 외역 군집-열상	울산발전연구원 2004 울산발전연구원 2011 동서문물연구원 2013
	58	산하동 화암	동해안	해안단구	주구묘(5)	주거군 내 군집	울산발전연구원 2011
		산하동 화암 고분군		구릉말단부	묘역(석열)시설(1)	주거군 외역 단독	울산발전연구원 2011
	59	산하동	동해안	구릉말단부	묘역지석묘(1) 묘역(석열)시설(6) 주구묘(10) 상형석관묘(2)	주거군 내 군집	울산발전연구원 2010
	60	이진리	동해안	구릉사면부	위석형토광묘(1)	주거군無 단독	울산문화재연구원 2003

2. 대상무덤의 단계설정

청동기시대 무덤에서는 주로 적색마연토기, 석검, 석촉 등이 주로 부장됨에 따라 이를 통해 대부분 형식분류와 편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기종 또는 형식의 유물 변화상 및 편년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통해 무덤의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살피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기존의 연구성과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표 3〉

단계별 유물부장
(축척부동)

시기	단계	공반유물
전기 후반	I	적색마연호(외반, 직립), 이단병식석검, 무경식석촉
중기 전반	II	적색마연호(직립, 내경), 일단병식석검, 유경식 (평근형)석촉
중기 후반	III	적색마연호(내경, 퇴화), 이단유절병·유경식석검, 유경식(점근형)석촉
후기	IV	무경식석검(석창), 평기식무경촉, 검파두식

1. 포항 삼정1리 1호 토광묘, 2. 울산 교동 수남리 1호 석관묘, 3. 울산 다운동 새각단 1호 석관묘, 4. 경주 월산리 137-1 1호 석관묘 1호, 5. 경주 충효동 4호, 구상유구, 6. 울산 산하동 5호 석렬유구, 7. 울주 덕신리 1호 석관묘, 8. 경주 문산리 II가-3호 석관묘, 9. 경주 신당리 1호 구상유구, 10. 울주 활천리 서당 1호 석관묘, 11. 울주 덕신리 572-6 3호 석관묘, 12. 울산 산하동 2호 석렬유구, 13. 울주 덕신리 572-6 1호 토광묘, 14. 울주 덕신리 572-6 2호 석렬유구, 15. 포항 학천리 4호 석관묘, 16. 울산 상연암 III지구 1호 토광묘, 17. 포항 학천리 5호 석관묘

적색마연토기는 경부의 형태 변화를 통해 외반→직립→내경→퇴화 순으로의 변화 흐름을 인정하고자 한다.(宋永鎭 2006; 平郡達哉 2012)

석검은 병부의 유무를 기준으로 유병식과 유경식으로 구분되며, 시간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단병식→일단병식으로의 변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이단병식은 다시 단연결부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단식→유절식, 일단병식은 심부와 병두부의 돌출도가 약→강, 유경식은 경부의 유→무의 변화를 상정하였다.(朴宣映 2004; 이민주 2015; 이석범 2015)

석촉은 크게 경부의 유무에 따라 무경식과 이단경식, 일단경식으로 구분하며, 일단경식석촉은 다시 경부의 형태에 따라 장방형의 평근식과 육각형의 첨근식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출토유물간의 조합관계를 바탕으로 기존의 초기-전기-중기-후기(원형점토대토기)로의 시기구분안(김병섭 2016)에 대입하여 전체적인 무덤의 변화상을 간취해보고자 한다.

III. 무덤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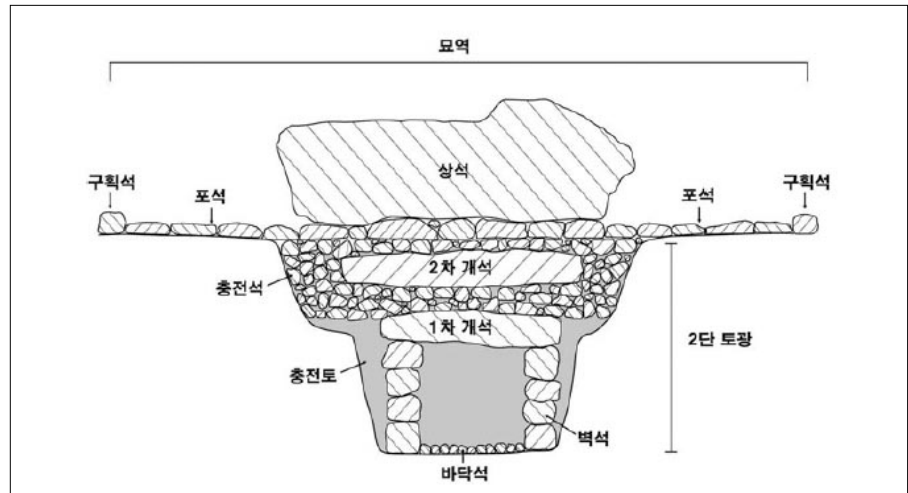
1. 묘역지석묘 검토

묘역지석묘는 기존에 부석묘(趙由典 1979), 적석부가지석묘(노혁진 1986), 구획묘(李相吉 1996; 李恩璟 2013), 용담식지석묘(金承玉 2006), 묘역식지석묘(김승옥 2006) 묘역지석묘(윤호필 2009; 禹明河 2012), 기단묘(崔鍾圭 2010) 등으로 불리던 것으로 매장시설의 주변에 일정한 영역을 점유하기 위한 표시적 산물로 무덤 경계를 따라 일정한 형태의 구획석을 설치한 후 내부에는 적석이나 부석의 형태로 채워 묘역을 구성하고 또한 상석과 같은 가시적 성격의 시설물이 배치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무덤의 구성요소가 모두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대략적인 시기를 살펴보면 호남지역의 진안 수좌동, 안좌동, 여의곡, 풍암 유적 등을 비롯해 영남지역에서는 합천 저포리유적(E지구), 진주 이곡리 선사유적 등의 조사를 통해 대체로 전기 후반에 출현(禹明河 2012; 윤성현 2012; 李在喆 2015; 이동곤 2018)하였으며, 하한은 대체로 초기철기시대까지로 보는 시각(李相吉 2003; 趙鎭先 2004; 金承玉 2006; 윤호필 2013; 이수홍 2019)이 대세를 이룬다. 지역 내에서는 경부가 외반하는 적색마연장경호가 출토된 울산 교동리

<도 2>

묘역지석묘의
세부명칭
(윤호필 2009 인용)



수남유적을 제외하면 전기에 해당하는 묘역지석묘의 존재는 사실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² 경주 석장동, 황성동³, 도계리 지석묘군Ⅱ에서 일단병식석검이 출토되었으며, 또한 울산 길천, 산하동, 덕신리 572-6 유적에서 유경식석검을 비롯해 유경식(평근/침근)석촉이 일부 출토되었다. 그리고 경주 전촌리 유적은 묘역 내에서 횡선문파수부발, 횡선문토기, 적색마연토기편을 비롯해 삼각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등이 함께 출토됨에 따라 일부는 초기철기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박영구 2017: 89)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출토유물이 빈약한 관계로 인해 세밀한 시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묘역지석묘는 전기 후반부터 등장하고 있으나 중기 이후의 송국리 및 검단리문화로 대표되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연동하여 성행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초기철기시대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취락 내 배치를 살펴보면 유적 내에서 단독으로 조사된 포항 조사리 유적을 제외하면 대체로 주거군과 분리된 상태로 대부분 일정한 공간 내에서 근거리상의 군집을 이루고 있다. 지역 내에서 가장 대규모

2 울산 교동리 수남 유적의 보고자는 석관묘 주위의 일부 잔존하는 할석을 묘역의 구획석으로 인정하여 敷石式支石墓로 보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유적의 지형적인 조건상 하천의 운반에 의해 퇴적된 역암층이 깔려 있어 인위적인 구획석과의 구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黃昌漢 2010; 李秀鴻 2012)도 있음을 밝혀둔다.

3 경주 황성동 유적Ⅲ의 Ⅱ나-16호 석열유구 중앙에는 14호 석곽묘로 명명된 매장시설이 놓여 있으며, 석열 사이에서는 무문토기를 비롯해 삼국~근세에 이르는 각종 토기편이 혼재된 상태이다. 다만 배치도 상에서 16호의 북동쪽에 연결된 묘역 내부에는 13호 가마와 중복되어 있으며, 내부에서는 석검편 1점과 평근형의 일단경식석촉 1점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이 유물들은 묘역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출토된 석검편은 심부가 4cm 가량 돌출된 형태로 심부가 과도하게 돌출된 형식은 석검으로의 실용성이 상실되고 점차 의기화되는 경향으로 주로 대구, 청도, 지역에서 확인되는 가운데 시기적으로 청동기시대 중기 가운데서도 약간 늦을 가능성이 있다.(平郡達哉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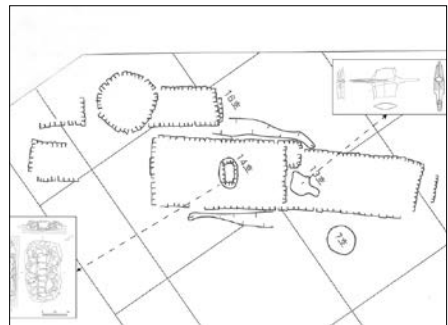
로 조사된 경주 도계리 지석묘군Ⅱ는 선상지성 총적지 가운데 주거영역은 선단부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선정부를 중심으로 묘역지석묘가 서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1기의 중심묘역에 덧붙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다수의 개별 묘역이 열상 혹은 환상의 다양한 연접배치를 이룬 형태가 다수 모여 하나의 무덤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묘역이 서로 연접 부가된 형태는 경주 황성동, 전촌리를 비롯해 울주 길천리 유적 등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보면 취락 내 묘역지석묘는 대부분 기타 분묘 및 주거군과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체로 일정한 군집 형태를 이루는 가운데 특히 개별 묘역간의 연접배치를 통해 무덤군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3>

좌)경주 도계리 묘역지석묘 연접배치 형태

<도 4>

우)경주 황성동 묘역지석묘 연접배치 및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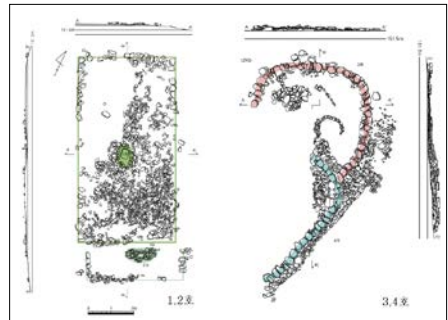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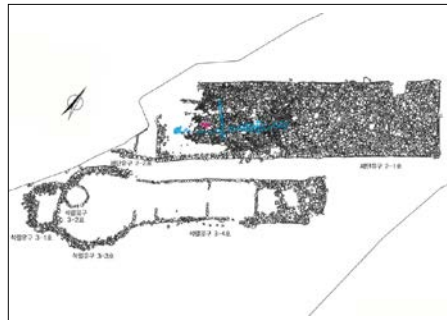


<도 5>

좌)경주 전촌리 묘역시설 연접배치 형태

<도 6>

우)울주 길천리 묘역지석묘 연접배치 형태



묘역지석묘의 성격에 관해서는 묘역 내 매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덤으로 보는 의견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무덤에 투영되는 노동력과 기념물로서의 경관적 의미를 부여해 당시 공동체 사회의 유력자 또는 수장의 존재 및 계층사회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다. (金承玉 2006; 安在皓 2012; 李盛周 2012; 李恩璟 2013)

매장시설은 청동기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묘제를 공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장)방형의 판석을 세워쌓으면서 마치 상자와 같이 만든 구조인 소위 상형(箱形)석관묘는 경주 도계리 지석묘군Ⅱ, 울산 다운동 운곡, 산하동 유적 등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각 벽면을 1매의 판석을 이용해 ‘口’자상으로 세워 쌓았으며, 내부 길이는 대략 80cm 미만인데, 영남지역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며, 또한 지역 내 매장시설의 축조방식 및 규모면에서도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의 형식으로 간주하여도 좋을 듯하다⁴.

할석을 여러 겹으로 얹혀 쌓아 벽석을 축조한 소위 석축형석관묘가 채용된 사례는 포항 조사리 유적, 경주 황성동 유적, 울산 교동리 수남유적 등에서 확인되었으며, 울주 길천리 유적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지상식이라는 점에서 전자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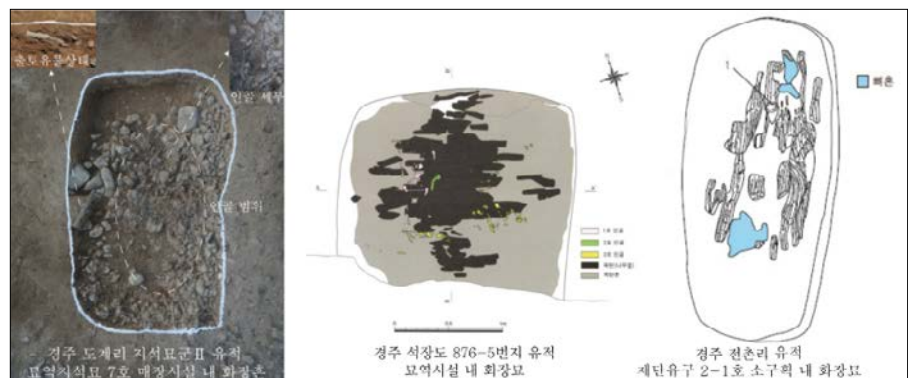
석관묘의 장축길이와 축조방식에 따른 비교
(: 상위 2개 구간)

장축(cm)		~39	40~79	80~119	120~159	160~199	200~239	240~279	280~	소계(%)
대상 지역	상형1 (단판석)	1	12	1	1					15 (1.5)
	상형2 (복판석)		1	10	8	3	2			24 (2.3)
	석축형			2	5	5	1			13 (1.3)
영남지역		8	150	152	264	284	81	18	12	969 (94.9)
소계(%)		9 (0.9)	163 (15.9)	165 (16.2)	278 (27.2)	292 (28.6)	84 (8.2)	18 (1.8)	12 (1.2)	1,021 (100)

경주 도계리 지석묘군Ⅱ를 비롯해 석장동, 전촌리 유적에서는 울산 중산동 약수유적 주구묘와 같이 별다른 시설이 없는 토광 형태의 매장 시설이 조사되었는데, 내부에는 목탄과 함께 인골흔이 확인었다. 이러한 토광 형태의 매장시설에서 대체로 화장한 형태의 인골이 확인된 사례는 경주 지역이 단연 돋보이는 가운데 도계리 지석묘군Ⅱ의 7호에서는 인골의 범위로 볼 때 신전장으로 추정되며, 특히 석장동 유적에서는 분석결과, 토광 내 인골 3개체분이 목재가 깔린 바닥 위에 ‘ㄷ’자상으로 배치하여 화장(火葬)한 이후에 바로 매장하였던 것으로 추정(김재현 2012: 198-201)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화장 이후에 습골되어 안치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장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 7〉

경주 지역 묘역지석묘 내 화장(火葬)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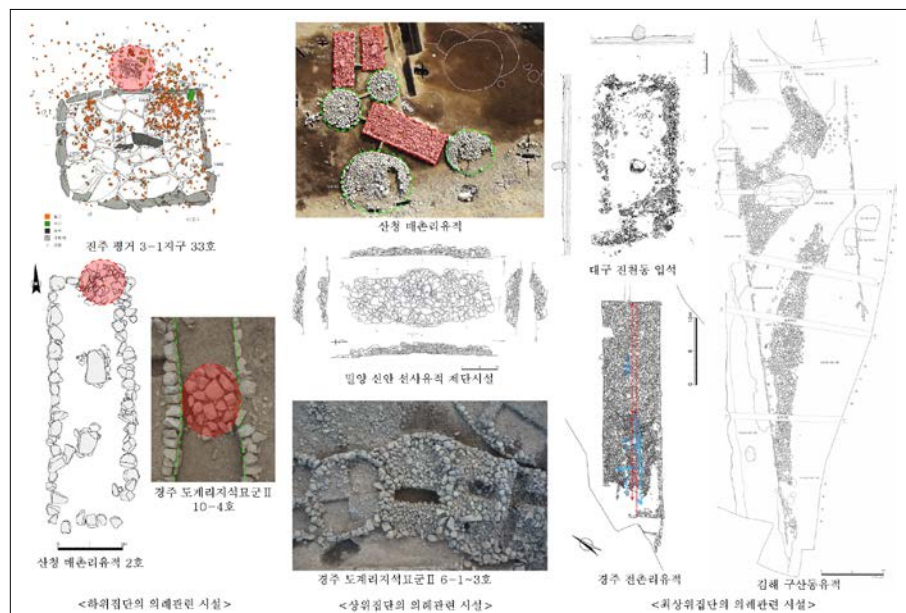


4 〈표 4〉 가운데 영남지역의 전체 석관묘의 장축길이는 김소담(2019)의 학위논문 가운데 p30의 〈도 15〉를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이 밖에 묘역지석묘 가운데 매장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도 다수 확인되었다. 경주 화곡리 제단 유적에서는 할석으로 묘역을 구획하였으며, 중앙에 상석이 배치된 구조이다. 화천리 산251-1 유적에서도 상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한 편이며, 주변 지역 가운데 밀양⁵에서도 다수가 조사된 바 있다. 또한 경주 도계리 지석묘군Ⅱ 내에 연접된 묘역지석묘 가운데 매장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 중 6호는 묘역 내 별도의 매장시설 없이 다량의 할석을 채워 넣은 구조로 6-1호를 중심으로 양 옆에 6-2·3호가 열상으로 연접 배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밀양의 신안 선사유적(慶南發展研究院 2007)에서 조사된 적석제단으로 명명된 구조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무덤의 역할 가운데 제단 및 의례관련 기능이 더욱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김병섭 2009) 이와 더불어 필자는 전고(윤형규 2018: 252)를 통해 이러한 의례시설물은 단위집단의 규모에 상응하는 형태로 발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최소단위 집단은 하나의 무덤 내에서 별도의 의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보다 상위집단은 무덤군 내에서 인공의 구조물을 별도로 축조하여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 진천동(慶北大學校博物館 2000), 김해 구산동 유적(慶南考古學研究所 2010) 등과 같이 광의의 취락이라는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공동체 속에서는 특정한 공간에 분리 조영된 공공의 의례시설물로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도 8〉

집단의 규모에 따른
의례시설의 형태
(윤형규(2018)의
〈표 8〉 인용)



5 밀양지역 내 살내 유적(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5), 신안 선사유적(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7), 용지리 유적(우리문화재연구원 2009)에서 보고된 제단시설의 경우 모두 장방형의 구획석 내에는 다량의 할석을 적석하였으며, 중앙에는 대형의 상석을 배치하였다. 모두 매장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주요 묘제 검토

검단리문화는 청동기시대 중·서부지역의 송국리문화와 대비되는 지역문화로서 울산 중심권역으로 하여 북으로는 경주-포항, 남으로는 양산 북부 일대까지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성격으로는 부리형석기(벧돼지형의기), 동북형석도, 어망추 등의 수렵·채집문화를 바탕으로 토기는 파수 달린 난알문·횡선문 심발형토기와 적색마연소용, 주거는 4·6주식 기둥자리에 단수의 노지를 가진 울산식주거지, 매장의례로는 주구묘 소형석관묘, 지상식지석묘, 가옥묘로 구성된 일련의 문화로 통칭된다.(안재호2018: 10)

주구묘는 매장시설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분묘의 영역으로서 개별적인 묘역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묘역지석묘와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석축 또는 석렬과 같은 형태로 묘역을 표시하기보다 묘역의 경계에 일정한 간격으로 도랑을 굴착하였다는 점에서 축조의 방법 및 기술상 뚜렷한 차이가 간취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묘역지석묘가 농경생활이 가능한 충적지를 중심으로 입지하는 경향에 비해 주구묘는 수렵 및 채집활동이 우세하였던 당시 취락 내에서도 비교적 주거군과 혼재하여 입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될 수 있다.(李秀鴻 2012; 안재호 2013) 내부에 채용된 매장시설은 울산 중산동 약수, 동천리, 천곡동 가재골Ⅲ 유적에서 별다른 시설이 없는 토광형 구조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매장시설의 형태는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묘역의 성토과정에서 지상에 설치되었던 매장흔적이 후대에 삭평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李秀鴻 2010)

출토유물은 매장시설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해 그 존재가 상당히 빈약한 편인데, 포항 호동유적의 주구묘에서는 구순각목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었으며, 경주 신당리 유적 주구묘 1호에서는 평근형의 일단 경식석축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울산 동천리 유적 주구묘의 경우 유적 내에서 울산식주거지(13호)를 파괴하고 조성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전기 후반에서 중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영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큰 변화의 흐름은 수렵채집 사회의 전통에 따라 생과 사의 공간을 동일시하였다면, 지역 내 주거지의 평면 플랜을 수용하여 대체로 세장방형→말각방형 또는 원형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李秀鴻 2012: 74-76)

또한 지역 내 묘제 가운데 특징적인 점은 가옥묘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제시된 사례로는 포항 호동Ⅱ-29호 주거지에서 2개체의 인골이 주거지

내 벽구를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하게 놓여져 있었으며, 경주 천군동 I-5호 주거지에서는 장벽에 인접하여 신전장 상태의 인골 1개체가 확인되었다. 모두 화재주거지로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의도적인 폐기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유병록 2010) 그리고 최근에는 동남해안지역의 무덤 수가 송국리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가운데 지역 내에는 적석으로 폐기한 주거지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특히 화재주거지 내부에 의도적인 적석양상이 남아있는 주거지는 기타 유구와 서로 중복된 경우가 많지 않고, 또한 내부에 유물이 집중된다는 점, 그리고 취락 내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정주성 취락이 아닌 주로 화전 농경을 바탕으로 하는 산지형 취락 내에서 이루어진 일회성의 폐기 의례로 인식(김현식 2005)하던 것을 최근에는 더욱 구체화하여 의례 행위 중에서도 시신을 화장하는 등의 처리방법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이수홍 2017: 115-116). 또한 울산지역에서 주로 확인되었던 연암동형주거지가 폐기 이후에는 무덤으로 전용되었다는 견해가 있다.(안재호 2010) 다만 양남 하서리 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일부 굴립주건물지 등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주구가 채용되는 사례를 통해 볼 때 당시 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주구시설의 채용이 상당히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주구묘는 취락 내 중앙의 공지에 주로 조성되는 반면, 기타 가옥묘를 비롯한 연암동형주거지 등은 일반 가옥과 혼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구묘가 상대적으로 상위계층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있다.(李秀鴻 2012; 安在皓 2013)

이 밖에 주요 묘제로는 석관묘와 토광묘를 비롯해 지석묘가 있다. 석관묘는 크게 석재의 축조방식에 따라 상형(I)과 석축형(II)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형은 다시 벽면을 각 1매의 판석으로 세워 쌓은 단판석식(A)과 여러 매의 판석을 이용한 복판석식(B)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리고 토광묘는 묘광과 매장주체부 사이의 석재충전 양상에 따라 순수토광묘(I)와 위석토광묘(II)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전기 후반에 해당하는 무덤 가운데 석관묘는 포항 초곡리(I A)와 마산리(I B) 유적을 비롯해 경주 월산리 산137-1(II), 문산리 유적(II 나-2호(I B) / D구역(I B))과 울산 다운동 새각단 유적(I A)에서 확인되었으며, 토광묘는 포항 삼정1리 유적(II)과 울산 굴화리(I), 효문동 산68-1 유적(II)등에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경주 월산리 산137-1 유적의 석관묘를 비롯해 울산 굴화리, 효문동 산68-1 유적의 토광묘에서는 이단병식석검의 병부에 원형의 홈이 패여진 이른바 성혈문장식석검이 출토되었다. 특징적인 점은 영남지역의 암각화

분포권과 동일한 가운데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신부가 결실된 상태로 확인되는데 비해, 완형으로 출토된 사례는 경주·울산 지역의 전기 후반에 해당하는 무덤에서만 채용됨에 따라 이러한 부장 습속과 관련된 일련의 의례행위를 통해 독특한 지역문화가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중기에 해당하는 무덤은 경주 황성동 537-2 유적(I A)과 덕천리 유적의 석관묘(I B)에서는 무경식석축과 유경식석축이 일부 공반되었으며, 또한 울산 덕신리 유적의 석관묘(I B)에서 일단병식석검, 울주 활천리 서당 유적 석관묘(I A)에서는 평근형의 유경식석축이 출토됨에 따라 대체로 중기 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밖에 울산 조일리 유적의 석관묘(Ⅱ)와 울주 덕신리 572-6 유적의 토광묘(I)에서는 이단병의 유절식석검과 첨근형의 일단경식석축이 출토됨에 따라 중기 후반으로 판단된다. 한편 석관묘(I A)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묘역 지석묘의 매장시설로도 일부 채용되고 있으며, 또한 포항 초곡리, 경주 황성동 537-2, 문산리, 울산 신현동 황토전, 구수리 대암 유적 등에서도 조사된 바 있어 지역 내 주요 묘제로서 인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석관묘는 달성 평촌리 유적(2010)의 인골 출토 석관묘(3·20호)와 비교해 볼 때 신전장은 할 수 없는 크기임이 분명하며, 유사한 구조로서 경기도의 토진리 유적과 강원도의 발산리 유적에서도 탄화된 인골이 발견된 사례가 보고되었다.(黃昌漢 2010: 179) 지역 내에서는 경주 덕천리 유적의 석관묘에서도 탄화된 뼈가 일부 확인된 바 있어 주로 화장 및 세골장 등의 이차장이 행해졌던 것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공감하고 있다.(黃昌漢 2010; 李秀鴻 2012; 안재호 2018)

그리고 후기의 무덤으로는 포항 학천리 유적의 4호 석관묘(I B)에서 무경식석검과 철광석제 검파두식이 출토되었으며, 마찬가지로 포항 원동 유적과 울산 상연암 유적에서도 무경식석검(석창)이 출토된 위석형토광묘(Ⅱ)가 있다. 이들은 시신을 직접 안치하였던 관의 재질로서 석재 또는 목재의 존재가 추정됨에 따라 형식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무덤은 대체로 묘광과 관 사이를 충전의 의미와 같이 다량의 석재가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성이 관찰된다. 한편 경주 갑산리 유적의 석관묘는 다단굴광 및 중첩된 개석 아래에서 복판석식의 상형석관묘(I B)를 축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벽석과 묘광 사이에는 다량의 할석을 이용해 채워 넣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동일한 시기의 무덤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은 열어두고자 한다.

이 밖에도 검단리 문화권 내에서는 다수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표조사를 통해 상석으로 추정되는 바위의 존재로 알려진 것이 많아 확실한 무덤인지는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⁶. 또한 지석묘 조사 당시 매장시설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동기시대 석관(곽)묘와 형태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발굴조사 당시 상석의 존재가 확실히 드러난 경우로 한정하였다.

포항지역은 달전리 지석묘(경주 다산리지석묘 포함/8기), 성계리 지석묘(14기), 강사리 유적(1기)에서 조사되었다. 달전리 지석묘의 경우 괴석형의 상석 아래에 대부분 약간의 구덩이를 파거나 또는 지상에 할석을 별다른 정형성 없이 돌려 쌓은 형태(圍石型)가 대부분이다. 인접한 영덕 남산리지석묘(嶺南文化財研究院 2000)를 비롯해 내륙 지역에는 경산 삼성리유적(嶺南文化財研究院 2005), 안동 지례리유적(안동대학교박물관 1989)등과 유사한 구조이다. 이 밖에 강사리 유적에서는 경지정리 당시 이동된 상석 1기만이 확인되었다.

경주지역은 도계리지석묘군Ⅱ 유적(11기(상석 5기 포함)), 방내리지석묘(5기), 상신리지석묘(3기), 문산리 유적Ⅱ(1기)에서 조사되었다. 후대에 이탈된 상석을 제외하고 매장시설로 추정되는 하부구조의 경우 대부분 포항지역과 유사한 가운데 문산리Ⅱ(나구역)에서는 평면형태가 삼각형에 가까운 상석 아래에 약간의 구덩이를 파고 석축형(石築型) 구조로 추정되는 매장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나 벽석은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다. 이러한 구조는 대구 시지동지석묘군Ⅰ-1·2호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지역에서는 중산동 715-1 유적(2기)과 향산리 청룡유적(상석 1기), 검단리 유적(2기)에서 확인되었다. 중산동 715-1 유적의 지석묘는 인접한 지역과 유사한 구조(위석형)인데 비해 검단리 유적의 1호는 개석의 역할을 겸하는 상석 아래에 2매의 지석을 비롯해 중앙에 토광형의 매장시설이 남아있으며, 3호는 지상식의 석열을 갖춘 유사석곽형 구조(유병일 2001: 4)로 주변에 잔존하는 석재의 존재를 통해 서하리 지석묘와 마찬가지로 묘역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부산대학교박물관 1995) 유물은 검단리 1호 지석묘에서 일단경식석축 가운데 경부 단면이 육각형인 침근형석축 1점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시기는 중기 후반으로 판단된다. 이를 제외하면 출토된 유물은 상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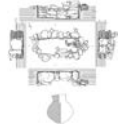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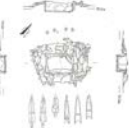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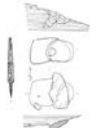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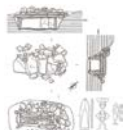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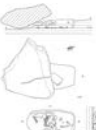
6 영남동해안의 지석묘는 이전의 조사를 통해 포항지역은 약 350여기, 경주지역은 약 370여기, 울산지역은 20개 지역의 32개소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유병일 2001; 김광명 2003);

빈약한 편이다.

대략의 시기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우선 지석묘 가운데 지하식 구조가 지상식보다 선행한다는 연구(河仁秀 1992)를 비롯해 지역 내 지석묘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안동 지례리 유적의 지석묘에서 출토된 일단병식석검, 유경식석검, 일단경식석촉을 비롯해 지석묘 주변에서 출토되는 봉상파수가 달린 검단리식토기와 일부 원형점토대토기편을 근거로 청동기시대 중~후기에 유행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李秀鴻 2012: 88-89) 따라서 지역 내 지석묘 또한 축조 시점은 타 지역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검단리문화권 내
주요 묘제의 변천양상
(축척부동)

묘제 시기	주구묘	석관묘	토광묘	지석묘	기타 (가옥묘 등)
전기 후반	 포항 호동 I	 울산 교동리 수남	 포항 삼정1리		
중기 전반	 경주 신당리	 경주 황성동 537-2	 울산 효문동		 경주 천군동
중기 후반	 울산 동천리	 울산 구수리 대암	 울주 덕신리 572-6	 울산 검단리	 포항 호동 II
후기		 포항 학천리	 포항 원동 2지구	 경주 문산리	

지석묘 하부구조로 채용된 이러한 위석형 구조는 지석묘 분포에 있어 최대 밀집지역이라 불리는 전남지역의 주암댐 수몰지구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주로 호남지방에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李秀鴻 2011) 다만 엄청난 수의 상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장시설이 공존하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남해안 일대와 같이 대규모 구획시설과 매장시설이 결합된 지석묘는 지역 나름의 변화상을 보이는데 반해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지역의 지석묘는 규모나 구조적인 면에서 인상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朴榮九 2011: 69)

IV. 검단리문화권 내 묘역지석묘의 확산

1. 지역 내 무덤의 형성 배경

청동기시대의 석관묘로 대표되는 무덤의 축조에 있어 다양한 구조 및 축조의 정교함을 통해 타 지역에 비해 무덤 채용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인 곳은 영남지역이었으나 다만 대상 지역은 소위 검단리문화가 전개되는 고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송국리문화권과는 상이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특히 남해안을 비롯해 낙동강 중·하류 지역과 비교해볼 때 유적 및 주거지 수에 비해 전체 무덤의 수량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다양한 묘제 속에서도 화장, 세골장 등과 같이 주로 이차장이 성행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덤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나름의 축조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 지역과 축조 및 유물에 있어 형식상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망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덤의 출현에 앞서 청동기시대 사회의 이면을 살펴보면 우선 부장습속이라는 관점에서 청천강 이남이라는 공통의 범위에서 석검, 석촉, 토기, 옥제품 등을 통해 일정한 제의영역을 구축(裴眞晟 2011)한 가운데 진주 대평리 일대 취락에서 성행하였던 옥기 제작을 통한 상호 교환 및 교류가 상정(李相吉 2003)되거나 혼펠스제 마제석검을 통해 대구지역의 석검 산지를 통한 동일 문화권 내 유통망을 추정(황창한 2011)하기도 한다. 또한 동일한 제의권 내에서도 영남지역 내 마연토기 부장에 따라 권역별 유행권이 설정(宋永鎭 2016)되기도 한다. 즉 취락 내 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인근 지역 및 집단과 대외적인 관계망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별로는 장송의례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행위를 표출함에 있어 사후세계에 대한 정신적인 요소가 서로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싶다. (김소담 2019)

지역 내에서 출현기에 해당하는 무덤은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1~2기 가량이 단독으로 배치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묘제로는 토광묘와 석관묘가 있으며, 특히 석관묘는 제형식이 모두 확인되며, 일부는 묘역으로서 주구를 채용한 무덤의 존재도 상정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우선 묘제의 구분없이 장식(성혈문)석검의 부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집 출토품 가운데 의창 평성리 장식석검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남지역을 필두로 주거지와 분묘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아직 많은 사례가 확인되지

는 않았으나 대체로 의도적인 파손에 따른 훼손과 관련된 의례행위(張英 1990; 이상길 2000)로 파악하는 가운데 완형으로 무덤에 부장품으로 채용된 사례는 경주와 울산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이를 지역 내 묘제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영남지역 내 출현기에 해당하는 묘역지석묘가 합천 저포리 E지구, 진주 이곡리, 사천 이금동 유적 등 주로 경남지역 내에서도 황강 및 남강 유역권을 따라 분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낙동강을 기준으로 분명한 차이를 이룬다. 즉 이들 묘역지석묘의 출현이 북으로는 서북한지역과 요동반도 일대의 지석묘 문화의 분포권을 바탕으로 서로 관계망을 형성(윤성현 2012: 73-74)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크게는 북에서 남으로의 전파경로를 상정할 수 있으며, 주변 지역 가운데서는 외형적으로 유사한 금강 유역에 해당하는 진안 지역의 전기 묘역지석묘와의 전파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접한 지역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망 속에서 묘제 수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데 비해, 마찬가지로 중국의 요동지역에서 조형(안재호 2016: 36)을 찾고자하는 장식석검이 채용된 무덤은 전기부터 내제되어 있는 의례행위를 바탕으로 한 동일한 제의권을 필두로 볼 때 지역 내에서는 축조방식과 같은 기술적 요소보다 매장에 수반된 부장행위로서 의례와 관련된 공통의 관념적인 요소가 우선시되었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도 9>

전기 묘역지석묘
(윤성현 2012)와
이단병장식석검의
분포권 비교



그리고 주구묘의 경우 강원 영서지역의 춘천 천전리유적(김권중 외 2004: 155-180)에서 이른 시기의 주구묘를 비롯해 경남 지역의 진주 대평리 옥방 8지구 유적(國立昌原文文化財研究所 2003)과 사천 이금동 유적(慶南考古學研究所 2003) 등에서도 일부 확인됨에 따라 강원 영서지방을 필두로 동남 해안 루트를 통한 전파 경로를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확인된 주구묘는 분명 석관묘와 같은 석재 매장시설을 채용하였으나 반면에 지역 내 주구묘에서 그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오히려 후대 석평된 지상식 구조로 일부는 중산동 약수 유적처럼 매장시설 내에서 소결 및 목탄흔의 존재로

볼 때 화장과 같은 이차장적인 요소 또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무덤의 지역 내 출현 과정은 적어도 단일 노선에 의한 특정한 형식의 전파가 아니라 무덤 내 다양한 요소를 집단 나름의 필요에 따라 수용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청동기시대 사회로 대표되는 석관묘 문화가 농경의 도래와 동반된 정신문화적인 요소(裴眞晟 2007)로서 한반도 내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 정착한 것이 아니라 무덤에 석재를 채용한다는 축조 관념 자체가 영남지역에 전래되었으며, 또한 지역별로는 동일한 장제가 수용된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다양한 상호관계망 속에서 재지집단의 자체적인 해석에 따라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묘역지석묘의 수용

앞서 살펴 본 지역 내 무덤의 출현을 통해 일정한 제의권으로서의 지역색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무덤의 세부적인 요소를 재지집단 나름의 선별적인 수용을 통해 발전시켜 왔다. 특히 사회발전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중기 사회에 접어들면 이러한 무덤의 축조는 더욱 보편화되면서 인접한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묘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경생활을 필두로 한 지역공동체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묘역지석묘의 수용은 수렵채집 문화의 습속과 함께 전기 문화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던 검단리 문화권 내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지역 내 무덤 가운데 출현기에 해당하는 묘역지석묘의 존재는 사실 뚜렷하지 않다. 출토유물의 빈약함으로 인해 대다수 무덤에 대한 시간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수도 있으나 아직 분포에 있어서는 분명 제한된 상황이다.

그러나 중기의 지역사회로 묘역지석묘가 수용되는 과정은 공간적으로 검단리문화의 분포권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특히 경주 도계리 지석묘군Ⅱ가 자리한 대천을 중심으로 동쪽에 자리한 형산강을 통해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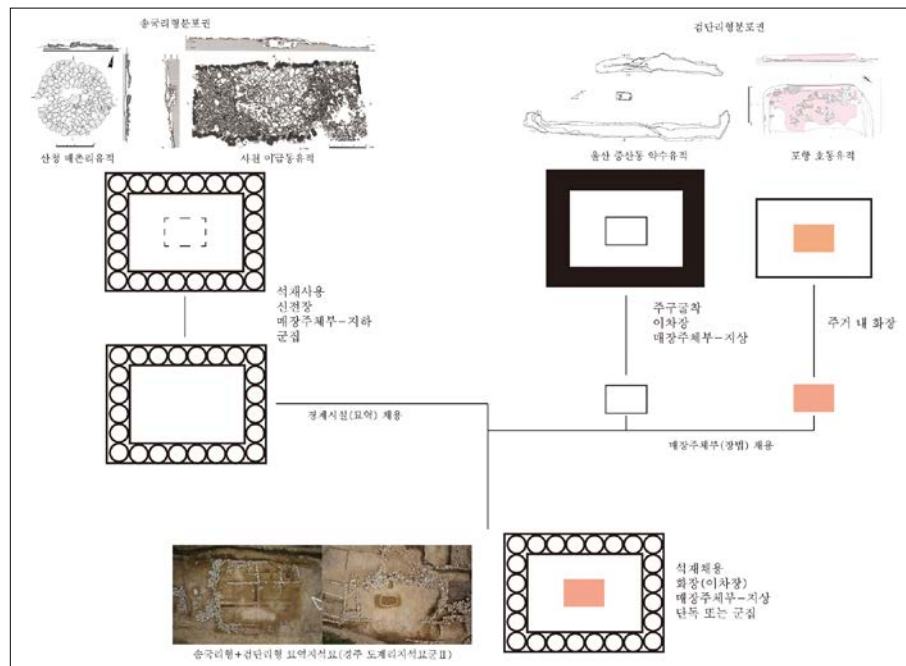
우선 하나는 형산강의 상류에서 언양-양산 구조곡을 따라 남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주시 서쪽의 대천 주변에 자리한 서면 일대의 비

교적 낮은 고개를 통해 금호강의 수계인 북안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마주한 금호강 상류 지역에서는 검단리문화의 양상이 나타나는 취락이 조성되는 특징이 간취되는 가운데 영천 해선리 유적에서는 울산식주거지와 송국리문화의 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하진호 2018: 70-71) 최근에는 영천 신령면의 치산리 유적을 비롯해 통해 검단리문화권을 서쪽은 경산, 북쪽은 의성과 안동 일부 지역까지로 보는 견해(유병록 2018: 87-89)도 있다. 따라서 이 일대는 검단리와 송국리문화의 접경지대로서 양 문화의 요소가 상호 복합적인 양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주 지역의 묘역지석묘를 통해서도 재지의 전통과 송국리문화로 대칭되는 주변 지역의 영향력이 서로 접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송국리문화권 내 묘제에서 주로 유행하였던 석재 묘역, 매장시설로서 석관묘 내 신전장, 부장품으로서 유병식석검을 채용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검단리문화권에서는 묘역으로 주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매장시설로는 토광묘 형태의 지상식구조와 함께 소형석관 및 가옥묘 등을 통한 화장 또는 세골장 등과 같이 주구장이 유행하였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윤형규 2018: 256)

〈도 10〉

묘역지석묘의 변화모식도
(윤형규(2018)의
〈도면 9〉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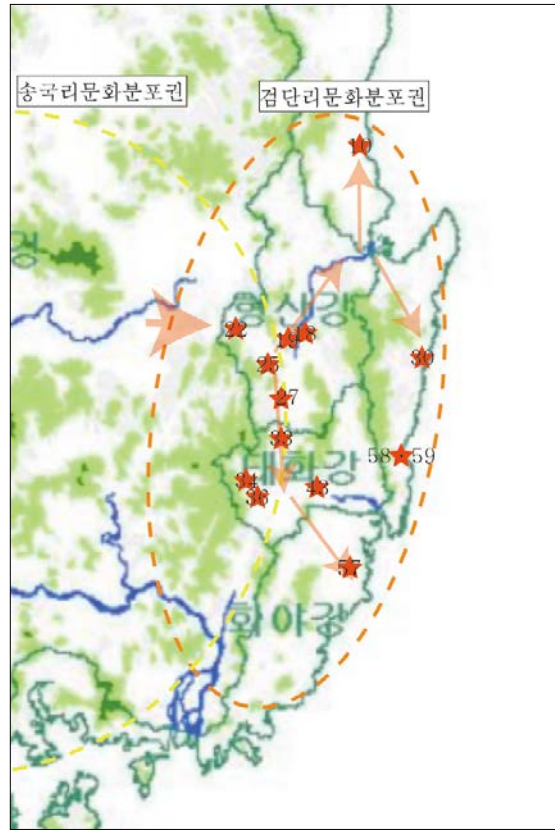


경주 도계리지석묘군Ⅱ 유적에서는 모두 석재 묘역을 설치하여 무덤의 영역을 표출하고 있어 송국리 문화권 내 무덤의 특징이 간취되는 가운데 매장시설은 토광 내 화장 등과 같은 이차장을 통해 검단리문화권 내에서 확인되는 장법이 주로 채용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경주 석장동, 전촌리 유적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현재까지는 주로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울주 길천리 유적(3호)에서도 석관묘 아래의

수혈에서 무문토기와 목탄 및 소토가 확인됨에 따라 장송의례와 관련된 행위의 표현에 있어서 유사함이 관찰된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무덤의 관념이 새로운 문화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발전 혹은 재창조를 통해 집단 내 지역성을 더욱 심화시켜 나갔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도 11>

검단리문화권 내
묘역지석묘의 확산 경로
(번호는 <표 2>와 동일)



또 다른 하나는 형산강 본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어져 포항시 청하면 일대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일부는 동해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경주 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이 형산강을 중심으로 주변 구릉 말단부 또는 평지의 하천변을 따라 점차 하위 취락을 통합하면서 촌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석장동, 황성동 일대의 묘역지석묘와 일부 암각화

등의 존재를 통해 취락 내 유력자의 존재를 상정하기도 한다.(裴君翬 2015: 100-101) 따라서 지역 내 취락의 발전 과정에서 당시 중심집단 및 지배세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묘역지석묘의 등장은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 해안가에 위치한 묘역지석묘는 현재로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경주 전촌리 유적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요소가 확인됨에 따라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지역 사회의 전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태화강 및 동천 일대에는 조사된 주구묘와 석관묘 등을 통해 볼 때 전기의 묘제가 일부는 후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묘역지석묘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이는 하천의 발달이 미약한 상황에서 당시 구릉을 중심으로한 취락 내 생계 전략으로서 기존의 수렵, 어로, 채집 전통과 함께 일부는 곡부 및 구릉지 일대에 대한 농경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윤호필 2018: 105-106)을 염두해 볼 때 적

어도 묘역지석묘를 통한 집단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은 재지집단의 삶과 밀접한 가경지로서의 역할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해보고자 한다.

이렇듯 검단리문화권에서 형성된 묘역지석묘는 전기 묘제를 통해 이미 경험적으로 습득한 매장관념을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 중기 사회의 발전 및 변화에 따른 주변 문화의 파급 효과를 지역 내에서 수용하여 집단의 결속력을 통한 취락의 정체성 등을 표현하기 위한 기념물로서 재지집단의 노력에 따른 선별적인 수용 방식을 통해 점차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대상지역은 영남동해안 일대라는 자연지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청동기시대부터 집단의 전통성을 유지·발전시키는 가운데 무덤이라는 관념적인 요소의 등장에 따라 점차 지역사회의 형성과정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무덤은 집단의 형성과 그 궤를 같이하여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부터 이미 다양한 묘제가 재지사회에 정착한 가운데 이단병(성혈문)장식석검과 같은 동일한 의례권역을 바탕으로 일정한 지역 문화를 창출했을 것으로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후기에는 사회 발달에 따른 취락의 성장에 연동하여 집단의 정체성 등과 같은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인접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보편화되면서 점차 지역사회의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주변 문화와의 접변이 비교적 용이한 경주시 서쪽의 대천 일대에서 확인된 묘역지석묘를 통해 이른바 송국리·검단리로 대별되는 양자 간의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수용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형산강 일대와 언양-양산 구조곡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일률적이지는 않은 가운데 지역 내에서는 각 집단별 생계전략 또는 생활방식과 같은 다양한 동인에 따라 확산되면서 묘제의 다양성을 기초로 한 중기사회의 형성 과정을 일부분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권혁재, 1995, 『한국지리: 각 지방의 자연과 생활』, 법문사.
- 김광명, 2003, 「경북지역의 지석묘」, 『지석묘 조사의 새로운 성과』, 제3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김도현 · 이재희, 2004, 「蔚山地域 青銅器時代 聚落의 立地에 대한 檢討—生業과 關聯하여」, 『嶺南考古學』 35, 嶺南考古學會.
- 김병섭, 2009, 「密陽地域 墓域式 支石墓에 대한 一考察」, 『慶南研究』 創刊號,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_____, 2016, 「제5장 영남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編年』, 서경문화사.
- 김소담, 2019, 「청동기시대 영남지역 석관묘의 시 · 공간적 전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金承玉, 2006, 「墓域式(龍潭式)支石墓의 展開過程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53, 韓國上古史學會.
- 김재현, 2012, 「경주 석장동 876-5번지유적 화장묘 출토 인골분석」 부록편, 『경주지역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I』, 계림문화재연구원.
- 金賢植, 2005, 「無文土器時代 住居址 内部의 積石現狀과 意味」, 『嶺南考古學』 37, 嶺南考古學會.
- 노혁진, 1986, 「積石附加支石墓의 形式과 分布—北漢江流域의 예를 中心으로」, 『翰林大學論文集』 4, 인문 · 사회과학편, 한림대학교.
- 朴宣映, 2004, 「南韓 出土 有柄式石劍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朴榮九, 2011, 「東海岸地域 青銅器時代 무덤의 變遷」, 『韓國青銅器學報』 9號, 韓國青銅器學會.
- _____, 2017,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변천」, 『대구 경북의 지석묘 문화』 嶺南文化財研究 30, 嶺南文化財研究院.
- 裴君烈, 2015, 「형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慶北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_____, 2017, 「포항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양상과 생업경제」, 『포항의 역사와 문화』.
- 裴眞晟,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釜山大學校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 _____, 2012, 「청천강 이남지역 분묘의 출현에 대하여」, 『嶺南考古學』 60, 嶺南考古學會.
- 宋永鎭, 2006, 「韓半島 南部地域의 赤色磨研土器 研究」, 『嶺南考古學報』 38號, 嶺南考古學會.
- _____, 2016, 「青銅器時代 磨研土器 研究」, 慶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安在皓, 2012, 「墓域式支石墓의 出現과 社會相」, 『湖西考古學』 26, 湖西考古學會.
- _____, 2013, 「한반도 동남해안권 청동기시대의 가옥장」, 『한일취락연구』, 서경문화사.
- _____, 2016, 「제1장 청동기시대의 시기 구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編年』, 서경문화사.
- _____, 2018, 「울산의 청동기시대 문화와 그 역할」,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2018년 울산대곡박물관 · 한국청동기학회 공동학술대회.
- 禹明河, 2012, 「嶺南地域 墓域支石墓의 展開」, 嶺南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유병록, 2010, 「豎穴建物 廢棄行爲 研究 1—家屋葬—」, 『釜山大學校 考古學科創設20周年紀念論文集』,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 _____, 2018,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 검토”에 대한 토론문」,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2018년 울산대곡박물관 · 한국청동기학회 공동학술대회.
- 유병일, 2002, 「울산 지석묘사회의 한 단면」, 『울산연구(특집 : 무덤이 말하는 고대 울산)』 제4집, 울산대학교박물관.
- 윤성현, 2012, 「경남지역 묘역식 지석묘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 윤호필, 2009, 「青銅器時代 墓域支石墓에 관한 研究」, 『慶南研究』 創刊號,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_____, 2013, 「축조와 의례로 본 지석묘사회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8,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생계」,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성과와 쟁점』, 2018년 울산대곡박물관 · 한국청동기학회 공동학술대회.
- 윤형규, 2018,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의 전개」, 『대구 ·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
- 이동곤, 2018, 「진안지역 청동기시대 분묘의 편년과 형성과정」,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주, 2015, 「南江流域 青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한국청동기학보』 제16호, 한국청동기학회.

- 李相吉, 1996,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일시간」,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慶北大學校考古人類學科.
- _____, 2000, 『靑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3a, 「慶南의 支石墓」, 『지석묘 조사의 새로운 성과』 제3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요지,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03b, 「청동기시대 飾玉에 관한 일고찰 : 南江水系의 攻玉과 관련하여」, 『경남지역문제연구원 연구총서』 8, 경남대학교.
- 이석범, 2015, 「영남지역 점토대토기 단계의 마제석기 변화상」, 『한국청동기학보』 제17호, 한국청동기학회.
- 李盛周, 2012, 「農耕, 記念物, 그리고 個人墓의 발전」, 『湖西考古學』 26, 湖西考古學會.
- 李秀鴻, 2010,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구형 유구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립20주년 기념논문집』,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 _____, 2011, 「검단리유형의 무덤에 대한 연구」, 『고고광장』 8, 부산고고학연구회.
- _____, 2012, 『靑銅器時代 檢丹里類型的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 _____, 2017,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에서의 무덤 축조 변화—월배지역 적석유구와 적석주거지를 검토하여」, 『대구·경북의 지석묘 문화』 嶺南文化財研究 30, 嶺南文化財研究院.
- _____, 2019, 「영남지방 무덤자료를 통해 본 계층화와 수장의 등장」, 『영남지역 수장층의 출현과 전개』, 제28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 嶺南考古學會.
- 李恩璟, 2013,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구획묘의 연구」, 釜山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李在烈, 2015, 『鎮安地域 靑銅器時代 支石墓 社會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趙由典, 1979, 「慶南地方의 先史文化研究—晉陽 大坪里遺蹟을 中心으로」, 『考古學』 5·6.
- 趙鎮先, 2004, 「全南地域 支石墓의 研究現況과 形式變遷 試論」, 『韓國上古史學報』 43, 韓國上古史學會.
- 崔鍾圭, 2010, 「龜山洞遺蹟 A2-1호 支石墓에서의 聯想」, 『金海 龜山洞遺蹟 X』 考察編, 慶南考古學研究所.
- 平郡達哉, 2008, 「영남지역 ‘검형 마제석기’ 부장의 의미에 대한 고찰」, 『COGITO』 64, 부산대학교인문학연구소.
- _____, 2012, 『무덤資料로 본 南韓地域 靑銅器時代 社會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 河仁秀, 1992, 「嶺南地方 支石墓의 形式과 構造」, 『伽耶考古學論叢』,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하진호, 2018, 「금호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에 대한 통시적 접근」, 『대구·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
- 黃昌漢, 2010, 「蔚山地域 靑銅器時代 墓制의 特徵」, 『靑銅器時代의 蔚山太和江文化』 蔚山文化財研究院 開院 10週年 紀念論文集, 蔚山文化財研究院.
- _____, 2011, 「청동기시대 혼펠스제 마제석검의 산지추정」, 『고고광장』 9, 부산고고학연구회.

보고서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10, 『달성 평촌리·예현리 유적』.
- 안동대학교박물관·계명대학교박물관, 1989, 『임하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Ⅲ)』.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0, 『浦項 草谷里 遺蹟(附: 盈德 南山里 支石墓)』.
- _____, 2005,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경산 삼성리 유적』.
- 김권중 외, 2004, 「춘천 천전리 유적」, 『한국고고학전국대회』 28회, 한국고고학회.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3, 『泗川 梨琴洞 遺蹟』.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3, 『晉州 大坪里 玉房8地區 先史遺蹟』.
- 慶南考古學研究所, 2010, 『金海 龜山洞 遺蹟Ⅸ』.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7, 『密陽 新安 先史遺蹟』.
- 慶北大學校博物館, 2000, 『辰泉洞 先史遺蹟』.

※ 이 외 보고서는 제시된 <표 2>를 참조.

‘검단리문화권 내 묘역지석묘의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에 대한 토론문

박영구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는 농경생활을 필두로 한 지역공동체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묘역지석묘의 성격에 관해서는 묘역 내 매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덤으로 보는 의견이 일반적이며, 무덤에 투영되는 노동력과 기념물로서의 경관적 의미를 부여해 당시 공동체 사회의 유력자 또는 수장의 존재 및 계층사회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다.

1. 검단리문화권의 북동쪽(동해안지역) 경계¹로 판단되는 유적은?
최근에 조사된 포항 월포리취락(2013 영남문화재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제 유적인지, 아니면, 울진 덕천리유적 등의 울진지역에서 확인된 제 유적인지?
2. 묘역지석묘는 농경생활이 가능한 충적지 중심, 주구묘는 수렵 및 채집활동이 우세하였던 구릉에 위치한 취락 내에서도 비교적 주거군과 혼재하여 입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 주구형 유구²로 보고된 유구를 동일한 유구인 주구묘로 판단하고 있는지?
3. 최근 조사된 포항 조사리 유적(삼한문화재연구원 2020)에서는 주구가 구획된 묘역지석묘가 조사되었다. 구릉 남쪽 하단부 충적지에는 월포리 취락유적이 존재하고 있다. 조사리 묘역지석묘는 월포리 취락의 수장과 관련된 무덤으로 판단되는지?

1 본문에 영천 해선리 유적에서는 울산식주거지에 송국리문화의 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하진호 2018: 70-71) 최근에는 영천 신령면의 치산리 유적을 비롯해 통해 검단리문화권을 서쪽은 경산, 북쪽은 의성과 안동 일부 지역까지로 보는 견해(유병록 2018: 87-89)도 있다.

2 경주 어일리취락에서는 구릉 정상부에 단독으로 조성, 울산 산하동 취락에서는 단구평탄면에서 단독, 혹은 군집을 이루어 조성되었다.

한편 제사유구로 판단한 유구는 주구묘로 판단되는데, 주구 내부에서 확인된 수혈에서는 적색마연호가 출토되었다. 이 수혈의 용도는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매장주체부 일 가능성은?

4. 검단리문화권 속에서 형성된 묘역지석묘는 집단의 결속력을 통한 취락의 정체성 등을 표현하고, 중심집단 및 지배세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의 기념물로서 판단된다. 재지집단의 노력에 따른 선별적인 수용 방식을 통해 점차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태화강 및 동천 일대에는 구릉을 중심으로 한 취락 내 생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묘역지석묘를 통한 집단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은 재지집단의 삶과 밀접한 가경지로서의 역할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토론자도 울산지역을 포함한 동해안지역은 이러한 집단의 결속(농경문화)을 보여주는 무덤의 축조 및 무덤을 조영할 수 있는 계층이 적음으로 인한 사회적 위치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대형구획묘의 축조가 상대적으로 불필요했던 것으로 이해³하는 것에 동감한다.

※ 울산 회야강유역 발리 499-10번지 유적⁴에서 조사된 묘역지석묘(묘역지석묘)는 주구가 설치된 대형의 장방형 4호를 중심으로 5기가 연접하여 축조되었으며, 인접해서는 토광묘 7기가 축조되었다.

묘역지석묘와 토광묘는 내부에서 출토된 유절병석검과 적색마연토기 등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

울산 발리 449-10번지
유적 묘역지석묘



3 황창한, 2010,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특징』, 『청동기시대의 울산태화강 문화』, 울산문화재연구원 10주년 기념논문집, 울산문화재연구원.

4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23동, 묘역지석묘 5기, 토광묘 7기, 구상유구 5기, 환호 1기, 매납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한국문화재연구원 2019)

경주지역 지석묘사회의 종말

이수홍
울산문화재
연구원

I.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지석묘는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이다. 지석묘라는 용어가 가진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유명사화 되었을 정도이다. 지석묘의 하부구조와 일반적인 석관묘의 매장주체부는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무덤문화라는 보다 폭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그 위상에 걸맞게 매장문화재의 보고이다. 청동기시대에도 전역에 생활유적이 분포하는데 유독 무덤 자료는 빈약하다. 무덤을 많이 남기지 않았던 검단리문화분포권의 보편적인 양상이다¹. 하지만 무덤의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검단리문화분포권 내의 타지역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문화를 살펴보고 지석묘문화의 종말기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청동기시대의 마지막 기간이 새로운 시대인 초기철기시대와 상당기간 겹친다는 것이 현재의 학계 분위기이다. 호남지역 뿐만 아니라 동남해안지역에서도 선학(李相吉 2003, 윤호필 2013, 申英愛 2011, 이청규 2015, 우명하 2016)들이 지적하였듯이 지석묘가 초기철기시대까지 축조되고 기념물적 무덤 주위에서 제의행위도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무덤은 초기철기시대의 새로운 무덤과 동시기에 공존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무덤인 목관묘도 일부 검토해서 경주지역 지석묘사회 종말기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².

1 주거가 폐기될 때 무덤으로 전용되었다는 견해(俞炳祿 2010, 李秀鴻 2012, 安在皓 2013)가 있다. 가옥장이 검단리문화권에서 무덤이 적게 축조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겠다. 또 주구형유구인 연암동형주구가 주구묘(이수홍 2010)라는 견해도 있다.

2 본고의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은 조기-전기-후기로 분기한 안재호(2006)의 안을 따른다.

II. 유적의 검토

청동기시대의 종말기는 초기철기시대와 중복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무덤과 공존했던 초기철기시대 이른 시기의 목관묘도 같이 검토하겠다.

경주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무덤은 17곳, 초기철기시대 이른 시기의 무덤³은 9곳의 유적에서 조사되었는데 개요는 <표 1>과 같다. 초기철기시대 목관묘 유적 중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무덤과 병행한다고 생각하는 이른 시기의 목관묘 유적만 제시하였다.

대체로 하천변의 야트막한 구릉 사면에 분포하는데 도계리지석묘 · 하구리 옹관묘유적와 같이 구릉 끝자락의 평지, 황성동유적 · 충효동 유적과 같이 하천변 충적지에 입지하는 유적도 있다.

청동기시대 무덤은 110기정도 조사되어 동시기의 주거지에 비하면 유구의 수가 매우 적은편이다. 하지만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주체부의 구조는 다양한 편이다.

3 경주지역 목관묘에 대한 선행연구자의 견해에 따르면 박정욱(2012)의 초현기, 채상훈의 I 단계에 해당한다. 경주지역에 목관묘가 처음 출현하는 시기인데 삼각구연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고, 아직 철기 유물이 거의 없는 단계이다. 김용성(2016)은 이른 시기의 목관묘 문화는 준왕의 남래가 원인이라고 하였고 이주현(2009)은 서남부지역의 적석목관묘가 영남지역에 전파되었다고 하였다.

연번	유적명	지역	유구	유물	시기	입지	군집	조사기관	연도	비고
1	다산리 지석묘	강동면	지석묘8(하부구조 없음)		후기	구릉말 단곡부	중군집	경주문화재 연구소 외	1994	
2	신당리유적	천북면	주구묘(세장방형1, 방형?1)	석촉(유경식), 무문토기	전기(?)	하천변 충적지	단독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2004	
3	동산리 유적 I	천북면	토광(목관)1, 주구묘4	적색마연, 방추차, 관옥	전기(?)~ 후기	구릉사면부	단독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0	
4	황성동 537-2번지 유적	시내권	소형판석석관1	석촉(무경식3, 유경식3)	전기말~ 후기초	하천변 충적지	단독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2001	
5	황성동 575번지 고분군	시내권	할석석관1	발형무문토기 1	?	하천변 충적지	단독	영남문화재 연구원	2010	기원후 목관묘 분포
6	석장동 876-5번지 유적	시내권	묘역지석묘1(석관1, 토광화장묘1), 석관2	석검 등	후기	곡간충적지	소군집	계림문화재 연구원	2012	
7	충효동 도시 개발부지 유적	시내권	연암동식주구(주구묘)4	적색마연, 무문토기 등	후기	하천변 충적지	소군집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9	
8	건천휴식소 신축부지 유적	건천읍	위석형지석묘5, 할석석관1		후기	구릉말 단평지	소군집	경주문화재 연구소	1995	
9	도계리 지석묘군 II	서면	묘역석50(석관1, 토광10), 지석묘6(하부구조 없음)	석검	후기	선산지	대군집	삼한문화재 연구원	2020	토광은 화장 가능성
10	화곡리 제단 유적	내남면	적석제단1(상석)		?	구릉말단	단독	성림문화재 연구원	2008	
11	상신리 지석묘	내남면	지석묘4(1기는 원형 묘역식)	석창, 무문토기편	?	구릉 말단부	소군집	국립박물관	1964	
12	덕천리 유적 I	내남면	할석석관1	석검, 석촉3(무경2), 적색마연	전기	하천변 충적지	단독	영남문화재 연구원	2008	
13	월산리 입석 유적	내남면	묘역식 입석		?	구릉사면	단독	영남문화재 연구원	2017	시기불명으로 보고
14	월산리 산 137-1번지 유적	내남면	할석석관1	이단병식석검1, 무경식석촉 17, 옥4	전기	구릉 사면부	단독	영남문화재 연구원	2006	주혈로 묘역 조성
15	죽동리유적	외동읍	토광1	적색마연, 무문지부	전기(?)	구릉사면	단독?	부경문화재 연구원	2013	전기?
16	문산리 청동기시대 유적 II 구역	외동읍	지석묘1, 판석석관5, 할석석관5, 석개토광1	석검, 적색마연토기, 무경식석촉	전기~ 후기	구릉말 단부	중군집	성림문화재 연구원	2010	석개토광묘 (II 나-2호) 는 전기
17	봉길리유적	양북면	적석토광(?)1	불명석기 (합인?)	?	구릉사면부	단독	영남문화재 연구원	2005	석관형 유구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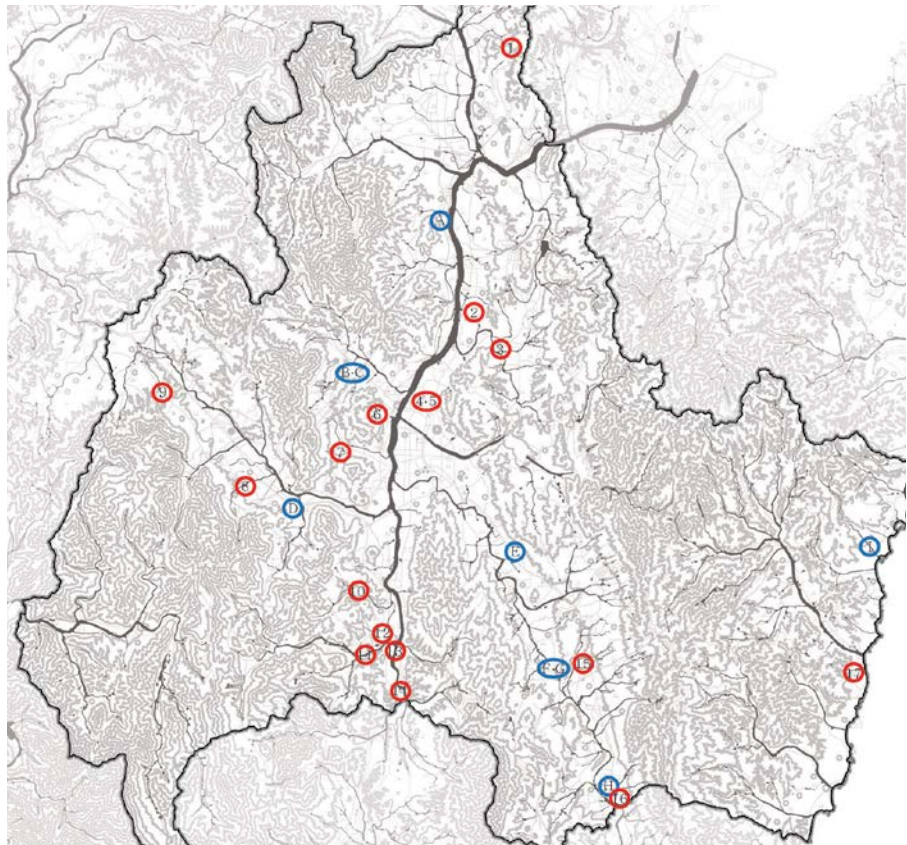
연번	유적명	지역	유구	유물	시기	입지	군집	조사기관	연도	비고
A	갑산리 유적	안강읍	적석석관1		후기~ 초기철기	구릉정부	단독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B	하구리 유적	현곡면	목관4	흑도장경호, 적색마연호, 삼각형점토 대토기	BC2C 전반~ 후반	구릉사면	소군집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0	
C	하구리 옹관묘 유적	현곡면	옹관13	원형점토 대토기, 삼각형점토 대토기, 파수부용	BC1C 전반~ 후반	구릉말 단평지	중군집	성림문화재연구원	2013	
D	화천리 산251-1 유적	건천읍	제단지석묘1		초기 철기시대	구릉 정상부	단독	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제단 유구로 보고
E	조양동유적	시내권	목관29, 목관12, 옹관15	삼각형 점토대토기, 주머니호, 동경, 주조철부 등	BC2C~ 삼국시대	구릉사면	군집	국립경주박물관	2003	13호가 가장 이른시기
F	북토리 고분군	외동읍	목관15, 옹관3	흑도장경호, 삼각형점토 대토기, 단조철부 등	BC2C 후반~ AD2C중반	구릉사면	중군집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1	
G	북토리 39-1번지 유적	외동읍	목관2	두형토기, 흑도장경호, 삼각형점토 대토기	BC2C 후반~ BC1C전반	구릉평탄면	소군집	계림문화재연구원	2014	
H	문산리 유적 I	외동읍	목관2	두형토기, 주머니호, 석촉, 철촉, 주조철부	BC2C말~ BC1C전반	구릉사면	소군집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9	

〈표 1〉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 초기철기시대
초현기 무덤 유적
(1~17:청동기시대,
A~I:초기철기시대)

〈도 1〉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이른 시기 무덤
(1~17:청동기시대,
A~I:초기철기시대,
번호는 〈표 1〉의 연번과
동일함)



Ⅲ.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문화의 특징과 종말기의 양상

본 장에서는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종말기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 시기의 무덤 양상을 함께 살펴보겠다.

1.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문화의 특징

청동기시대 무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편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대략적으로 <표 2>와 같이 편년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경주지역 무덤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표 2>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
초기철기시대
무덤 편년

시대 무덤 분류		청 동 기 시 대				종말기	
		전 기		후 기		초기철기	
토광계	석개토광						
			문산리Ⅱ				
	토광						
		동산리Ⅰ, 죽동리		도계리			
	화장용						
			석장동876-5		전촌리		
석관계	할석석관						
		덕천리Ⅰ, 월산리		문산리Ⅱ			
	판석석관						
		황성동537-2		문산리Ⅱ			
	적석석관						
						갑산리	
지석묘	위석형						
				다산리, 도계리, 건천			
	할석석관?						
				문산리Ⅱ			
	제단형						
		석장동876-5, 도계리		전촌리, 화천리			
주구묘	세장방형						
		신당리					
	방형·원형						
		충효동, 동산리Ⅰ					
목관묘							
						조양동, 하구리, 문산리, 북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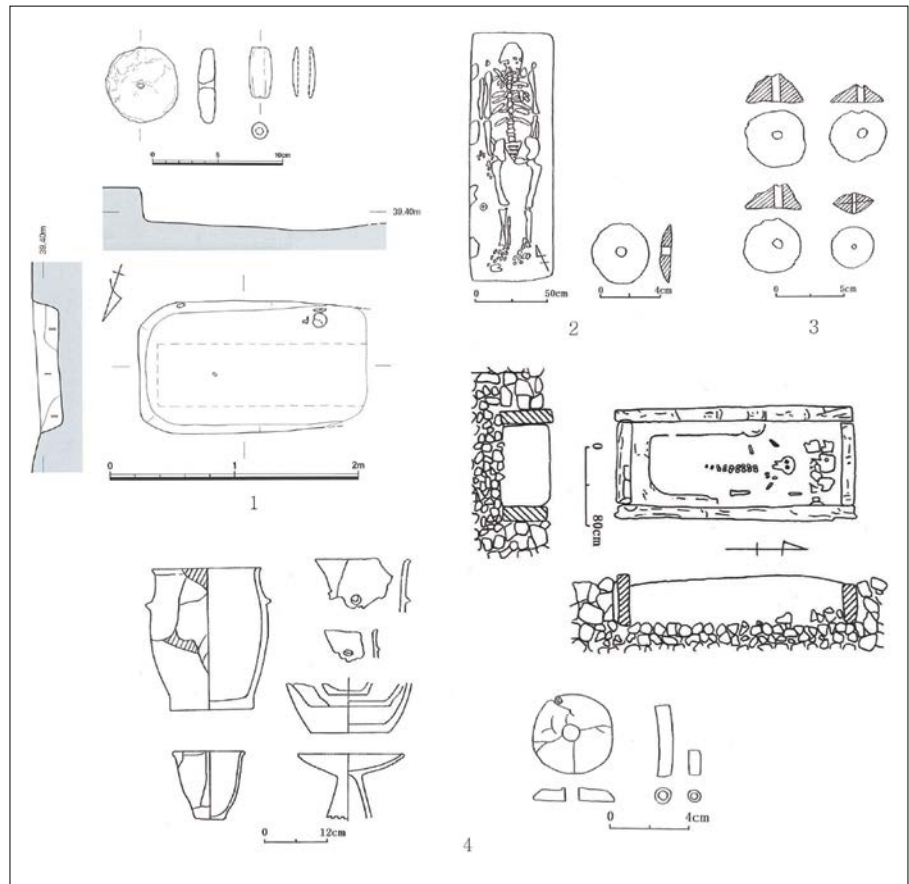
전기 무덤은 모두 7기이다. 전기에 축조된 무덤은 모두 단독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체 유적에서 발굴된 범위를 감안한다면 1~3기 정도로 단독 혹은 소군집하였을 것이다.(배진성 2011, 이수홍 2020) 전기부터 토광, 소형판석석관, 할석석관, 석개토광 등 매장주체부의 구조가 다양할 뿐더러 신당리유적에서는 매장주체부가 잔존하지 않지만 세장방형의 주구묘도 확인되었다. 매장주체부의 구조가 시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출현기부터 다양한 구조의 무덤이 공존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문화의 특징이라면 토광묘와 제단식지석묘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도 2〉

동산리유적 토광묘와
북한에서 방추차가
출토된 무덤
(1:동산리유적,
2:검은개봉유적 1호,
3:同 8호,
4:지초리유적)



동산리유적 I 의 토광묘는 바닥에서 목관의 범위로 추정되는 유기물의 흔적이 잔존해서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내부에서 방추차, 관옥, 적색마연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방추차는 무덤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유물이 아니다. 북한지역에서는 함경북도 무산 지초리유적의 석관묘, 회령시 남산리 검은개봉유적 1호와 8호 토광묘에서 방추차가 출토된 사례가 있다. 동산리유적의 토광묘는 동북한지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토광묘 중에서는 화장의 흔적이 확인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도계리지석묘군, 석장동 876-5번지 유적, 전촌리유적 등 제단식지석묘의 매장주체부는 토광이 많고 또 화장의 흔적이 잔존한다.

돌을 이용해 묘역을 조성한 소위 묘역식지석묘는 남부지방 전역에 분포한다. 특히 송국리문화권에 많이 분포하는데 검단리문화권에서는 유독 경주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윤형규(2019)는 경주지역의 제단식지석묘는 묘역식지석묘라는 송국리문화권의 특징과 토광과 화장을 통한 이차장이라는 검단리문화권의 특징이 결합된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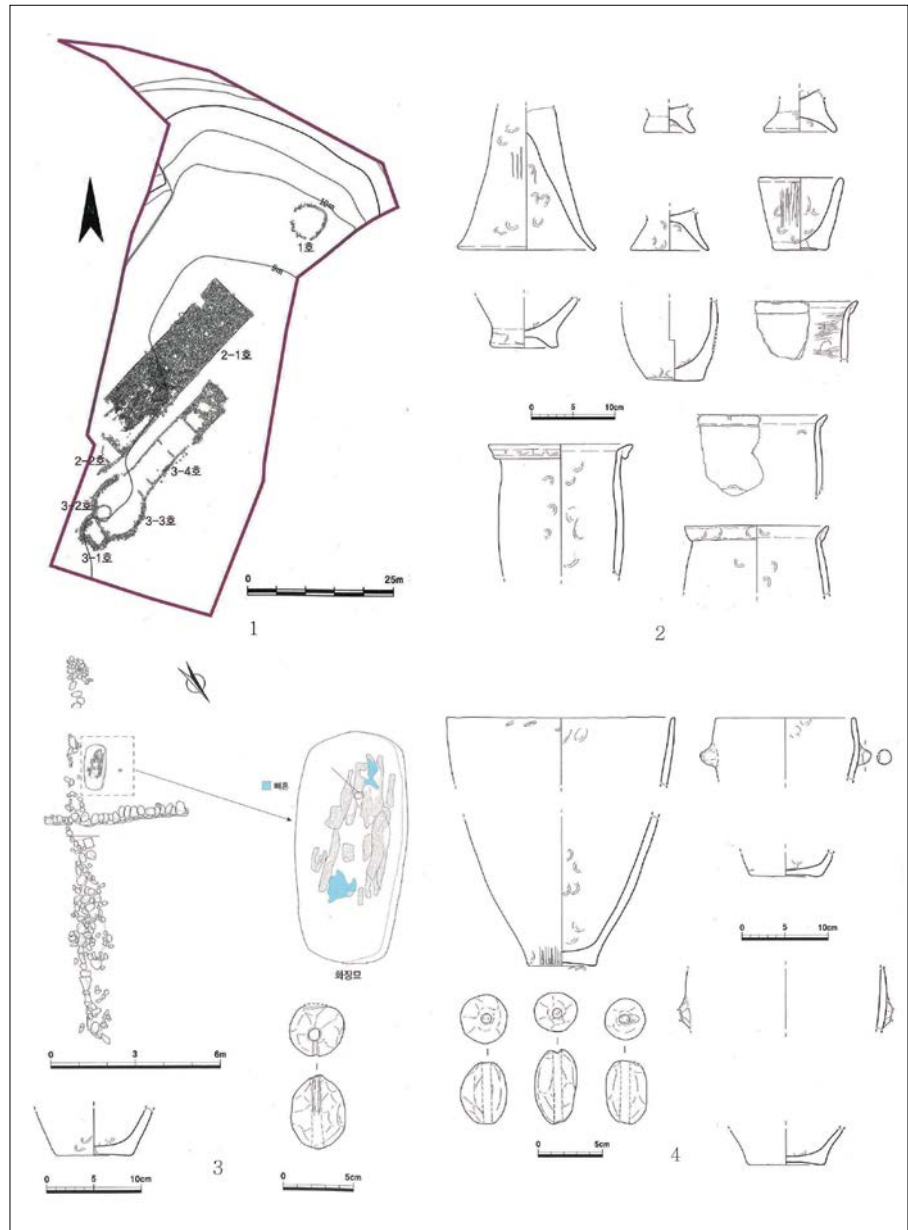
2. 종말기 청동기시대 무덤의 양상

명확하게 초기철기시대에 축조 혹은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 청동기시대 재지의 전통을 가진 유구는 전촌리유적의 제단식지석묘이다. 제단으로 추정되는 포석에서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출토된 검단리식토기와 AMS결과 등을 근거로 청동기시대 후기에 축조되었고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사용되는 초기철기시대까지 의례행위가 지속되었다고 한다.(조미애 2015, 박영구 2017) 2-1호 내부시설인 화장묘의 목탄에 대한 AMS결과가 $2440 \pm 40\text{B.P.}$, $2520 \pm 40\text{B.P.}$, $2500 \pm 40\text{B.P.}$ 로 도출되었다. 교정연대는 95.4% 신뢰구간에서 최상한선이 기원전 800년이며 최하한선은 기원전 400년이다. 실제로 2-2호에서 낱알문이 새겨진 검단리식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보고자의 견해대로 최초 청동기시대에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김천 문당동유적 목관묘의 경우 AMS결과가 $2710 \pm 60\text{B.P.}$ 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도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AMS연대 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축조 자체가 초기철기시대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검단리식토기가 출토된 것을 근거로 유구가 청동기시대 후기에 축조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검단리식토기가 초기철기시대까지 사용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촌리지석묘가 청동기시대 후기에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의례행위가 초기철기시대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은 선조에 대한 숭배(?)가 이어진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음에도 선주민의 축조물이 제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재지민과 새롭게 들어온 유이민간의 갈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화천리 산252-1유적의 정상부에서도 유사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제단유구로 보고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장축 5.3m, 단축 3.1m이다. 잔존한 남동쪽 모서리 부분의 축조상태가 전촌리지석묘와 유사하다. 유적의 가장 정상부에 위치하는데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곳임과 동시에 동쪽 별판에서 잘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역시 의례유구로 추정되는 주구형유구 1~4호와 인접해 있다.

<도 3>

전촌리유적
배치도와 출토유물
(1:배치도,
2:1호,
3:2-1호 화장묘,
4:2-2호)



전촌리유적의 제단식지석묘와 같은 성격의 유구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갑산리유적의 적석석관묘도 초기철기시대에 축조된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갑산리유적의 석관묘는 이단으로 묘광이 굴착된 것에 기인해 창원 덕천리유적, 전남 보성 동천리유적의 지석묘 등과 유사성이 인정되어 시기적으로도 상응한다고 한다. 필자 역시 공감하지만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단굴광 보다는 매장주체부 상부와 주위에 적석이 이루어진 점과 시상석의 구조이다. 갑산리유적의 경우 생토면 위에 잔자갈을 두 벌 정도 깔고 그 위에 판석을 깔았다. 매장주체부 상부와 주변에는 돌을 쌓았다. 이런 형태의 무덤은 울산 상연암유적에서 조사된 적석토광묘와 유사하다. 상연암유적 적석토광묘는 갑산리유적과 유사하지만 매장주체부의 재질만 차이가 있다. 상연암유적 적석토광묘에서는 무경식이지만 만입부가 없이 편평한 삼각형석축, 무경무병식석검이 출토되었다. 이런 형태의 석축은 석축 중에서 시기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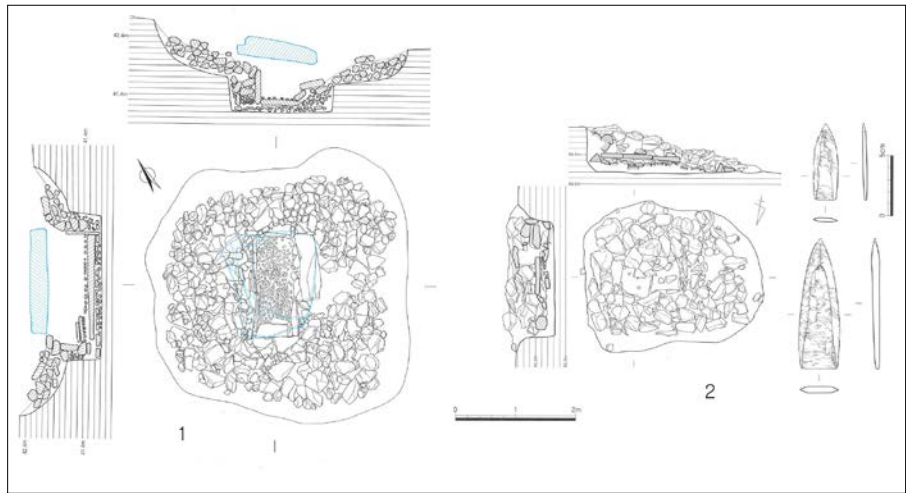
〈도 4〉

초기철기시대

적석묘

(1:경주 갑산리유적,

2:울산 상연암유적)



가장 늦은 단계의 것(정인성 2002, 孫峻鎬 2006, 송효진 2018)으로 원형점토대토기와 공반한다. 무경무병식석검 역시 보령 교성리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공반하기 때문에 초기철기시대의 유물이 확실하다. 따라서 매장주체부의 구조적인 차이는 있지만 갑산리유적의 적석석관묘도 초기철기시대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청동기시대 종말기 무덤과 공존하는 목관묘

경주지역에서 목관묘는 기원전 2세기에 등장한다. 이른 시기의 목관묘는 전촌리유적의 제단식지석묘 등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무덤과 공존하였다. 경주지역 목관묘를 검토한 박정욱(2012)의 4단계(초현기-성립기-확산기-발전기) 중 초현기, 채상훈(2015)의 3단계(I 단계-II 단계-III 단계) 중 I 단계의 목관묘가 전촌리유적의 제단식지석묘와 동시기에 존재했었다.

이 단계의 목관묘와 옹관묘는 조양동유적, 하구리유적, 북토리유적, 문산리유적 등에서 조사되었다. 하구리유적(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0)에서는 구릉 사면에 목관묘가 분포하고 구릉 아래쪽 평지에는 목관묘(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3)와 옹관묘(성림문화재연구원 2013)가 분포한다. 목관묘에서는 삼각구연점토대토기, 두형토기, 흑도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기원전 2세기에 해당된다. 옹관묘는 삼각구연점토대 옹과 파수부 호 등 두 점을 횡치한 합구식이다.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전반~후반에 해당된다.

조양동유적에서는 목관묘 29기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13호가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이다. 바닥에 삼각구연점토대토기 5점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목관 상부에 매납되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소형 토제원판 1점도 같이 출토되었다. 조양동유적은 삼국시대까지 지속적

으로 무덤이 축조되었는데, 가장 이른 13호는 기원전 2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북토리 39-1번지 유적(계림문화재연구원 2014)에서는 2기의 목관묘가 조사되었는데 1호는 통나무관이고 2호는 판재관이다. 삼각구연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흑도장경호가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기원전 2세기 후반~기원전 1세기 전반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북토리고분군에서도 목관묘 15기와 옹관묘가 조사되었는데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되었다. 그 중 5호·6호 목관묘가 전촌리유적과 동시기에 해당된다. 모두 판재관이다. 삼각구연점토대옹, 흑도장경호와 소형판상철부가 출토되었다.

<도 5>

경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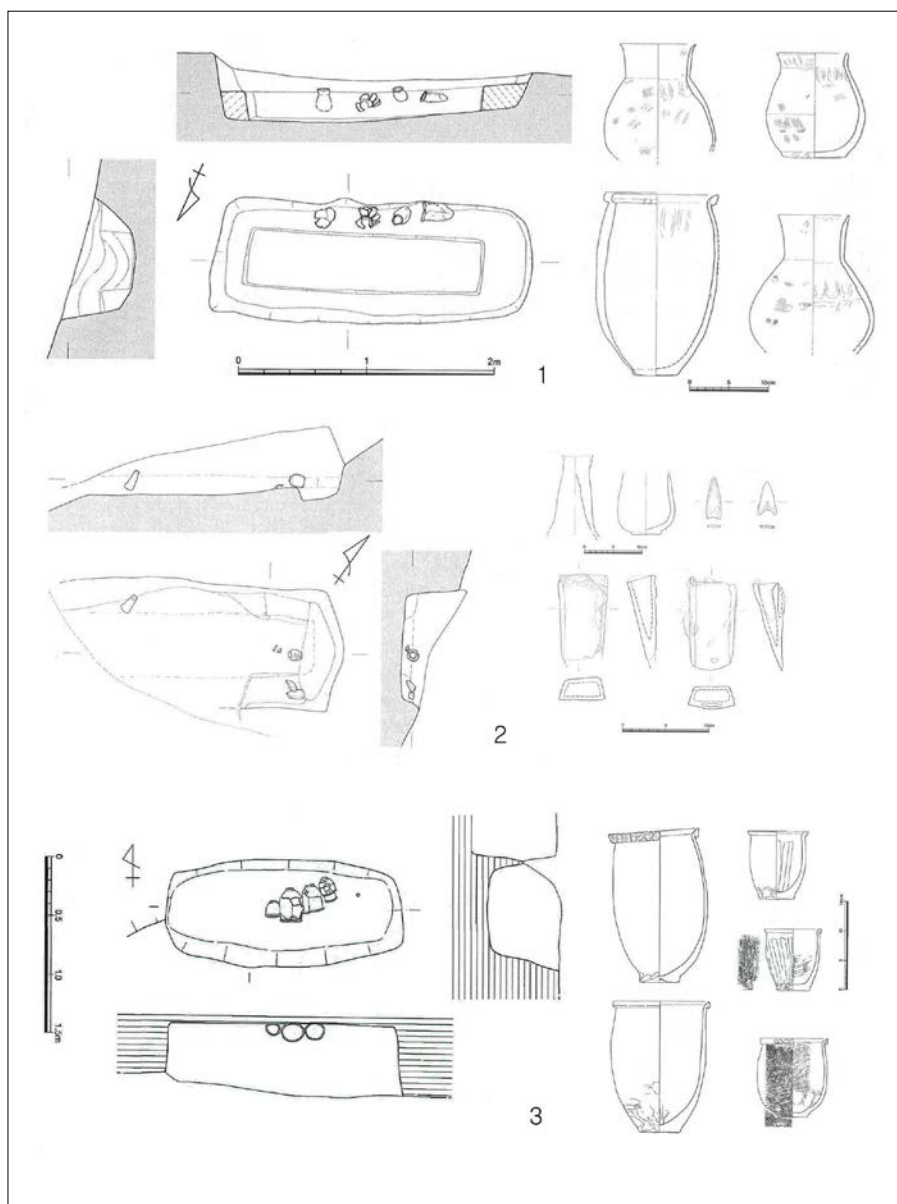
초기 목관묘

(1:하구리유적 4호,

2:문산리유적 2호,

3:조양동유적 13호)

(박정욱 2012에서 전제)



경주지역에서 원형점토대토기는 화천리 산251-1번지 유적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기원전 4세기 후반에는 출현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목관묘는 기원전 2세기에 출현한다. 원형점토대토기와 목관묘의 출현 사이에는 적어도 200년 가까운 공백이 있다. 적석목관묘가 순수목관묘 보다 먼저 경주에 전파되었다고 하지만(이주현 2009, 김용성 2016)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경주지역의 초기목관묘는 순수목관묘이다.(박정욱 2012, 채상훈 2015) 적석목관묘는 조양동 5호묘 단계에서 확인된다. 적석목관묘에서 순수목관묘로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목관묘에서 적석목관묘로 변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지역의 발굴성과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더 이른 시기의 적석목관묘가 경주지역에서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주지역 목관묘는 대부분 판재관이지만 북토리 39-1번지 1호는 통나무관으로 알려져 있어 목관묘 출현기부터 통나무관과 판재관이 혼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유물은 삼각구연점토대옹, 두형토기, 흑도장경호가 대부분이다. 철기는 일부 무덤에서만 출토된다. 철기문화를 동반한 유민집단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철기제작기반은 아직 미약했다.(박정욱 2012)

IV.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과 제단식지석묘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새로운 무덤문화인 목관묘가 경주지역에 출현하는 것과 목관묘문화의 주인공인 점토대토기인들의 출현과는 현재까지의 자료로만 볼 때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을 감안하여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종말기무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점토대토기문화 유입과 무덤 문화의 공백

경주지역에서 목관묘가 출현한 것은 기원전 2세기 전반이다. 초기철기시대에는 화천리 산252-2유적의 사례를 볼 때 늦어도 기원전 4세기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화천리유적 보다 시기적으로 이른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점토대토기인들이 경주지역에 이주한 이후 목관묘가 축조되기 전까지 무덤 문화는 일정 기간 공백이다. 갑산리유적의 적석목관묘가 새로운 시대의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판석을 사용하고 돌을 적석하는 점은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보이는 요소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전촌리유적과 화천리유적의 제단식지석묘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신문물을 가지고 유입된 이주민들이 초기에는 무덤을 축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안정적인 정착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초기 점토대토기인들이 재지의 청동기시대인들은 주거지역으로 선호하지 않았던 고지에 마을을 형성한 것은 재지민들과의 갈등관계로 인한 방어용 취락(權五榮 1996), 철광상의 개발을 위한 이동식 임시 마을(李在賢 2002)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주지역의 경우 서로 배타적으로 취락지가 점유된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점은 인근의 울산지역도 마찬가지이다. 호서지역에 처음으로 점토대토기인들이 정착한 이후 적어도 경주와 울산지역으로 파급될 때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거나 새로운 문화의 유입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이수홍 2019) 그럼에도 무덤을 축조하지 않았던 점은 역시 이동을 전제로 한 짧은 기간의 정착생활이 바탕이 된 생활 형태에 기인할 것이다.

2. 새로운 의례의 시작

초기철기시대가 되면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고지에 방어와는 거리가 멀 정도로 폭이 좁은 환호가 구릉 정상부를 에워싸듯이 설치되는 점이다. 환호는 이미 청동기시대에도 활발히 축조가 되었지만 청동기시대의 것은 마을을 둘러싸거나 폭이 적어도 1m 보다는 넓어 규모로 볼 때 적어도 최소한의 방어기능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⁴. 하지만 초기철기시대 환호는 환호가 둘러싸는 공간이 좁거나 환호 자체의 규모가 작고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의례의 기능이 극대화 된 것이다. 초기철기시대 고지성환호의 증가는 천신의례의 확산과 관련된다고 한다.(김권구 2012) 경주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 고소에서 행해진 의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 화천리 산251-1번지 유적과 죽동리유적이다.

<도 6>

죽동리유적 전경과
정상부 환호



죽동리유적은 평지에 솟은 독립된 구릉에 분포하는데 마치 평야에 떠 있는 섬과 같이 정상부는 주변에서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곳이다. 구릉 정상부에는 마치 지석묘의 상석과 유사하게 바위가 노출되어 있다.

4 그렇다고 해서 환호의 주기능이 방어라는 것은 아니다. 내부의 신성한 공간을 사람이나 짐승이 물리적으로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정상부를 폭이 좁은 2열의 환호가 감싸는 형태이다. 환호 내부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부천 고강동유적, 안성 반제리유적, 합천 영창리유적과 입지 혹은 구의 형태가 유사하다.

화천리 산252-1유적의 정상부에는 의례용유구로 추정되는 주구가 4기 설치되어 있고, 주구에서 10m 떨어진 곳에 역시 의례에 이용되었을 제단유구가 위치한다. 구릉 정상부의 ‘신성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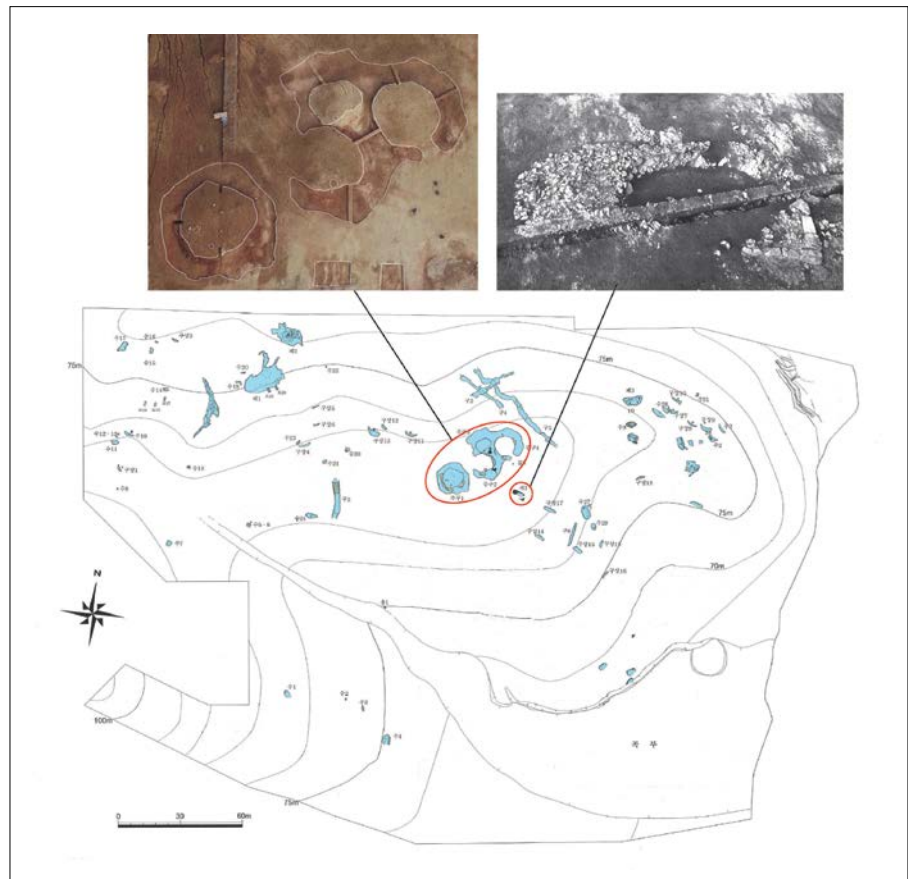
마한지역의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고창 죽림리유적, 홍성 석택리유적, 순천 덕암동유적, 보령 명촌리유적 등에서 조사된 환호유적에 대해 ‘소도’라는 견해가 있다.(나혜림 2017) ‘소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만 죽동리유적과 화천리 산251-1유적도 동일한 성격임에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청동기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高所議禮에 청동기시대의 전통을 간직한 제단식지석묘가 이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3. 지석묘 사회의 종언

경주지역은 검단리문화가 서서히 해체되는 과정에서 고유의 물질문화가 점차 사라지는데 유독 제단식지석묘는 명맥을 유지한다. 그것은 역시 지석묘가 수백 년간 이어진 기념물로서의 상징성(李盛周 2012)

<도 7>

화천리 산251-1유적
초기철기시대 유구
배치도와
주구형유구·제단유구



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철기라는 강력한 신문물에 위축된 재지의 청동기시대인들도, 새롭게 유입된 점토대토기인들도 지식묘가 가지는 권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경주에 들어온 초기 이주민들이 무덤을 축조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생활을 유지할 때 기존의 무덤 중에서도 가장 의례적 상징성이 부각되는 묘역식지석묘를 축조 혹은 이용하였던 것이다. 즉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재지민의 무덤을 의례용제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경주지역에 점토대토기인들이 유입되고 그들의 전형적인 무덤이 축조되기까지 200년 정도의 공백의 이유, 경주지역에 유독 제단식지석묘가 많은 이유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겠다. 석장동유적, 도계리유적, 화곡리제단유적 등 경주지역의 제단식지석묘가 전촌리 제단식지석묘와 같이 초기철기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재지의 전통을 유지하는 제단식지석묘를 이용한 의례행위는 기원전 2세기 후반이 되면 사라진다. 이 시기가 되면 목관묘는 군집한다. 이것은 동족지배집단 즉 수장층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철기의 확산, 새로운 제도술에 의한 와질토기의 등장, 한식유물의 유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李熙濬 2011, 이수홍 2020)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데 경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지역이 동아시아 질서에 편입되는 것(李盛周 2007)이며 역으로 지식묘 사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경주지역 지식묘사회의 종말기 양상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청동기시대 후기는 초기철기시대와 상당기간 공존하는데 그 기간을 청동기시대 입장에서는 종말기로 표현하였다.

종말기의 대표적인 유구는 전촌리유적의 제단식지석묘이다. 새롭게 점토대토기인들이 이주해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의례의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청동기시대 문화가 쇠퇴하는 기간에도 일정기간 묘역식지석묘가 가지는 권위는 유지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무덤 문화인 목관묘는 경주지역에 2세기 전반에 출현한다. 2세기 후반이 되면 목관묘는 군집한다. 이 때 철기가 급격히 확산되고

한식유물이 등장하는데 한반도 남부지역이 동아시아 질서에 편입되는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다. 지식모사회가 완전히 종언하는 시점이다.

지식모의 종언은 한 시대가 마감하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드디어 우리 역사가 삼국지위지동이전과 같은 문헌에 나타나는 시점이기도 하다. 역시 이 시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읍락’, ‘국읍’, ‘별읍’, ‘소도’ 등 문헌에 나타나는 용어를 고고학 자료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며 복합사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필자의 숙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김권구, 2012,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高地性 環溝)에 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76, 韓國上古史學會.
- 김용성, 2016, 「영남지방 목관묘와 사로국」, 『韓國古代史研究』82, 한국고대사학회.
- 나혜림, 2017, 「보령 명천동 유적을 중심으로 본 소도(蘇塗)와 의례공간」, 『백제학보』22, 백제학회.
- 박영구, 2017,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변천」, 『영남문화재연구』30, 영남문화재연구원.
- 朴程郁, 2012, 「慶州地域 木棺墓 展開와 轉換期 樣相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裴眞晟, 2011, 「墳墓 築造 社會의 開始」, 『韓國考古學報』80, 韓國考古學會.
- 孫峻鎬, 2006, 「韓半島 青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송효진, 2018,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석족의 시·공간성 연구」, 『韓國青銅器學報』23, 韓國青銅器學會.
- 申英愛, 2011, 「嶺南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文化接變」,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安在皓, 2013, 「韓半島 東南海岸圈 青銅器時代의 家屋葬」, 『韓日聚落研究』, 韓日聚落研究會, 서경문화사.
- 우명하, 2016, 「영남지역 묘역지석묘 축조사회의 전개」, 『嶺南考古學』75, 嶺南考古學會.
- 俞炳球, 2010, 「豎穴建物 廢棄行爲 研究1-家屋葬-」,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創設20周年 記念論文集』,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 윤형규, 2019, 「대구·경북 청동기시대 무덤의 전개를 통해 본 지역사회의 변화」, 『한국청동기학보』24, 한국청동기학회.
- 윤호필, 2013, 「축조와 의례로 본 지석묘사회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李相吉, 2003, 「慶南의 支石墓」, 『지석묘 조사의 새로운 성과』, 제3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요지, 한국상고사학회.
- 李盛周, 2007, 『青銅器·鐵器時代 社會變動論』, 學研文化社.
- 李盛周, 2012, 「儀禮, 記念物, 그리고 個人墓의 발전」, 『湖西考古學』26, 湖西考古學會.
- 이성주, 2017, 「支石墓의 축조중단과 初期鐵器時代」, 『嶺南文化財研究』30, 영남문화재연구원.
- 이수홍, 2010,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구형 유구에 대하여」,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創設20周年 記念論文集』,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 李秀鴻, 2012, 「青銅器時代 檢丹里類型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수홍, 2019,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지역상」, 『韓國青銅器學報』24, 韓國青銅器學會.
- 이수홍, 2020, 「영남지방 수장묘의 등장과 변화상」, 『영남고고학』85, 영남고고학회.
- 李在賢, 2002, 「IV. 고찰」, 『金海大清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주헌, 2009, 「경주지역 목관·목곽묘의 전개와 사로국」, 『문화재』42,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청규, 2015, 「청동기~원삼국시대 사회적 변천」, 『금호강유역 초기사회의 형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李熙濬, 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嶺南考古學』58, 嶺南考古學會.
- 정인성, 2002, 「支石墓文化에서 細形銅劍文化로의 移行-낙동강유역권을 중심으로-」, 『전환기의 고고학 I』, 학연문화사.
- 조미애, 2015, 「V. 고찰」, 『경주 전촌리 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채상훈, 2015, 「영남 동부지역 삼한시대 목관묘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문물』5, 한국문물연구원.

• 토론회

‘경주지역 지식묘사회의 종말’에 대한 토론회

윤호필
상주박물관

발표문은 경주지역 지식묘의 종말기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청동기 시대의 무덤(지석묘)의 특징들을 시기순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청동기 시대 종말기와 동시기에 공존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초기철기시대의 무덤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시대적 변화기인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양상을 간략하게 잘 설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말’은 어떤 것이 끝난다는 것을 말하는 용어이지만, 한발 나아가면 새로운 시작의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시대적 변화는 한순간에 끝나고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끝이 다가올 때 새로운 시작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끝과 시작은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발표자도 이러한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생각되며, 토론자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지석묘)의 종말은 단순히 무덤의 구조나 형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인 내세관과 세계관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특히, 청동기시대의 무덤(지석묘)은 ‘돌’을 모티브로 한 ‘거석문화’의 한 종류로서 ‘거석사상’이 반영된 묘제입니다. 따라서 지식묘의 종말은 청동기시대인의 내세관과 세계관의 종말을 의미하며, 이러한 것들이 시대적 변화기(종말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토론자는 이러한 관점을 포함하여 발표내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는 머리말에서 지식묘와 석관묘의 하부구조의 구별 문제, 검단리문화권의 가옥장 문제 등을 일부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문의 주제와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라 자세한 문제 제거나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발표문의 내용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정리하셔서 분포, 입지, 군집 등을 검토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좀 부족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지를 보면, 초기철기시대는 모두 구릉부에 입지하고 청동기시대는 크게 구릉부와 하천변 충적지(곡부평지) 입지로 구분되는데, 입지에 따른 양자간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군집에서도 단독, 소군집, 중군집 등이 확인되는데, 이중 대군집이 없는 이유와 단독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포에서 대부분이 하천주변에 위치하는데, 무덤과 주거지와 입지적 관계가 어떤지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문화의 특징에서 ‘제단식지석묘’란 용어의 문제입니다. ‘제단식지석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묘역형태로 적석되어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위에 상석같은 거석이 올려져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내부에는 매장주체부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매장주체부가 없기 때문에 무덤이 아닌 것으로 ‘묘’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발표자께서 매장주체부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제단시설은 묘역시설이 되고 ‘묘역지석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묘역지석묘’와 ‘제단지석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지역의 청동기시대 무덤문화의 특징을 ‘토광묘와 제단식지석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셨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징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주지역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경주지역에 ‘묘역지석묘’도 유독 많이 분포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발표자의 견해는 아니지만, ‘경주지역의 제단식지석묘는 묘역식지석묘라는 송국리문화권의 특징과 토광과 화장을 통한 이차장이라는 검단리문화권의 특징이 결합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묘역을 갖춘 지석묘가 송국리문화권에 많이 분포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기때문에 송국리문화권만의 특징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점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제단지석묘에 나타난 의례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촌리지석묘에 대한 설명에서 ‘전촌리지석묘가 청동기시대 후기에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의례행위가 초기철기시대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은 선조에 대한 숭배(?)가 이어진 것이다.’라고 하고 이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선주민의 축조물이 제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재지민과

새롭게 들어온 이주민간의 갈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먼저 단순히 이 자료만으로 재지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그런 추측을 하더라도 고고자료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제단에 대한 의례행위가 ‘조상숭배’와 관련된 의례인지 다른 의례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촌리지석묘는 매장주체부가 없는 제단시설이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석묘라는 무덤에 대한 의례가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조상숭배’ 사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무덤이 아닌 제단에 대한 의례행위를 ‘조상숭배’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철기시대인들이 선주민의 무덤에 대해 과연 의례행위를 했을까?는 의문입니다. 무덤에 대한 의식은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른기 때문입니다. 제단에 대한 의례는 대부분 집단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전해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초기철기시대의 이주민의 정착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석묘사회의 재지민과 초기철기시대 이주민에 대한 관계설정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의견과 연구성과가 있지만 명확한 결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경주지역에 유입된 초기철기시대 이주민(점토대토기인)들은 목관묘의 출현기(기원전 2세기)과 점토대문화의 유입기(기원전 4세기)를 들어 초기에 무덤이 축조되지 않은 무덤문화의 공백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관련유적의 사례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0년간의 무덤 공백기는 실질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무덤은 정신세계(내세관, 세계관 등)와 관련된 것으로 청동기시대인보다 발달된 신문물을 가진 집단이 무덤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덤을 축조하지 않은 이유를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하셨는데, 그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발표자는 전촌리유적의 제단을 설명하면서 ‘재지민과 새롭게 들어온 이주민 간의 갈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한 것과도 배치되는 설명 같습니다. 특히, 뒤의 설명에 경주지역에 초기철기시대 이주민이 유입될 때 재지민과 서로 배타적으로 취락지가 점유된 양상을 보이며, 이점을 경주와 울산지역으로 파급될 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거나 새로운 문화의 유입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축조하지 않은 이유를 이동을 전제로 한 짧은 기간의 정착생활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주민과 재지민은 취락공간도 다르고 서로간의 갈등도 없는데, 이주민이 이동생활(짧은 정착생활)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이겠지만, 이주민의

이동생활을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된 내용을 다르게 보면 당시의 사회는 갈등이 없는 안정적인 사회인데, 이주민들이 이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취락의 발달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초기철기시대가 되면 의례의 기능이 극대화 된다고 하면서 '소도'에 대한 설명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입된 점토대토기인들이 지식묘가 가지는 권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기 어려웠고 무덤을 축조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의례적 상징성이 강한 묘역식지석묘를 축조 혹은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재지민의 무덤을 의례용제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덤과 제단은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명확히 무덤을 말하는 것인지, 제단을 말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의 질문과 연결하여, 이와 같은 해석의 전제가 경주지역 초기철기시대 취락이 불안정하여 정착이 어려웠다는 것인데, 고고자료 상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사회상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재지민과 갈등이 없고 취락공간도 다르고 의례가 활성화되어 '의례공간'과 '집단 의례시설(제단)'이 축조되는 사회상이라면 정말 점토대토기인들이 이동생활을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례공간'과 '집단 의례시설'은 취락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주의 청동기시대

사람과 문화

삶과 죽음

총괄	이종훈
기획	이채원, 박성진, 정인태
편집·교정	정인태, 김미나, 황지수, 지영배, 김수희, 정재원, 강승우, 김동호
원고	안재호, 배균열, 강봉원, 유병록, 정인성, 윤형규, 박영구, 이수홍, 윤호필
행정지원	윤민재, 장준영
발행일	2020년 6월 19일
발행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38127)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 T.054-777-8800 F.054-777-8890 http://nrich.go.kr/gyeongju
디자인·인쇄	디자인회사 리턴 www.designreturn.co.kr
발간등록번호	11-1550107-000130-01
ISBN	978-89-299-1872-9 93910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 이용시 출처를 표기하고 이미지나 도면 등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Symposium on
The Bronze Age of Gyeongju
People and Culture
Life and Death**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한국청동기학회
Society for Korean Bronze Culture